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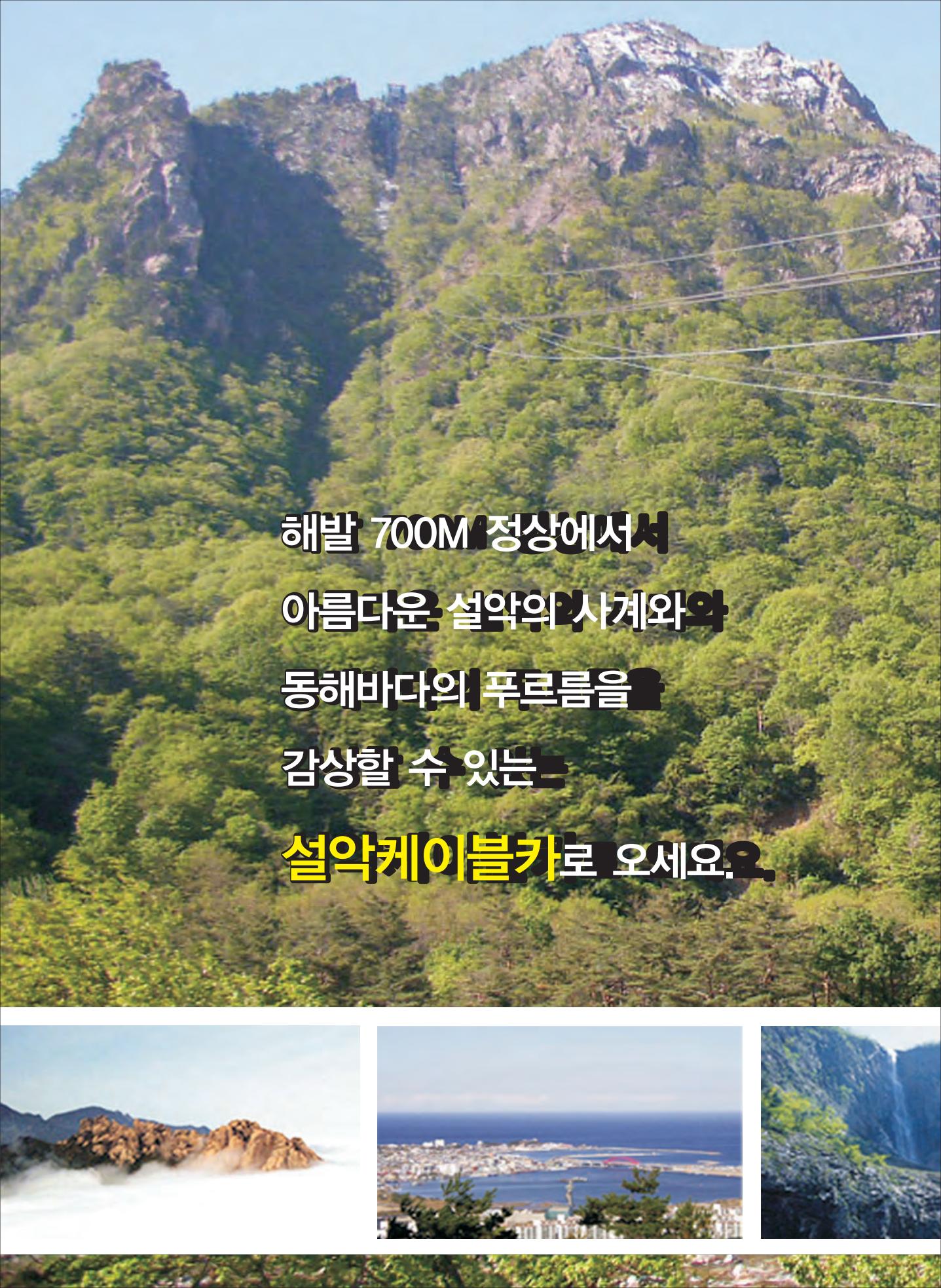
2008. 제24호  
NUALLY

#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해발 700M 정상에서  
아름다운 설악의 사계와  
동해바다의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는  
**설악케이블카**로 오세요.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146-2

[www.sorakcablecar.co.kr](http://www.sorakcablecar.co.kr)

TEL : 033) 636-4300



# 속초문화

ANNUALLY·2008 제24호

속초문화원

주소/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우217-010

전화 (033)632-1231, 639-2439 / 전송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history.com>

E-mail : sc2439@sokcho.org

■ 폐낸곳 / 속초문화원

■ 발행인 / 노광복

■ 편집인 / 한정규·김인섭

## CONTENTS



Cover story

■ 권두휘호 / 흥근화	김동화	4
■ 권두시 / 영랑호여!	박광훈	5
■ 활동해시대의 관광 · 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		6
■ 발간사	노광복	7
■ 문예중흥선언		8
■ 속초시민현장		9
■ 속초시가		10
■ 2008 속초문화원 365		11
– 2008 속초 해맞이축제		12
– 2008 속초 불축제		14
– 제28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16
– 2008 효행청소년 시상		18
– 2008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 입교식		19
– 2008 노인일자리사업		20
– 2008 한국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		21
– 2008 제4회 화랑영랑축전		22
– 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수		24
– 속초 도문농요 문화재 보유단체 전수교육보조자 지정		25
– 2008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친구랑 함께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26
– 2008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 '어린이 문화교육단 4기'		27
– 제1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28
– 땅땡땡! 실버문화학교		29
–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		30
– 2008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32
– 2008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속초 숲속의 국악캠프"		33

## CONTENTS

발행일 / 2008년 12월 30일

인쇄처 / 강원기획

〈속초문화〉는 속초시 보조금 및 강원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된 제작물로  
일부글과 사진은 속초문화원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비매품

#### ■ 사진제공 / 속초시문화공보과 남동광

– 2008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34
– 제43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35
– 속초 북청사자탈 만들기	36
–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전	37
– 2008년 문화전수교육 "친구랑 함께하는 우리 문화 한마당"	38
– 빛과 음악이 있는 거리음악회	39
– 2008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40
– 아바이마을 문화관광해설사	41
– 2008 문화유적답사	42
– 언론에서 본 속초문화원 / 원장동정	43
■ 특집 / 실향의 애환이 서려있는 곳, 아바이마을	45
– 실향민의 보금자리, 아바이마을의 미래	엄경선 46
– 속초 아바이마을의 민요	김의숙 56
– 어르신이 들려 주는 아바이마을 이야기	김인섭 68
■ 문화논단 /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장정룡 72
■ 학술연구조사자료 / 속초 도리원농악 전승실태	장정룡·박치영·주동진·조현정 92
■ 문화탐방 / 고구려의 기상을 만나다	최상규 140
■ 문화현장 / 전통을 엮는 우리 문화 지킴이 –속초 실향민문화촌 이성호 할아버지-	이우철 145
■ 속초문화원 / 지분없는 박물관 강화수원 역사문화대장정	김은중 148
■ 문화인물 / 윤흥렬, 한학기, 안정희, 최돈일	편집부 152
■ 회원문단 / 물의 영성	한초자 154
■ 문화나눔 / 희망을 나누는 속초 연탄은행 / 쌀은행	156
■ 문화수상자	조길현, 최무일 158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임·직원	161
– 회원	162

# 권두휘호



김 동 하(紅槿花)

- 서예개인전 2회
- 교육부장관 표창
- 강원서예대전 초대작가
- 대한민국서예전람회(서가협) 초대작가
- 한·중서화부홍협회 이사, 심사위원, 초대작가
- 고려수지침학회 설악수지침봉사단장
- 속초평생교육문화센타 · 속초문화원 서예 지도강사
- 경동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 권두시



## 영랑호여!

하늘 아래 고요히 흐르는 호수여!  
그 이름 아름다운 영랑호여!  
오늘도 호숫가에 산들바람 꽃 내음 띠우며  
내일도 계절따라 피어날 꽃가루 띠우며  
구비마다 펼쳐지는 天地 風光이요

하늘이 내려주신 그림같은 자연 속에  
돌고 돌아가는 세월따라 변함없는 호수여!  
天地의 전설 속에 고요히 잠들고 있구나.  
물 안개 속으로 흐르는 永郎湖여!  
束草의 자랑이여!

햇살을 머금은 은빛물결 흐르는 물결 위에 바다  
갈매기도 벗이 되어 호숫가에 날고 있구나  
자욱한 숲사이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  
웅장한 범 바위도 은빛 찬란하게 반짝이는  
절경을 지켜보고 있구나.

축복받은 자연 속에 오고가는 사람들도 영원히  
운동 할 수 없는 짧은 人生의 허무함을.  
영랑호여! 너만은 알고 있는가?  
歲月가면 님도 가고 세대가 가고. 오고 있어도  
영랑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박 광 훈

# 활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 속초건설

## 심볼마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 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캐릭터



속초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묻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 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시목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펴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 시화 국화

국화는 변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 시조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발간사



## 문화로 소통하는 문화선진도시 속초

속초문화원장 노 광 복

매년 『속초문화』의 발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속초문화』는 우리 속초문화원의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한 해 동안 속초문화원이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으며, 어떤 비전을 보여주었는지를 소담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초문화』는 우리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여 전승하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속초문화 24호』는 속초문화원이 지난 1년 365일 동안 다양한 문화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인프라 확충과 문화지킴이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도문농요와 북청사자놀음의 전수 및 운영은 올해부터 그 결과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실버문화학교의 실버예술단은 마당극을 통해 새로운 장르에도 전했습니다.

청소년들과의 소통도 활발했습니다. 이제는 여름방학에서 빼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 된 별자리캠프는 모집방법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대장정을 한 점도 속초문화원의 자랑입니다. 근대사의 비극이 서려있는 강화도와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지역의 초등학생들과 다녀왔습니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역사유적지를 다녀왔다는 점에서 학생들 모두 만족해 했습니다.

올해 우리 문화원 사업 중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기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가 악극 ‘아, 사랑일레라’ 공연과 아바이마을 문화해설사 양성은 문화원이 지역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를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폭주하지만 사무실 직원 모두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과에 긍정적이라는 점도 덧붙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문화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사랑과 행복이 가득 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吏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계례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례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儒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겨례의 來日을 위하여 價值意識과  
吏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  
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례가 함께 藝術을 즐기 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  
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시민현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엄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 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고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성 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초시민일동

# 속초시가

$\text{♩} = 92 - 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mf*

설 - 악 산      큰 뜻 받 아      가슴에 새 - 기  
해 - 안 선      굽 이 굽 이      아침 해 떠 오르  
신 - 홍 사      종 소 리 에      새벽 잠 깨 - 이

동 해 바 다      푸 - 른 물 결      누리에 멀 - 치  
천 - 불 동      골 - 짜 기 에      흰 구름 몸을 묻  
이 슬 젖 은      발 - 길 로      바닷가 거닐 어

*mp*

정 성 과      보 - 람 으로      다 죄 온 이 - 터 전  
청 초 호      기 - 대 - 어      마 등 령 바라 보  
갈 매 기      높 - 이 - 어      우리 꿈 순짓 하

*mf*

우 뚝 솟 아      빛 - 나 네      하늘 아래 제일 이 라  
장 - 하 다      우 리 넋 이      그 - 육 히 깊어 지 네  
항 - 구 에      둑 인 배 가      대양으로 차비 하 네

*f*

가 자      배 를 젖 - 자      산 으로 바다향 - 해

*f*

우 리 얼      깃 - 든 곳      여기가 내 고 - 향

# 2008 속초문화원

365



365%의 열정으로 달려온 지난 1년  
36.5도의 따뜻함으로 만난 문화네트워크  
365 일 언제나, 속초문화와 함께했던  
그 열정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 2008 속초해맞이축제

한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2008 속초 해맞이 축제’를 2007년 12월 31일 오후부터 다음 날인 2008년 1월 1일 오전 8시까지 청초교 앞 소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서 열었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1부 행사로 31일 오후 6시~8시까지 청초교 앞 소공원에서 ‘Goodbye 2007,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전자현악과 비보이, 밸리댄스, 모듬북공연, 전통무용, 댄스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2부 행사로 이날 오후 10시~자정까지 속초해수욕장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렸다. 가수 심신과 리아의 노래 공연에 이어 비보이, 락밴드, 사물놀이, 힙합댄스, 불꽃놀이 축제가 열려, 가는 한해를 아쉬워 했다.

무자년 새해를 밝히는 해맞이축제는 ‘새 출발! 새로운 희망을 이루는 곳 속초’를 주제로 1일 오전 6시 30분~8시까지 열렸다.

양숙희 무용단의 희망의 무용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해맞이행사는 시낭송, 초청가수 자자·안치환의 노래공연, 비보이 공연이 펼쳐졌다. 또 시립풍물단의 여명의 북소리와 소원지 날리기, 소원빌기 행사 등을 통해 무자년 새해를 밝혔다.

이밖에 체험행사로는 떡국·순대국 무료 시식과 가훈 써주기, 운수대통 점보기, 컬링대회, 소원지 쓰기, 행운권 추첨, 농작물 무료시식 등의 행사가 열렸다.

◎주 제 : 새 출발! 새로운 희망을 이루는 곳 속초!

◎일 시 : 2007. 12. 31(일)~2007. 1. 1(월)

◎장 소 : 속초해수욕장



## 주 / 요 / 행 / 사

### ● 해님이 행사

속초시립풍물단과 갯마당의 '모듬북, 판굿', 초청가수 심신과 리아, 모듬북 공연, 전통무용

### ● 해맞이 행사

양숙희 무용단, 최명길 시인의 시낭송, 전자현악 '샤인', 오리지널웨스턴크루

### ● 부대행사

레이저 쇼, 불꽃놀이, 소원지 하늘로 날리기, 오색풍선 날리기, 촛불소원빌기, 가훈써주기,  
무자년 점보기, 어선해상 퍼레이드



오리지널 웨도현크루



소원지 하늘로 날리기





# 2008 속초 불축제

2008 Sekcho  
Water Fire Festival

제1회 속초 불 축제가 2008년 1월 24~2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청초호유원지에서 열렸다. ‘겨울밤 속초에서, 불의 세상에 동화(冬火)되다’ 를 주제로 열린 불축제는 체험과 전시·관람공연, 경연 등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겨울축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체험행사로는 청초호수에서 부교 건너기와 꽃갯배타기, 카약, 오리배타기, 수상카페, 장작 쌓기, 소원장작 던지기 등의 행사가 열렸고, 분수대 앞 주차장(실내)에서는 상상(과학) 체험존(장작 갯배, 불의 신 오토마타 그림자놀이, 창작등 만들기)과 양초로 만든 성, 캐릭터퍼즐 맞추기, 테디베어 연출, 불꽃타투, 바람개비 만들기, 불꽃 모자 만들기 등이 개최되었다.

올해 처음 열린 속초불축제에서 속초문화원은 핫불페레 이드 등 4개의 부대행사와 불씨 채화를 위한 제례를 주관하여 불축제 성공에 기여했다.





논뫼호 불꽃놀이 연극



시립풍물단 '판굿'

## 시민소원 및 소망등달기

시민소원 및 소망등 달기는 속초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제작 수량을 모두 접수받을 수 있었다.

이같은 결과로 불축제의 사전홍보효과를 가졌음은 물론 청초호변에 설치된 소원 및 소망등이 축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 수 있었다.

## 불꽃연 날리기

방패연과 가오리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불꽃연 날리기는 유치원 단체관람객과 가족단위 체험객들이 참여하였다. 또한 120m 출연 1개와 대형 델타연 5개를 하늘에 띄워 행사장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 논뫼호 꽃배 및 불꽃배만들기

속초 불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대행사였다. 꽃배 만들기는 낮에 행사장을 방문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이고 불꽃배 만들기는 한 해의 소망을 청초호에 띄우는 야간형 체험행사로 기획되었다. 체험을 한 관람객은 모두 만족도가 높았지만, 행사장이 외곽에 위치하여 아쉬움이 많았다.

## 횃불 퍼레이드

논뫼호 불꽃놀이 재현행사와 연계운영한 횃불 퍼레이드는 매회 시민 및 현장 관광객의 적극적 참여로 축제의 가장 큰 볼거리를 보여주었다.





## 제28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제28회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는 2월 21일 오후 3시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다양한 민속 놀이로 꾸며졌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크게 전통 민속 재연행사와 체험행사, 민속놀이 마당 등 3가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다.

전통 민속 재연행사에서는 액집 태우기와 판굿, 북청사자놀음, 지신밟기가 재연되었다.

특히 액집 태우기는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행사로 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이와 함께 체험행사로 진행되는 한해 운수보기와 가훈 써주기, 연·제기 만들기, 소원지 쓰기 등은 현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이밖에 각급 기관과 단체가 동참해 향토문화축제의 진수를 보여주는 다양한 민속놀이 마당이 펼쳐졌다.

◎행사명 : 2008(제28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일시 : 2008. 2. 21(목) 15:00~19:00

◎장소 :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주최 : 속초시, 속초문화원

◎주관 : 농협중앙회 속초시지부 외  
7개 기관 및 단체

◎내용 : 전통민속 재현 및  
각종 민속놀이 체험·경연(13개 행사)





행사 종 목	행사 내용	주 관
액집태우기	행사장에 액집(달집)을 만들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소원성취를 기원	속초시설관리공단
판굿, 북청사자놀음	시립풍물단 공연(판굿, 북청사자놀음)	속초시박물관
지 신 밟 기	횃불행진, 농악공연 등	갯 마 당
한해운수보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로 한해운수 밖주기	속초문화원
가훈써주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 무료로 가훈 써주기	속초문화원
연, 제기 만들기 소원지쓰기	시민 및 관광객 대상으로 전통놀이기구인 연, 제기 만들기와 아울러 소원지쓰기 체험추진	속초문화원
전통떡메치기	洞 대항전	마을금고연합
제 기 차 기	洞 대항전	한화리조트
널 뛰 기	洞 대항전	농협중앙회속초시지부
윷 놀 이	洞 대항전	속초신협
투 호	洞 대항전	속초양양축협
연 날 리 기	개인전(방패연, 가오리연), 창작연 부문	속초수협





## 2008 효행청소년 시상

본원은 매년 속초 관내 15개 학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행청소년 시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지난 2월 각 학교 졸업식장에서 품행이 방정하고 경로효친 사상이 탁월한 학생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선발, ‘효행청소년상’을 시상했다. 속초문화원은 매년 치르는 이 상의 시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풍토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라고 있다.

학 교 명	표 창 자	학 교 명	표 창 자
속초중학교	김진희	속초초등학교	김시현
설악중학교	배수현	영랑초등학교	조태욱
속초여자중학교	김엄지	온정초등학교	정재윤
설악여자중학교	강지혜	조양초등학교	이서령
교동초등학교	최수빈	중앙초등학교	염정윤
대포초등학교	김혜주	청대초등학교	김성배
설악초등학교	최은희	청봉초등학교	이소희
소야초등학교	김민혜	청호초등학교	최한솔



# 향토문화학교 제16기생 입교식

■ 일시 : 2008. 3. 10(월) 오전 11시 ■ 장소 :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2008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 입교식

속초문화원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감성의 계발, 새로운 지식기반 창출,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개설하고 있는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의 입교식이 지난 3월 10일 개최되었다. 올해 개설된 강좌는 총 여섯 개. 장구초급, 사물놀이, 한지공예, 서예교실, 노래교실, 북청사자놀음연희반이 개설되었으며 이들 강좌의 수강인원은 모두 250여명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보여주었다.

강좌명	운영기간	요일	교육시간
장구초급	3월~11월	월·목	10:00 ~ 12:00
사물놀이	3월~11월	월·목	12:30 ~ 14:30
서예	3월~11월	화·금	10:00 ~ 12:00
노래	3월~11월	화·금	14:00 ~ 16:00
한지/종이 공예	3월~11월	수	10:00 ~ 12:00
북청사자놀음 연희반	3월~11월	화	13:00 ~ 15:00



# 2008 노인일자리사업

## <실버예술단 양성 및 공연>

속초문화원이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양성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가 2008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어버이날 행사와 ‘제1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축하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서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 것.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실버예술단은 1·3세대 소통을 위한 ‘속초시립박물관 공연’과 관내 복지기관 및 학교, 사회단체의 문화행사를 위한 ‘찾아가는 악극’ 공연을 실시했다.

‘속초시립박물관’은 관내 학교 학생들의 문화학교가 자주 열리고,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만큼 다양한 세대와의 만남은 물론 속초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공연을 하고 있고, 방학 중에는 청소년 방학캠프에서 공연을 했다.

올해 실버예술단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공연한 작품은 악극 ‘아, 사랑일레라.’ 전쟁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남녀 주인공이 속초에서 극적으로 만나 새로운 희망을 꿈꾼다는 내용이다. 실향민이 많은 속초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작품으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춤과 노래, 연기가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실버예술단은 이 작품을 속초시립박물관을 비롯한 관내에서 총 28회 공연했다.



# ‘국악이랑 놀자!!’



속초문화원은 지난 해까지 ‘갯마당’이 주관한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을 2008년부터 주관하기로 했다. ‘국악이랑 놀자’라는 제목의 이 사업은 국악예술강사들이 초등학교에서 다양한 국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고유의 문화예술자원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수성 및 창의력 개발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2008 학교문화예술교육 ‘국악이랑 놀자’는 지난 제43회 설악문화제에서 1년여의 성과를 시민 앞에서 펼쳐보이는 발표회를 가지며 전통문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향을 이끌어 내고 있다.

- 사업명 : 2008 학교문화예술사업 “국악이랑, 놀자!”
- 사업기간 : 2008년 3월 ~ 12월
- 사업주최 : 속초시      사업주관 : 속초문화원
- 사업장소 : 속초시 관내 초등학교(7개교)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생
- 참여인원 : 327명

- 참여학교 :
- 속초초등학교 : 취타대
- 온정초등학교 : 도리원농악
- 중앙초등학교 : 가야금병창
- 청호초등학교 : 북청사자놀음
- 조양초등학교 : 호남우도농악
- 대포초등학교 : 국악관현악단





2008년  
제4회

## 화랑영랑축전



화랑영랑축전은 속초지역에 전하는 신라화랑 영랑의 전설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행사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

지난 4월 26~27일 영랑호 범바위 잔디광장 일원에서 열린 화랑영랑축전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선보여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그 중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화랑선발대회’ 와 ‘북청사자탈만들기’ 는 색다른 재미를 전해주는 행사였다.

올해 2회를 맞은 화랑선발대회는 지난해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새롭게 기획하였다. 우선 이틀간 7개 종목의 경연을 하루 3개 종목으로 축소하여 참여학생을 배려하였다. 또한 사전 봄조성과 다양한 학생 참여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에 학교당 20명 학생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측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화랑 4선으로 선발된 학생의 소속학교에도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 사전 접수를 통한 매끄러운 진행으로 행사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

대회 참가학생들은 활쏘기, 봉술대련, 속초의 뿌리찾기 골든벨 등 3개 종목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이 중 총 4명의 화랑을 선발했다. 영광의 선발자는 영랑 정현교(청봉초 6), 술랑 정재훈(조양초 6), 안상 권민정(온정초 6), 남석행 박해송(청호초 6) 학생 등이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인 ‘북청사자탈 만들기’ 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로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 화랑영랑축전

2008년 제4회





## 속초 북청사자놀음 전수

속초 북청사자놀음은 속초시와 속초문화원이 지역 고유문화의 전승과 보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전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향토사랑의 기회는 물론 우리 지역의 젊은 인재를 양성하여 속초사자놀음을 무형문화재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지역의 문화정통성을 보전하며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속초사자놀음 전수회에는 시립풍물단과 신천무용단의 젊은 예술가들은 물론 속초문화원의 문화학교 회원들과 함경남도 청년회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를 일구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수회 단원들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속초 문화회관 소강당과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인 동선본 선생님께 체계적으로 전수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북청사자놀음을 속초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 공연을 펼쳐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여름 야간개장을 통해 속초의 대표적인 전통문화인 ‘속초도문농요’, ‘속초북청사자놀음’, ‘속초도리원 농악’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합동상설공연을 4차례에 걸쳐 개최되는 등 외연 확장에 치중하는 계기가 되었다.





## 속초도문농요 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보조자 지정

2008년에는 속초도문농요의 전승기반이 더욱 확고해졌다. 2008년 3월 7일 개최된 강원도문화재 위원회의 심의결과 “속초도문농요”를 전승하게 될 무형문화재 보유단체로 속초도문농요보존회가 지정되었고, 또한 전수교육보조자로 오명현, 최도수씨가 선정된 것.

그동안 속초도문농요는 강원민속예술축제 및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참석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후 지난 2007년 2월에 무형문화재 지정 및 기능보유자가 지정되었다.

이를 통해 소리의 원형과 전통성을 전승 보존시킬 수 있는 기반을 닦게 되었지만,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만 지정되어 있어 전승활동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수교육 전수자도 선정됨에 따라 도문농요의 전승기반을 어느 정도는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기계화 영농이 시작되면서 차츰 잊혀져가던 도문농요의 원형을 다시 발굴하여 2003년 제20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종합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강원도무형문화재 지정에 이어 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수교육보조자 지정을 이끌어 향토민속의 전승과 보존에 더욱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 2008 청소년 방학프로그램

### ‘친구랑 함께 하는 즐거운 문화체험’

이 행사는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벗어나 뜻깊은 지역문화를 체험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사. 올해는 “친구랑 함께 하는 즐거운 문화체험”이라는 주제로 지역문화 체험과 별자리 탐방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2박 3일동안 직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행사내용을 살펴보면 첫날에는 조양동 선사유적지에서 속초 문화의 근원을 살핀 후, 도문동 학무정을 방문하여 도문농요 지정보유자인 오순석 어르신에게 속초도문메나리를 체험하였다. 저녁에는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속초 사자탈 만들기와 실버예술단의 악극 ‘아, 사랑일레라’ 공연을 감상한 후 영화관람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 했다. 다음날은 속초시립박물관을 전문 해설사의 도움으로 감상하고, 오후에는 횡성에 있는 우리별 천문대를 방문하여 별자리 및 태양계 관측을 하는 별자리 체험을 했다. 마지막인 셋째날은 야생화와 수목관찰, 천문관련 슬라이드 교육 등을 받은 후 속초로 돌아왔다.

- 일 시 : 2008. 7. 23~25(1차 35명), 8. 4~8. 6(2차 35명)
- 대 상 : 초등4~6, 중등(선착순)
- 주 최 : 속초시 주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 문화유적 탐방(선사유적지, 학무정)
  - 속초시립박물관 만족놀이 및 공연 관람
  - 횡성우리별 천문대 별자리 체험



"어린이 문화교육단 4기"

# 2008 어린이방학 문화프로그램

기간 : 2008년 7월 28일~8월 8일 (오전 10시~12시)      주최/주관 : 속초시 / 속초문화원

● 교육 내용  
 - 장구초급교실  
 - 종이공예  
 - 사자탈만들기  
 - 도자기만들기 외



## 2008 어린이 방학 문화프로그램 "어린이 문화교육단 4기"

이 사업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재밌고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린이 방학 문화 프로그램이다. 속초지역 초등학생 30여명을 선착순으로 선별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주요 교육내용은 장구초급교실, 사자탈만들기, 예절수업, 종이공예, 속초문화 배우기, 석봉도자기 미술관 체험 등으로 참가학생들은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속초문화원은 이 행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평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들고, 우리 지역 문화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 기 간 : 2008년 7월 28일 ~ 8월 8일(월~금, 2주간)
- 장 소 : 속초문화원 사랑방, 석봉도자기 미술관,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참가대상 : 관내 초등학생 30명
- 교육내용 : 장구초급교실, 사자탈그리기, 예절수업, 풍선아트, 종이공예, 속초문화 배우기 (선사유적지, 학무정, 김근수 기록)





2008.5.27~28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주관



## 제1회 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어르신 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1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잔치를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속초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했다.

제1회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는 강원도가 주최하고 속초시, 속초문화원, 속초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하여 “금빛·은빛 세상이 강원도 속초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이 행사는 도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시군별로 건강체조, 에어로빅과 화합교류종목으로 민속 경기 4개 종목(굴렁쇠굴리기, 비석치기, 사방줄다리기, 썰매밀어 펀덤기기)과 명랑운동회 종목 4개(대형사탕굴리기, 2인3각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대형바톤 이어달리기)에 대하여 시군 대항전을 펼쳤다.

또한 강원도립예술단과 속초 실버예술단의 축하공연,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수작업 작품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열렸다.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유쾌한 어르신들의 신나는 문화체험, ‘땡땡땡! 실버문화학교’가 두 번째 종소리를 울렸다. 지난 해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악극에 이어 올해는 마당극 ‘춘향전’을 제작한 것. 모두 23명이 지원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2기생 교육은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6월에는 단원모집과 개강식, 8월까지는 연극 기초훈련을 하고,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본격적인 마당극 제작에 들어갔다.

올해도 지역극단인 ‘굴렁쇠’의 김귀선 대표가 연출을, 석경환 연기자가 대본을 맡았고, 음향과 무대보조 등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실버문화학교 회원들은 마당극 ‘춘향전’을 제43회 설악문화제 메인무대 공연, 실버문화축제 참가,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졸업식에서 발표하여 한층 더 재미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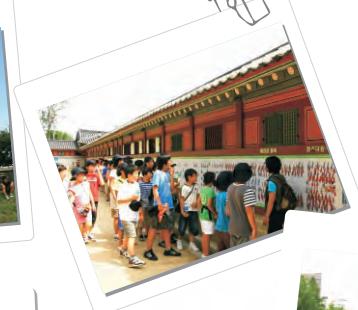
##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 까지 3박 4일간 치러진 이 행사는 우리 국토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전경련이 후원하는 행사. 속초문화원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는 속초, 고성의 초등학교 학생 40명이 참가했다.

탐방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이라 불리는 인천 강화도의 문화유적탐방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화성 탐방. 강화역사관을 비롯해 고려궁지, 광성보, 수원화성을 뼇는 여정은 말 그대로 생생한 역사체험의 장이 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청계광장에서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건국 60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역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 기 간 : 2008. 8. 12(화)~15(목) 3박 4일
- 대 상 :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고교, 대학생 및 일반(30세 이하) 35명
- 장 소 : 경기·인천 역사문화탐방
- 참 가 비 : 무료
- 주요일정 : 강화 갯벌체험—강화선사문화체험(고인돌, 농경문화관)  
                강화섬 보물찾기(전등사, 광성보, 갑곶돈대)  
                수원화성—건국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 2008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속초문화원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하는 ‘2008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청초호 유원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속초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연과 최신 가족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 기 간 :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 장 소 : 상징탑 광장 옆 주차장 부지

● 참가인원 : 2만명

● 행사내용

- 7. 30-도문농요, 아바이아마이 악극, 북청사자놀음, 영화(화려한 휴가)
- 7. 31-청소년기요, 해동검도 시연, 줄넘기 시연, 영화(트랜스포머)
- 8. 1 -7080콘서트, 영화(사랑방선수와 어머니)
- 8. 2 -유복성 밴드와 함께, 가족영화(황금나침반)
- 8. 3 -광명&오리지널웨스턴, 갯마당 공연, 영화(라따뚜이)
- 8. 4 -속초출신연예인 공연, 중국기예단, 영화(더게임)
- 8. 5 -붐붐, 밸리댄스, 어필, 영화(어거스트 러쉬)
- 8. 6 -퓨전국악 “비”, 시립풍물단, 신천무용단, 영화(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시민과 함께 뛰나는 음악축제  
한여름 밤의 영화제



2008 국악예술강사 지원사업

## “속초 숲속의 국악캠프”

2008 국악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속초 숲속의 국악캠프’ 가 지난 7월 24일에서 29일 까지 속초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참가학생들에게 학교교과 수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국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놀이와 교육을 겸한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국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행사. 참가학생들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공동체 놀이활동을 통해 참가 학생들의 친화력과 협동심을 배양하게 되었다.

특히, 참가학생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만큼 교육의 집중도를 높였고, 짧은 기간이지만 전통악기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기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효과는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속초문화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체험의 폭을 넓혀서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참가자 모두 향토문화의 지킴이가 되어 향토문화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 간 : 7월 24일~29일(5박 6일)
- 장 소 : 속초시립박물관
- 교육내용 : 풍물기초, 사물놀이, 취타대, 단소/민요,





## 2008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콘서트는 문화관광 도시 속초의 여름 야간불거리를 위해 개최되는 행사이다. 국악과 같은 전통문화와 통기타, 무용, 밸리댄스 등 지역 예술인의 공연이 열리며, 사회를 보는 연극인 김귀선의 품바 공연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코너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매 회 공연마다 관광객들이 객석을 채우는 이 행사는 속초를 대표하는 여름 공연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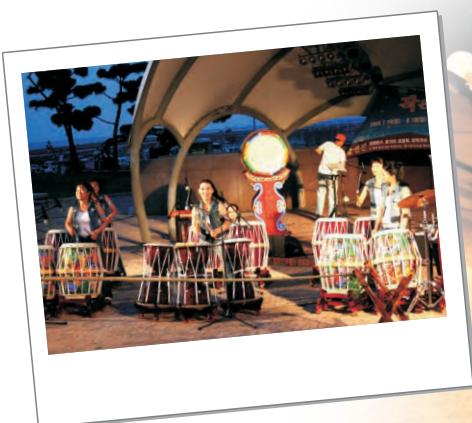
- 행 사 명 : 2008 설악의 밤과 함께 하는 작은 콘서트
- 행사기간 : 7월부터 8월까지 총 10회

7월 19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월 20일, 26일, 27일, 31일,

8월 1일, 2일, 3일, 9일, 10일

- 행사장소 : 설악해맞이공원 야외공연장



제 43회  
설악문화제 설악제례

설악제례는 설악문화제를 맞아 속초의 번영과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성황제와 조전제를 없애고 산신제, 용왕제, 망향제, 삼신합동제, 송신제 등의 제례의식을 거행하여 속초의 번영과 속초시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지난해부터 속초문화원에서 담당한 이후 그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난 설악제례는 지난 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더욱 알찬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설악제례를 통해 설악문화제의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제례의식 그 자체가 설악문화제의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기 간 : 10.17~19
- 장 소 : 설악산신 제단 외 4곳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설악산신제, 용왕제, 망향제, 삼신합동제, 송신제
- 10.17 09:00~09:30 산신맞이굿(무속인협회)  
09:30~10:40 설악산신제(설악산소공원)  
12:30~13:00 용왕맞이굿(무속인협회)  
13:00~14:00 용왕제(해맞이공원)  
17:30~18:30 삼신합동제(상징탑광장)
- 10.19 17:30~18:30 송신제(상징탑광장)





## 속초 북청사자탈 만들기

속초문화원은 북청사자놀음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자탈과 양반탈을 제작 보급했다. 화랑영랑축전을 비롯해 청소년여름방학프로그램, 어린이방학프로그램, 박물관 프로그램, 설악문화제, 강원과학축전 등 속초의 대표적 축제에서 사자탈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사자탈 만들기는 북청사자놀음에 사용하는 북청사자탈을 종이탈로 제작한 것으로 채색과 갈기털 만들기 등 복합적인 만들기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지능발달은 물론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속초문화원이 양성하고 있는 도리원농악대가 지난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고성에서 열린 '제23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에서 공동 3위를 차지하는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결과는 속초 도리원농악대가 참가작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나왔기에 아쉬움을 자아냈다. 그나마 도리원 농악 상쇠인 박치영씨가 우수연기상을 차지한 것이 위로가 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양양군의 수동골 상여소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은 영월군의 '지계 상여놀이'가 받았고 개인상인 지도상에는 강릉 건금마을 용물달기 놀이 의 안병현씨가 각각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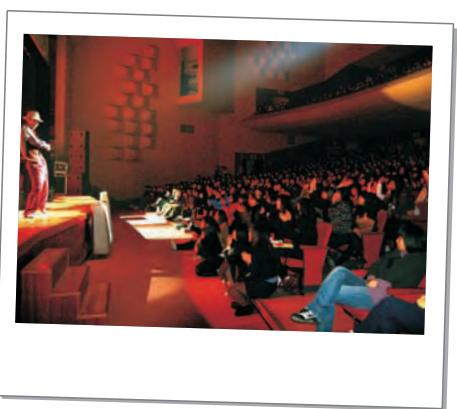
## 2008년 문화전수교육 ‘친구랑 함께 하는 우리 문화 한마당’

지난 11월 26일 10시부터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과 특강이 어우러진 ‘친구랑 함께 하는 우리 문화 한마당’ 을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연변대학 역사학부 교수로 발해사 연구의 일인자인 방학봉 교수가 ‘발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문화특강을 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체험으로 실버예술단의 마당극 ‘춘향전’을 감상하고, 지역가수 김진우씨와 비보이 오리지날 웨스턴크루, 초청가수에는 속사포 랩으로 유명한 아웃사이더의 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공연은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900여명이 함께 했다.

- 일 시 : 2008. 11. 26(수) 10:00~ 12:00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대강당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참가대상 : 속초고등학교, 속초여자고등학교, 속초상업고등학교 3학년 (총 950명)
- 행사내용 :
  - 문화특강 “발해의 꿈” (방학봉 교수 : 연변대학 역사학부 부주임)
  - 우리 문화 악극 “新, 춘향전”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
  - 초청공연 (지역가수, 비보이 “오리지날 웨스턴 크루”, 초청가수 “아웃사이더” )





## 빛과 음악이 있는 거리음악회

속초시가 관광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설악로데오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설악로데오거리와 재래시장을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한 사업.

‘2008년 빛과 음악이 있는 거리음악회’라는 이름으로 7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중앙재래시장내 고부속사앞(창성문구사) 일대에서 통기타, 색소폰 및 전자기타, 지역가수 등의 음악공연 등을 매주 펼쳤다.

- 행사명 : 2008 빛과 음악이 있는 거리음악회
- 행사기간 : 7월부터 10월까지 총 14회  
7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40분
- 행사장소 : 중앙재래시장 고부속사 앞
- 주관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주요내용 : 모듬북, 북청사자놀음, 지역가수 공연, 밸리댄스, 청소년힙합공연 등





## 2008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 수료식 및 발표회

올해 한국문화학교 제16기생 수료식과 발표회는 예년보다 1주일 늦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문화회관 소강당 및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는 1993년부터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설하여, 현재까지 2만여명의 문화가족들에게 문화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는 서예교실, 노래교실, 사물놀이, 장구초급반, 북청사자연희반, 한지공예반이 개설되어 250여명의 회원이 기량을 닦아 왔다.

12월 4일 첫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예교실과 한지공예반’에서 준비한 전시회의 개전식이 열린 후, 11시부터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강생 표창과 강사소개, 수료증수여 등의 행사가 열렸다. 이후 11시 20분부터는 민요, 노래, 사물놀이, 장구, 북청사자연희반의 발표회 공연이 이어지고 특별행사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마당극 공연이 선보였다.

- 일 시 : 2008. 12. 4(목) ~ 6(토)
- 장 소 : 속초시문화회관 전시실 및 소강당,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 수료식 : 12월 4일 오전 11시  
- 전시회 : 12월 4일~6일  
- 발표회 : 12월 4일 오전 11시 20분  
-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장구초급교실, 노래교실, 사물교실, 속초북청사자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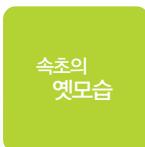


# 아바이마을 문화관광해설사

강원도 노인복지기금으로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사업. 8월 한달간 관내 60세 이상 실버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친 결과 총 10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가했다. 이들 어르신을 대상으로 아바이마을의 역사를 강의하여 문화해설사를 위한 기초소양 교육을 실시했다. 최종 8분의 어르신이 이 사업에 동참, 9월부터 11월까지 청호동 갯배 머리에 임시텐트를 설치하여 문화해설사 활동을 시작했다.

실버문화해설사는 속초에서는 처음 있는 사업으로 청호동을 유명 드라마 관광지로 인식하던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실체가 있는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1일 관광객 30명이 문화해설사의 도움으로 청호동 마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사업임을 드러내었다.

- 일 시 : 2008. 8. ~ 11
- 장 소 : 청호동 갯배머리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내 용 : 아바이마을 유래 및 명소 설명, 실향민 문화 체험안내가 가능한 실버 해설사 양성





## 2008 문화유적답사

2008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박 6일동안 ‘2008 문화유적답사’를 다녀왔다. 올해 속초문화원의 문화유적답사는 고구려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주제 아래 광개토대왕비와 졸본성, 국내성, 단동 등을 다녀왔다.

참가자들은 이번 문화유적답사를 통해 고구려의 위대함과 분단의 아픔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계기가 되었다.



# ‘실향민 문화’에서 금맥 찾는다

### 속초문화원 사업 눈길

속초는 분단 이후 남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실향민 문화를 집단으로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6·25 전쟁 와중에 함경도 피란민들이 정착해 새로 터전을 일구면서 도시가 형성된 지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바이 마을’로 대표되는 속초에는 아직 월남 1세대들이 살고 있다. 또 북청 사자놀음을 비롯한 놀이문화, 함흥 냉면·가자미·식혜·오징어 순대 등으로 잘 알려진 음식문화 등이 두루 전승되고 있다.

특히 속초문화원(원장 노광복)이 향토문화의 소중한 자원인 실향민 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에는 60대 이상으로 구성된 실버 예술단 ‘아바이 아마이’도 선보였다. 실향민 문화의 원형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공연형 문화예술단을 만들어보자는 의도에서 마련했다. 단원 20여명은 속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굴렁쇠’ 등의 지도로 5월부터 10월까지 연기, 노래, 춤을 갈고 닦았다.

속초문화원 관계자는 “노인들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고, 실향민 문화에 새로운 콘텐트를 제공해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실버 예술단이 만든 악극 ‘아! 사랑일레라’는 전국 76개 문화원이 참여해 작년 10월에 열린 실버사랑 문화축제에서 공연부문 최우수상을 타기도 했다. 북한의 고향에서 보낸 기억, 피란 시절, 속초 정착 과정 등을 노래와 춤으로 녹여냈다. 이후 실버예술단은 상설 공연도 열면서 인기를 누린다.

속초문화원은 운영하고 있는 향토문화학교에도 북청 사자놀음을 개설하고 있다. 북청 사자놀음은 월남해 속초와 서울에 살고 있던 함경도 북청 주민들이 복원한 민속 놀이이다. 1950년대부터 되살리기 시작해 1967년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다. 속초 문화원은 실향민에 의해 출발했던 북청 사자놀음이 다시



속초문화원이 양성한 실버 예술단 ‘아바이 아마이’가 작년 10월 실버문화 사랑축제에서 실향민들의 속초 정착 이야기를 담은 악극을 선보이고 있다.

속초문화원 제공

### 음식·민속놀이 등 콘텐트로 활용 가능성 두루 모색 애환 담은 악극 공연, 북청 사자놀음 전승에도 열의

속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또 실향민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속초문화원은 실향민 문화를 문화 콘텐트로 만들기 위한 세미나도 마련했다. 민요, 음식, 민속놀이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실향민 테마축제의 방향과 구성’, ‘실향민 음식의 상품화 개발 방안’, ‘실향민 민속놀이의 콘텐트 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거치면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속초시도 실향민 문화촌에 실향민문화 체험 콘텐트를 융합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부·실향민 음식 체험 프로그램 개발, 북한 민속예술 체험소재 개발, 문화관광 강화 개선 등을 통해 실향민 문화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작년 11월 문화관련 단체들로 문화예술관광협의회를 만들기도 했다. 협의회는 향토문화 및 실향민문화에 대한 학술연구, 문화체험상품 개발,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권상은 기자 sekwon@chosun.com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올해는 마당극 도전

이달 말까지 2기생 20명 모집…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속초문화원(원장 노광복)은 지난해 처음 개교해 노인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던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제2기 생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우리 지역의 60대 이상 노인 20명으로 교육비와 참가비는 무료다. 모집기간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속초문화원은 “지난해 처음 양성한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으며 지역문화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제42회 설악문화제’ 메인무대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2007 실버문화사랑축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각종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온 것. 현재, 이들은 속초시의 2008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문화복지 공연을 펼쳐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다. 속초문화원은 지난해 1기생들이 ‘마당극’을 만들어 큰 인기를 얻은 점에 착안, 올해는 ‘마당극’에 도전할 계획이다.

한정구 사무국장은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악극’이 향수를 자극하는 장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마당극’은 세대를 넘나드는 전통문화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해 양성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의 공연 모습.

어르신들이 쉽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시무국장은 “마당극 역시 속초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향민 정착사를 주요 내용으로 할 계획이며, 실버예술단 1기의 작품데미았던 ‘악극’과 연계, 1시간짜리 공연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6~9월까지로 발성 및 신체연기를

통한 연극기초를 익혀 마당극을 교육받는 문화예술교육, 2단계는 직접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사회참여, 3단계는 독립적인 소득창출이다.

속초문화원은 노인들의 실버문화학교 참여가 활성화될 경우 노인층의 문화향유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효과가 얻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제환 기자





특집

## 실향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 아바이 마을

- 실향민의 보금자리, 아바이마을의 미래
  - 속초 아바이마을의 민요
  - 어르신이 들려 주는 아바이마을 이야기
- 

# 실향민의 보금자리, 아바이마을의 미래

엄 경 선 (프리랜서 기자)

신수로가 개통되면 섬으로 고립될 청호동 최북쪽 신포마을의 이주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속초시는 100대 중점과제로 선정된 ‘청호동 아바이마을 이주대책 및 관광선 부두 종합위락단지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속초시는 2년 후 쯤으로 예정된 신수로 개통 이후 청호동 9통 신포마을이 섬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지금 개설된 신수로 위 교량으로는 걸어서 통행하기가 어려워 신포마을 180세대 370여명을 이주시키고 이곳을 관광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초 신포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주 추진 요청을 받은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청호동 신포마을 집단이주와 관련한 기초자료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 주민설문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설문 조사 결과 전체 180세대 중 80% 정도는 이주에 찬성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들 일부가 반대했다고 한다.

속초시는 내년 상반기에 신포마을 집단이주 기본계획을 수립해 동해지방해양항만청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속초시는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에 신포마을 집단 이주를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지역에 관광물류단지가 조성되도록 정책적 재정직 지원을 요청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주민 이주에 필요한 예산을 시 차원에서는 조달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없이는 사업시행이 어렵다”며, “이주 후에 들어설 관광물류단지 조성 계획도 아직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청호동 신수로 이북 지역은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실향민 정착촌으로서의 자취를 찾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청호동 북쪽에 길이 270m의 관광선부두가 들어선데 이어 관광선 부두 반대편 남쪽 바닷가에 3만톤급 선박이 정박 할 수 있는 길이 270m의 여객부두 1곳이 2015년까지 건설될 예정이며, 신포마을 남쪽 바닷가에도 같은 규모의 부두가 한 곳 더 예정되어 있다.



관광선 두부와 터미널이 들어서면 신포마을 일대는 관련 배후시설 등이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 속초항 항만기본계획에 신포마을이 ‘항만친수시설’로 지정되어 있는데 속초시는 이 지역을 관광물류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한 것이다.

2009년에 준공 예정인 구수로 교량이 개설되면 신포마을은 두 개의 높은 다리가 마을 위로 지나가게 되고, 마을 남쪽 아름다운 백사장은 모두 매립되어 선착장이 되는 등 완전히 항만시설로 바뀌어 주변 환경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신수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마을은 고립되어 차량중심의 높은 교량을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일도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은 10여년 전 신수로 개설이 시작되면서 예견된 신포마을의 운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포마을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아야 할까.

지금 속초 실향민 문화의 상징인 신포마을은 많은 탐방객들이 찾고 있다. 신포마을에는 아바이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속초시내관광과 연계가 되어 시내관광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곳의 관광객 소득은 그대로 지역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가치나 문화적 가치로 볼 때 아바이마을의 상징인 신포마을이 사라지는 것은 속초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 ▣ 갯배가 있는 한 사라져서는 안될 곳

마을이주 문제가 조심스레 거론되는 청호대교 북쪽 신포마을에는 갯배 선착장 주변과 청호동 백사장 앞 해안가를 따라 함경도 아바이 음식을 파는 식당 3곳과 횟집, 슈퍼 등 10여개 상점이 들어서 있다. 이곳 상점들은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도 이주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은 집들이다.

갯배와 아바이마을이 가을동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아바이 음식을 별미로 즐기는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 전국적으로 경기 침체로 관광경기가 얼어붙은 올 가을에도 아바이 마을을 찾는 손님들은 더 늘어났다고 한다.

함경도 아바이음식으로 알려진 냉면과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아바이 가리국밥 등을 팔고 있는 다신식당 김종문씨(70세)는 “아바이마을은 갯배가 있는 한 사라져서는 안될 곳”이라며, 아바이마을의 해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가을동화 촬영지로 알려진 이후 많이 늘어났던 동남아 관광객은 줄고, 대신 내국인 관광객들은 예전보다 3배 정도 늘었다. 시내에서 갯배를 타고 이곳 청호동으로 넘어오는 관광객도 있지만 이제는 이곳 아바이마을에 차를 대어 놓고 갯배를 타고 시내관광을 즐기는 관광객이 많다.

지금 속초시내는 갯배를 중심으로 양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데, 내가 개 전너 횟집도 소개해 주곤 한다. 아바이마을이 속초 시내관광 활성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교수들도 이곳에 들러서는 아바이마을은 없어서져서는 안될 곳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이주를 희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혼자 계신 할머니들이 대부분이다. 만약 갯배와 이곳 신포마을이 사라지면 속초시내도 함께 죽는다고 본다.”

부모세대부터 40년 동안 이곳에서 냉면과 아바이음식을 팔아왔다는 단천식당 김한성씨(38세)도 아바이마을 해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아바이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오는 손님도 있고 외국에서 TV로 봤다고 찾아오는 외국인도 있다. 식당이 예전에는 하루에 냉면 열 그릇 팔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져 손님들이 많다. 주민의 80%가 이주에 찬성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만약 이곳 주민들이 이주해 일부 건물은 철거하더라도 아바이마을의 원형은 어떤 형태로든 살려놓아야 한다.

지금 노학동에 들어선 실향민문화촌은 이곳 아바이마을에 들어서야 했다. 당시에 제대로 반대하지 못한 게 지금은 아쉬울 뿐이다. 만약 이곳에 실향민문화촌이 들어섰다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건축비용도 이미 만회했을 것이다.

그런데 관광객들은 막상 마을에서 볼거리 찾기가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다. 만약 이

곳에 볼거리라도 하나 생겨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이다.”

갯배 선착장에는 아바이마을 해설사 두명이 ‘어르신이 들려주는 아바이마을 이야기’라는 홍보자료를 나눠주며,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갯배에 대해 해설을 하고 있다. 한 해설사는 “아바이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생각보다 참 많다”며, “특히 단체로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막상 볼만한 것이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

아바이마을은 실향민의 애환이 서린 곳,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올 가을에도 국내 언론에 이곳 아바이마을이 여행지로 많이 소개되었고, 관광객들은 이곳 아바이마을의 옛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찾아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바이마을에는 뎅그러니 탐방안내판만 있을 뿐 다른 볼거리는 충분치 않다. 우리는 아바이마을을 많이 거론하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바이마을을 소외시키고 해체시키는데 동의해 온 것은 아닌가 싶다. 지역에서는 아직도 아바이마을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눈을 뜨지 못한 것 같다.



▲ 늦은 10월의 오후, 높이 솟은 신수로 교량이 신포마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 □ 상상해 보는 아바이마을 테마관광

“갯배를 끌어타고 아바이마을로 들어왔다. 낯설은 함경도 사투리를 쓰는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을 둘러본다. 좁은 골목길 넓은 담벼락을 따라 닥지닥지 붙어있는 집을 찾아갔다. 골목길로 들어가 아바이마을 옛집을 그대로 살린 갤러리와 미술관, 박물관에 들렸다. 마을 옛 모습과 아바이들의 생활을 담은 사진과 그림이 잔잔한 느낌을 전해

준다. 점심은 식당에서 함경도 전통음식인 냉면에다 가자미식해를 맛보았다. 그리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야외공연장에서 북청사자놀음을 구경했다. 신나는 우리 가락에 흥도 내고 신나게 웃고. 토요일에는 북청사자놀음, 일요일에는 아바이들의 애환과 희망을 담아낸 연극공연이 있다.

공연이 끝나고 실향민의 애환을 담은 ‘통일의 벽’을 둘러보았다. 아바이들 살아온 이 야기가 한 구절 한 구절 그대로 새겨진,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실향민 상징 조형물이다. 어른들은 바다가 보이는 노천카페에서 잠깐 쉬는 동안 아이들은 체험관에 가서 함지박에 바가지를 엎어 두드리며 ‘돈돌라리’ 함경도 민요도 배워 불러보고, 직접 북청사자탈도 만들어 색칠하고 자기들끼리 신나게 놀았다.

저녁에 파도소리가 들리는 민박집에 들어갔다. 옛모습 그대로인 아바이마을집이다. 방은 좁고 불편해도 사람사는 냄새가 있는 정감있는 공간이다. 여름밤에는 시원한 백사장에서 야외공연과 영화상영도 있고 가을에는 아바이마을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한다. 때를 맞춰 찾아와도 좋을 것 같다.”

아바이마을 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아바이마을은 더 매력적인 곳이 될 수도 있다.

## ■ 낡은 건물을 살려내고, 생활공간 지키기

일본에서 가장 매력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유후인은 인근 마을이 개발 바람에 요동을 칠 때 마을 사람들이 뭉쳐서 옛 모습을 그대로 지켜냈다. 가장 일본적인 분위기를 보여 준다는 유후인 마을의 모토는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가장 관광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한다. 관광개발에 떠밀려 주민들이 모두 쫓겨난 인근 온천지역과는 달리 자신들의 삶의 공간을 지켜내면서 일본 최고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념 때문이었으리라.

일본의 북해도에는 옛 맥주공장과 저장창고 공간을 박물관과 식당, 관광시설로 탈바꿈 한 샤포르 팩토리, 해안의 옛 생선창고 등을 이용해 음식점과 기념품 판매점을 만든 가네모리 창고 등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하여 매력적인 관광시설을 만들어 낸 곳이 많다고 한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문화창조도시로 손꼽히는 이탈리아의 볼로냐는 ‘보존과 재생’이라는 슬로건 하에 낡은 도시의 건물을 재생하여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주식거래소와 은행으로 쓰이던 낡은 건물은 공공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로, 빵 공장과 담배공장, 도살장 등 낡은 건물은 미술관, 박물관, 영상센터, 예술인 실습공간,

연극자료관, 어린이전용극장 등으로 재생했다.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된 건물들은 볼로냐의 역사이며 정신이다. 정신을 허물 수 없다”는 신념으로 낡은 도시를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생했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조직이 프로젝트의 주역이었으며,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연극, 공연단체가 창조적인 문화예술 상품을 생산해 냈다고 한다.

## ■ 아바이마을 지키기, 문화관광부 계획 반영

관광개발이라면 외부의 대자본을 끌어들여 대규모 위락시설을 짓던 예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을 지켜내고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광개발’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준비한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도 이러한 고민이 녹아있다. 이 계획에서는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의 관광거점을 조성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소규모 자원 및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한 효과가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계획에는 속초지역에서는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및 거리조성’과 ‘분단의 공간인 속초 아바이마을 지켜내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중 시에서 추진중인 중앙시장 활성화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지역주민 삶의 공간 지켜내기’ 테마로 선정된 ‘아바이마을’ 사업에는 아바이순대 등 지역음식을 상품화하고 사진작가 엄상빈의 흑백사진전, 북청사자놀음 등 상설공연 전시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바이마을과 연계하여 예술회관, 북청사자놀음 공연장과 전수관 등을 세우는 계획도 언급되어 있다. 한마디로 실향민 문화와 관광이 접목되는 공간으로 아바이마을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당장 실행되는 선도사업이 아니라서 사업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 속초시와 지역주민이 나서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실행될 수 없는 사업이다.

지난해 속초시 관광과와 강원대 산학협력단이 관광산업 RIS(지역혁신특성화)구축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여 강원대측에서 ‘청호동 아바이마을’을 대상으로 관광산업 RIS사업을 신청하려 했으나, 속초시에서 젊은 산업 육성을 RIS사업으로 신청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무산되기도 했다. 강원대측은 아바이마을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특색있는 아바이마을 특산품 개발을 시도하려고 했다.

아바이마을은 외부에서는 이미 속초의 유력한 관광테마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근거로 아바이마을이 실향민 테마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면 지역관광에도 큰 활력이 될 것이다. 볼로냐처럼 ‘정신’ 을 살리고, 유후인처럼 ‘삶의 터전’ 을 지켜내는 지혜를 발휘 해야할 때이다.



▲ 옛 모습이 살아있는 아바이마을은 겨울이 와도 사람사는 느낌이 살아있다.

## 사진작가 염상빈의 아바이마을 생각

“마을에 문화예술공간 만들고 싶다 ”

10년 전 나는 오래되어 낡고 바랜 듯한 사진집을 한 권 산 적이 있다. 이제 다시 그 사진집을 들여다보니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이 한 분이 적적한 표정으로 서 계셨다. 염상빈 사진작가(55세)의 ‘청호동 가는 길’이다. 1983년부터 15년 동안 아바이마을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온 그가 당시에 어렵게 만들어낸 사진집이다. 오늘 그를 만났다. 아직도 그는 카메라 앵글로 마을을 들여다 보고 있다. 26년째이다. 하지만 찍을만한 사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는 내년에 아바이마을을 주제로 한 사진집을 다시 펴낼 계획이다. 지금은 아바이마

을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가방에서 누군가의 오래된 가족사진과 노랗게 바랜 학교성적표를 꺼내 보여줬다. 지난 2000년 교사직을 그만두고는 속초를 떠날까 생각했지만 청호동에 대한 집착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고 한다. 속초에 살면서 청호동을 찍는 건 우리지역이라는 당위성이 있지만, 속초를 떠나 청호동을 찍는다는 건 외부인의 시각이 되고 만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속초에는 설악산과 바다만 있는게 아닙니다. 아바이마을도 있습니다.” 지난 7월 속초시립박물관에서 열린 사진전시회 때문에 찾아온 40명의 손님을 이끌고 그는 카메라로 담았던 청호동 마을을 찾아갔다. 아직도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골목길, 마치 흑백사진같은 채색감이 배어나오는 허름한 집을 안내하고 갯배도 직접 끌어보도록 했다. 우리 시대의 민중생활사를 보여주는 전시회에 엄상빈은 ‘속초아바이마을’ 초대작가로 참여했으며, 올여름 속초를 비롯해 부산, 숙명여대, 군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다”

몇 년 전 그는 속초평생교육정보관 관장을 지내다가 춘천으로 간 지인을 찾아가 청호초교 교실 한두칸이라도 내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찍은 아바이마을 사진을 상설전시하고, 아바이마을과 관련한 모임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 도와달라.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나서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반, 문예교실, 그림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백일장과 사진촬영대회도 열어 전국적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책도 묶어내겠다. 국내 유명작가와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아바이마을의 의미를 살려내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에 학교공간을 외부에 빌려준 전례가 없어 곤란하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만약 학교 공간이 안된다면 동사무소 옥상 가건물을 활용해서라도 아바이마을에 문화예술공간을 만드는 게 그의 바램이다. 이것만이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아바이마을을 살찌우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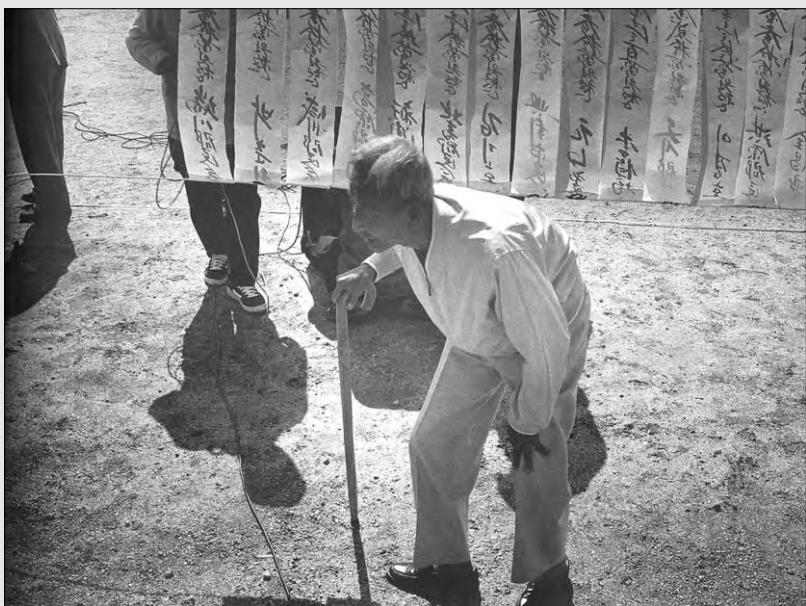
### “아바이마을의 원형은 보존해야”

엄상빈 작가는 신수로 개설 공사로 사라진 3통, 4통 마을은 아바이마을을 온

전히 보여주었던 곳인데, 이제 신수로 이북인 신포마을마저 사라진다면 더 이상 속초에서 실향민 삶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는 속초의 역사가 사라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에서는 도로 개설로 사라질 건물도 그대로 옮겨 살려내고 중국에서는 사용 하지 않는 공장 건물도 훌륭한 갤러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포마을 전체를 다 살려내지 못하더라도 아바이 마을의 원형을 잘 보여주는 건물과 공간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어 꼭 보존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집이 하나 있는데, 혼자 살고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에 온기가 사라지면 그대로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안타까워 한다.

청호동을 옮꿔먹은 시인, 사진작가, 예술인, 그리고 청호동을 아끼는 시민들이 모여 ‘아바이마을 예술제’ 라도 열어야 한다는 게 사진작가 엄상빈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생각이다.

사진작가 엄상빈은 속초 실향민의 삶을 잘 표현한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가 찍은 청호동 사진은 속초시립박물관 제2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청호동 가는 길」(1997), 「학교 이야기」(2006), 「생명의 소리」, (2006) 「들풀같은 사람들—영월사람들의 사진 속의 삶 이야기」(2008)를 펴냈으며, 동강사 진마을 운영위원, 강원다큐멘터리사진사업 운영위원으로 있다.





▲ 사진작가 엄상빈의 사진집 「청호동 가는 길」에 실린 아바이마을 사람들의 모습.

## 속초 아바이마을의 민요

김 의 숙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 1. 머리말

속초의 청호동은 이른바 ‘아바이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이곳은 북한 특히 함경도민들이 피난을 나와서 모여 사는 마을이다. 이들은 통일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고향에 돌아가고자 휴전선에서 가까운 속초에 둑지를 틀었으나 반세기가 지나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때때로 망향의 그리움을 달래고자 고향에서 부르던 민요를 부르며 시름을 달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나이의 노인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도 사라질 날이 멀지 않다. 그들의 민요는 찬양가와 행진가 일색인 북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노인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북한 민요 곧 함경도 민요의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을 통한 민요의 채록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2002년 4월에 현장에서 노인들로부터 채록한 민요를 정리한 것이다. 3번에 걸쳐 채록한 민요는 27편이다. 이들 민요는 모두 민중의 삶과 의식이 잘 나타나있는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민요들은 과거에 북한에서 불리어진 민요이지만 강원도에서 현재 전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들 민요가 뛰어난 문학성, 음악성, 민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2. 채록 민요

#### 1) 속초시 청호동(아바이마을) 10통 양경숙 씨 댁

| 2002. 4.13. | T 02-19-01

가창자 : 이노사 : 여, 76세, 속초시 청호동 9통,

양경숙 : 여, 76세, 속초시 청호동 10통

박귀남 : 여, 79세, 속초시 청호동 9통

이노사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남도 북청군 석후면 의호리이다. 양경숙과 박귀남 할머니의 고향은 이씨 할머니의 이웃인 함경남도 북청군 석후면 창성리이다. 이들은 고향이 다같이 북청이고 또 나이도 비슷해서 옛날부터 친구처럼 자매처럼 속칭 ‘아바이마을’에서 지내왔다. 그래서 심심하면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실향민의 설음을 달랜다고 한다.

### (1) 이강산 철산에(가창유희요)

이노사 :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다..  
    이강산 동산에 달이 올라온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좋아졌네

이노사 : 이렇게 하는데 무슨 동산이란 것은 생각이 아니난다구. 달이 올라온다는 것은 해방이 됐다는 거야.

### (3) 다리세기(가창유희요)

박귀남 : 하나코 닦고 동시밍고 도밍고  
    가 사 머 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빼고)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링고  
    가 사 머 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빼고)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링고  
    가 사 머 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뺀다)  
    하나코 닦고 동시 링고 도링고  
    가 사 머 리 양 두 카(다리 하나 뺀다)  
    애라 빠져라

### (4) 자장가(아기재우는소리)

박귀남 : 자장자장자아장  
    우리애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자아장  
    자장자장자아장  
    저집 얘기 못 자고  
    우리 얘기 잘 잔다  
    자장자장자장자

### (5) 미나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미나리야 미나리야 나를 높이라  
무스매 이 가슴에 빙(변)할 수 있나  
이천만의 마디마디 눈물이로다  
미나리야 미나리야 나를 높이라  
무스매 이 가슴에 빙(변)할 수 있나  
이천만의 마디마디 눈물이로네

@ 명절날 놀 때 바가지 장단으로 물을 떠놓고 바가지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 (6) 이강산철산에(가창유희요)

박귀남 :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적어진네  
절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지네.  
이강산 철산에 해가 떨어진다.  
얼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절씨구나 잘한다 재미가 쓰러진다.

### (7) 돈돌라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청산에 돈돌라니야  
금수강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청산에 돈돌라니야  
금수강산에 돈돌라리야

양경숙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 (8) 목단꽃이(가창유희요)

박귀남 : 목단꽃이 곱아도 마당 쓰레비요  
여자 고와도 남자 노리개요  
명주치마 돌돌말아 옆구리 끼구서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갔던가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갔던가  
목단꽃이 고와도 마당 쓰래비요  
여자 곱아도 남자 노리개요  
명주치마 돌돌말아 옆구리 끼구서  
그남자 가자고할적에 내 어찌 못가겠네

### (9) 흰배를 띠워놓고(가창유희요)

박귀남 : 흰 배를 띠워놓고  
너하고 나하구 들이어서  
그제야 인제나

라리라뜰띠리리(가창유희요)

박귀남 :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뜰띠리리 라리라뜰띠리리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뜰띠리리 라리라뜰띠리리  
띠릴릴띠리리리 리릴리띠리리리  
라리라뜰띠리리 라리라뜰띠리리

@ 이 노래를 ‘구음소리’라고도 한다.

### (10) 봉천시내(가창유희요)

박귀남  
양경숙 : 봉천시내 가고싶소  
봉천시네 어디미야  
봉천시내 아득해서  
사는처자 빙허리만 쌓이네  
봉천시내 가고싶소 봉천시네 어디미야  
봉천시내 아득해서  
사는처자 빙허리만 쌓인다

### (11) 아지랑이(가창유희요)

박귀남 : 아지랑이가 왔구나  
풍산고개로 울리라  
라이라이라 라이라이라  
아지랑이가 왔구나  
풍산고개로 울리라  
라이라이라 잘 모르겠다.

### (12) 삼수갑산(가창유희요)

박귀남  
양경숙 : 삼수갑산 가고싶소 삼수갑산 어디미야  
삼수갑산 아득해서 사는저차 빙허리만 쌓인다  
삼수갑산 가고싶소 삼수갑산 어디미야  
삼수갑산 아득해서 사는저차 빙허리만 쌓인다

### (13) 잡가(가창유희요)

물에 앉은 군학은 바가지 장단만 치는데  
물안에 고기는 꼬리만 톡툭친다

### (14) 사랑가(가창유희요)

박귀남 : 물에 앉은 군학은 바가지 장단만 치는데  
물안에 고기는 꼬리만 톡툭친다  
에헤야에헤에헤야 에헤야데야  
얼삼마 둥기디어라 내 사랑아  
사령사령 임이나 노던 사랑  
수술한 이세상 누구나 믿고 노나  
에헤야데야에헤야 모르겠다.....

박귀남 : “이 노래는 만동서가 평소에 즐겨 부르던 노래야.”

### (15) 무정가(가창유희요)

박귀남 : 고향 떠나온지 52년(52년이다)  
고향 떠나온지 52년 되기만해도—  
편지한장 없는 오빠 무정하구나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고향 떠나온지 52년 되기만해도  
편지한장 없는 오빠 무정하구나  
리라—리라리라 리라리라 리랄라리요  
리라리라리라 리랄라리요  
실어간다 실어간—다  
우리청년을 실어간—다  
조선반도로 실어간다  
실어온다 실어온—다  
우리청년을 실어온—다  
조선반도로 실어온—다

### (16) 간다니(가창유희요)

박귀남 : 간다니 간다니 내가 돌아간다네.  
그곳으로 내어찌 간다니...  
당신은 나를 데리아주고 생각하니  
백원짜리 우도밖에 간다니...

### (17) 도라지타령(가창유희요)

박귀남 :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두뿌리만 캐어도오 바구니가 반심만 되누나  
에헤야데야 에헤야  
어허라 난다 거져져 좋다  
니가 내 간장 서리살살히 다 녹인다.  
에헤야데야 에헤야

### (18) 어랑타령(가창유희요)

박귀남 : 시집살이 하기 싫으믄 문전에 밖으로 돌아라  
시어머니 무섭거든 남자 품이나 들어라  
어랑어랑어허야 어랑어랑 더야야 사랑간으로 가노라

이노사 : 놀아라 놀아라 절이나 젊어서 놀아라  
나먹고 병드리면 내가야 못노니 노오다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독수리 낫뜨자 병아리 간곳이 없구나  
정든 님이 낫뜨자 병아리 간 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함흥기차 유리는 햇빛이나 번쩍  
맞아비 금니는 웃음이나 번쩍  
어랑어랑 어허라 어허야 더야 사랑 간으로 돌려라

### (19) 수심가(가창유희요)

박귀남 :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잠자던 친구도 모른다.  
에헤야 디어라 허송세월을 말어라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잠자던 친구도 모른다.  
에헤야 디어라 허송시월을 말어라

### (20) 라리라릴라(사자 밥먹이는 노래)

박귀남

이노사

양경숙 :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라리라릴라 라릴라리라리 라리라  
띠릴리띠리리리

@ 정월 보름날 북청사자놀음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한다.

2) 속초시 청호동 13통4반 유순녀씨 댁 | 2002. 4. 14.

가창자 : 유순녀 : 여, 74세 | Tape 02-19-02

유 할머니의 고향은 함경도 북청군 신창면 고정귀리이다. 6.25때 월남하여 속초의 아바이마을에서 계속 살아왔다. 슬하에는 1남1녀를 두었다.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으나 움직일 수 있을 때 한푼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매일 노구를 이끌고 생선장사를 다닌다. 그러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들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이 속이 상한다고 자주 눈물을 지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생활도 옛날의 북쪽 생활에 비하면 좋으니 김정일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씨는 입담이 좋을 뿐만 아니라 장구를 잘 친다. 단칸방에 장구가 있는데, 노래를 부를 때는 꼭 장구로 박자를 맞추었다. 장구가 많이 헐어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그의 한풀이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돈돌라리(가창유희요)

유순녀 :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니야  
모래강산에 돈돌라리야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야  
모래강산에 돈돌라니야  
보배청산에 돈돌라리야

### (2) 수심가(가창유희요)

유순녀 : 석탄 백탄 타는데 연기만 펄펄 나누야  
요 내 가슴 타는 것은 어느나 누구나 알아주나  
에해야 난다 디어라 허송세월이 넘어간다

### (3) 뱃노래(가창유희요)

유순녀 :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너하나가 잘났다고 빼기지를 말아라  
조선십삼도에 너하나뿐이냐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믿지를 마세요 믿지를 마세요  
화류개 여자를 믿지를 마세요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비야 비야 오지를 말아라  
노랑저고리 나물 초매 얼룩이 가노나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갈길이 바빠서 택시를 탔더니  
운전수하는 말이 연애만할꺼네  
이야노야노야 이야노야 어기여차 뱃노래 가잔다.

#### (4) 자장가(아기재우는소리)

유순녀 : 자장자장자장 우리 얘기 잘도 잔다.  
자장자장자장 자자자자 우리 아가

3) 속초시 청호동 노인회관 | 2002. 4. 28 | Tape 02-19-02

가창자 : 김정순 : 여 69세, 속초시 청호동 15통2반  
(본적 - 북청군 속후면 신창리)

조이선 : 여 73세, 속초시 청호동 13통2반  
(본적 - 북청군 속후면 창성리)

위의 두 분 외에도 회관에 참여하여 노래를 거들어준 5분의 노인이 있다. 이들(양경숙 · 이노사 · 박귀남 · 춘복엄마 · 박임학)의 고향도 모두 함경도 북청이다. 노인회 회장인 박임학 옹도 북청이다. 이곳의 북청사람들은 <북청사자놀음>을 할 때나 때로는 종종 모여 이북에서 부르던 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달랜다고 한다. 여기 노인회관에서 갖가지의 민요를 노래를 채록하였으나 앞서의 청호동 할머니들(이노사 · 양경숙 · 박귀남)에게 채록한 내용과 유사한 것이 많아서 특이한 몇 가지만 기록한다.

#### (1) 리릴리타령(가창유희요)

김정순 : 길중명청 가구치녀 시집을 못가서 우는데  
함경도 남자가 장가를 못가서 우네

리릴리 띠띠리 띠리띠리 렐리  
길중명청 가구처녀 시집을 못가서 우는데  
함경도 남자가 장가를 못가서 우네  
리릴리 띠띠리 띠리띠리 렐리 좋다

#### (2) 가자가자(가창유희요)

김정순 : 우다가 웃으면 감기가 걸려서  
배도사 한철에 십오점이야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아  
가자가자 어서가자 저녁끝으로

#### (3) 뱃노래(가창유희요)

김정순  
조이선 : ( ) 달빛에 개구리 우는데  
장가 못간 노총각이 바람이 났구나  
에오야 에노야 에야노야노 어기야차 뱃놀이 가잔다

누님누님 나 장가보내주  
까마구까치 울고 호박꽃 지는데 아가씨가 나는 좋아  
에오야 에노야 에야노야노 어기야차 뱃놀이 가잔다

#### (4) 리리요(가창유희요)

조이선 : 맹거지밭을 매자면  
꼬부랑꼬부랑 매구요  
술잔을 부라면 거미줄 늘리듯 늘인다  
리리흘리리 리리요 리리 흘리리 리리요

### 3. 북한민요의 특징

위에 채록된 민요는 북한의 민요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북한 민요가 지니고 있는 성격과는 달리 모두 옛스런 민중의 소박한 삶과 꿈과 한이 나타나 있다. 현재 북한에서의 민요에 대한 인식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농후하다. 북한에서 출판된, 《가요집》(김상훈편)의 서문에 보면, “(민요는) 노래 그 자체가 인간의 보람찬 노동 속에서 태어났으며, 인민들은

언제나 노동을 통하여 삶을 개척하고 거기서 희열을 찾았다.” 고 민요의 노동발생설을 주장하고 있다. 또 “오랜 역사적 과정을 거쳐 근로 인민들의 집체적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창조된 우리가요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여 우리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의 진실한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 민요의 계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전통민요가 수록되어 있는 이 《가요집》은 아래의 10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침략자와 양반 관료배를 반대한 가요를 포함하는 ‘정치가요’라는 한 항목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의 민요 인식을 헤아릴 수 있다.

- |              |         |         |         |
|--------------|---------|---------|---------|
| 1) 고(古)가요    | 2) 정치가요 | 3) 노동가요 | 4) 부녀가요 |
| 5) 민속가요      | 6) 애정가요 | 7) 세태가요 | 8) 서사가요 |
| 9) 자연에 대한 가요 | 10) 동요  |         |         |

북한 민요의 특징인 이 ‘정치가요’는 다음과 같이 하위 분류되어 있다.

- 왜란 침략자를 반대하는 가요 – (1) 임진 조국 전쟁시기의 가요  
(2) 19세기경의 가요
- 양반 관료배를 반대한 가요 – (1) 양반 지주를 반대한 가요  
(2) 봉건 관료배를 반대한 가요  
(3) 양반 관료를 반대한 가요
- 개화운동을 반영한 가요
- 참요 – (1) 한자로 번역된 참요 (2) 국문으로 기록된 참요

이렇게 정치색을 띤 북한 민요의 모습은 남한의 〈풍년가〉와 북한의 〈풍년가〉를 비교하여 보면 확연히 파악된다.

### 〈풍년가〉 (북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우리네 농장에 풍년이 왔네  
앞별에 벼이식 황금의 바다  
뒤별엔 강냉이 밀림의 바다

아 위대하신 수령님의  
주체의 농사법 꽂핀 이땅에  
세상에 처음보는 대풍이로세

논밭이 좋아서 풍년이 왔나  
온나라 강산에 풍년이 왔네  
황금 날가리 하늘에 쌓고  
수령님 은덕을 노래하세

위는 주체사상과 김일성 수령에 대한 예찬이 강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의 〈풍년가〉에는 풍년이 와서 좋다는 환희의 감정만이 나타나 있다.

### 〈풍년가〉 (강릉)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명년이 해마다 풍년이가 돌아왔네  
에해야 좋구나 얼시구나 좋구 좋다  
명년이 해마다 풍년이가 돌아왔네  
에해야 좋구나 얼시구나 좋구나  
명년이 해마다 풍년이가 돌아왔네

참고로 현재 북한의 민요가 채록되어 출판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민요곡집 상, 조선음악출판사, 1958.
- 조선민요곡집 하, 조선음악출판사, 1960.
- 구전민요집,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편, 1960.
- 조선민요곡집, 문예출판사편, 1979.
- 가요집, 김상훈편, 문예출판사, 1983.
- 민요곡집, 연변인민출판사, 1980.
- 민요집성, 김태갑 · 조성일 편주, 연변인민출판사, 1980.

## 어르신이 들려주는 아바이마을 이야기 –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사 사업 –

김 인 섭 (속초문화원 사업과장)

### 1. 서론

속초는 설악산과 동해바다로 이름난 관광도시지만, 도시 구성의 시작은 피란민들이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터전에서 출발했다.

6·25 전쟁 이전까지 북한의 땅이었던 속초는 북한에서 살다 6·25 전쟁으로 피란 온 실향민들이 조금이나마 고향에 가까운 곳에 머물고 싶어 정착한 곳이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아직도 피란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던 청호동 ‘아바이 마을’로 대표되는 당시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실향민들이 차지하는 인구의 비율도 30% 정도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고 한다.

그러나 피란민 1세대와 2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전쟁 이후의 고단했던 삶의 흔적이 현대화되면서 피란민 세대의 정서와 그들이 가꾸어 온 문화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90년대 후반부터 도시를 만들고 발전을 이끌어 온 실향민들의 삶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2004년 완공된 ‘실향민문화촌’이다. 이곳은 분단이 반세기를 넘기면서 1세대 실향민들이 가꾸어온 실향민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관람객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관이 마련되어 그 시대의 삶을 온전히 복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적 삶을 아무리 재구성한다고 해도, 한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인 실향민문화의 원형은 그 자체로 값진 유산이다. 이에 따라 속초문화원은 속칭 ‘아바이 마을’로 불리는 속초시 청호동에 60대 이상 실버들이 직접 지난 삶을 이야기하고 설명 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사 사업’을 추진했다.

## 2. 사업 개요

실향의 애환이 역사로 남아 있는 속초시 청호동 마을은 일명 ‘아바이 마을’로 불리며 전국 유일의 실향민문화를 간직한 곳이다. 특히 TV드라마 「가을동화」에 소개되면서 속초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였지만, 미디어를 통한 홍보효과 이상의 문화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갯배와 이북음식문화, 실향민 정착촌 특유의 집단주거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청호동은 매력적인 관광상품이자 근대문화의 전형이지만 조금씩 역사성을 잃어가고 있었었다.

이에 따라 강원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실향민 1세대를 관광해설사로 양성하여 생생한 역사체험과 문화이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광지 소개를 하도록 양성하였다.

### 2-1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 사업명 :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사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08. 8 ~ 11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실향민 1 ~ 2세대 어르신
- 참여인원 : 7명
- 활동지역 :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마을 외
- 사업내용 : 아바이마을 유래 및 명소 설명, 실향민 문화 체험안내
- 추진방법
  - 사업대상자 선정 : 관광해설 및 안내가 가능한 어르신 선발
  - 사업대상자 교육 : 기본 소양 및 실향민 문화 체험 교육
  - 아바이마을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활용
  - 북청사자탈 등 실향민 문화체험 교육을 이수받아 초등학교에서 실향민 문화 해설을 위한 강사 파견 추진
- 참여자 활동조건
  - 근무시간 : 1일 4시간, 주3일 근무 (월 48시간)
  - 배치방법 : 3개조 편성하여 조별 활동
  - 보수수준 : 매월 1인당 20만원(강원노인복지기금)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정	주요내용	세부추진내용
'08.07.	대상자 모집 대상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li> <li>○ 참여 희망어르신의 상담을 통하여 기본소양 등을 파악하여 선발</li> </ul>
'08.8.01~8.31	소양교육 기본교육 체험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li> <li>○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지식 습득 및 학습</li> <li>○ 북청사자탈 그리기 실습</li> </ul>
'08.09.~11	사업수행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들에게 아바이마을의 유래, 명소, 먹거리, 즐길거리 등 설명 및 안내</li> <li>○ 아바이마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무료대여 안내 및 관리</li> <li>○ 속초시 지역 축제(설악문화제 등)에서 속초사자 탈 그리기 체험 진행 및 실향민 문화 안내</li> <li>○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사를 통하여 관광안내를 받은 관광객에게 설문조사 실시</li> </ul>
'08.12.	사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내용 종합 검토보고</li> <li>○ 사업참여자와 평가회를 통하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수립</li> </ul>

### 3. 기대 효과 및 문제점

노인일자리 사업은 참여 어르신에게는 보충적 소득 및 자긍심을 가지는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 실향민 문화의 생생함을 전달해주는 효과를 준다. 또한 속초처럼 관광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도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다각화와 함께 문화생산의 창조자로서 노인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 우선, 참여하신 실버들에게 아바이마을 관광해설의 기능적 측면만 강조한 결과, 문화마인드와 속초문화 전반에 걸친 소양교육이 부족했다. 60대 이상 실버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버해설사가 머무는 곳의 편의시설에 대

한 고려도 부족했다. 또한 실버 문화해설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문화해설을 신청하는 경우가 하루에 두세 건에 불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실버해설사가 아바이마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하게나마 관광객의 질문에 부응할 수 있어, 직접적인 관광해설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는 이뤄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 고찰

장정룡 (강릉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 . 머리말

울타리처럼 둘러쳐 속초시를 감싸 안은 울산바위를 보며 자란 속초사람들은 이 바위의 전설에 대한 흥미로움을 갖는다. 한편으로 이북을 고향으로 두고 월남한 실향민들은 浮來山처럼 울산에서 왔다는 이 바위와 同病相憐의 입장을 갖기도 했을 것이다. 울산바위 전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을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설화적 형상화와 함께 전승 심리적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였다.

울산바위 전설은 그것이 현재적인 상황에서 설악산의 하나로 존재하면서 금강산과 연관된 바위로 전승된다. 실제로 전해오는 여러 글을 보면 금강산 가는 길에 설악을 만났다거나 설악을 가는 길에 개골산 승려를 만났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설악과 금강을 비교 한다든가 어디가 더 낫다고 말하기보다 “설악산은 또한 커다란 암석 둉어리로서 그의 경치는 대개 금강산에 比倣하다고 하면 얼른 짐작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산수풍경의 지극한 취미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금강보담도 설악에서 그 구하는 바를 비로소 만족케 할 것”이라는 최남선의 언급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이 존재하고 있다. 1)

백두대간의 하나의 준령에서 솟아 나온 설악과 금강의 운명적 만남은 擬人化된 울산바위를 통해서, 그리고 남북강원도 관광교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되고 있는 셈이다. 근래 들어 설악—금강 연계관광을 설악권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로로 거론하고 있지만,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설악권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사실상 어려서부터 울산바위 전설을 들으며 경상남도 공업도시 ‘울산’을 알게 되었고 ‘울산큰애기’ 노래를 친밀하게 들었다. 그러나 울산바위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였다. 이미 500여년 전에도 이 바위를 ‘천후산’ ‘이산’이라는 명칭과 함께 ‘울산’(蔚山)이라고도 불렸다는 기록을 볼 때 천후산과 이산은 다른 산인가, 대체 언제부터 ‘울산’이라 불

1) 崔南善, 《朝鮮의 山水》東明社, 1947, 23쪽

렸던 것인가라는 의문과 함께 속초전승설화의 집단적 심리현상에 대한 분석이 본고의 또 다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전해오는 이야기인 전설은 향토성과 역사성을 기본으로 전승하는 구비문학이다. 따라서 지역적 색채와 시대적 색채를 부여하면서 전승상 여러 갈래와 다양한 변이를 낳는다. 울산바위 전설 역시 지역민의 생활현실과 연결된 이야기로서 그들의 지향성과 염원, 그리고 문학적 재능이 발휘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속초의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민족분단의 일번지로서 많은 실향민이 월남하여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다. 동시에 남쪽에서 북상하여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살고 있는 경상도, 전라도 등지의 실향민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타향살이 전설을 전승하고 있는 울산바위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실향민의 고향 속초에는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북한지역 실향민이 살고 있으며, 동시에 갈 수는 있으나 이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실향민이 있다. 이들의 잊어버린 고향에 대한 집단적 심리현상이 근래에 이르기까지 울산바위의 설화적 전승에 일정부분 기여했을 것으로도 추론된다.

천후산과 울산바위는 어떤 관계인가라는 언어사회학, 전승설화적 고찰과 함께 “옛 지명에 있어 가장 큰 의문은 이산에 관한 내용이다. 篪山과 천후산, 울산은 같은 지명이라고 대부분의 책에서 표기하고 있는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울산과 천후산을 다른 곳에 표기하여 놓았다.”<sup>2)</sup>는 문제 제기도 있었던 바, 본고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寡聞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설악과 금강산 설화나 설악산 설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방면 연구의 선편을 잡은 최승순은 금강과 설악산설화를 비교하면서 울산바위 전설을 경승창조설화계통의 飛峰說話라 하였고, 장덕순·최래옥·강진옥은 ‘산(섬)이동형 전설’로 보았다.<sup>4)</sup>

장덕순은 山移動譚이라하여 浮來山·山高·山開·山回로 나누었으며, 최래옥은 산의 다양한 면을 역사성, 풍수지리성, 종교성, 인격성으로 분류하고 산이동을 인격성에 포함하

2) 한정규 역음, 『옛 문헌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11쪽

3) 崔承洵, 〈金剛山說話와 雪嶽山說話의 比較〉 《語文學報》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학과, 1982, 5~20쪽

4) 崔來玉, 〈山移動說話의 研究〉 《冠岳語文研究》 제3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487~502쪽  
①移動型 ②地域型 ③失機型 ④外入型

姜秦玉, 《韓國傳說에 나타난 傳承集團의 意識構造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①장자못형 ②잃어버린 명당형 ③쌀(술)바위형 ④아기장수형 ⑤말무덤형 ⑥絕脈형 ⑦산이동형 ⑧오느림내기형 ⑨설문데형 ⑩달래형 ⑪원훈형

5) 張德順, 《韓國說話文學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75, 35쪽

였다. 그리고 울산바위전설은 失機型(기회를 놓치다)으로 山止, 山飛, 岩止 가운데 山飛(A 산이 날아간다. ~B 이미 완성되었다. ~C 그만 떨어진다)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飛峰 또는 飛山설화는 비석설화, 비암설화와 같은 내용인데, 산이나 바위 또는 봉우리가 날아왔다는 이야기다. 현재 구전되는 울산바위 전설 각 편을 살펴보면 산이 아닌 ‘바위’ 이야기로서 걸어온 바위, 날아온 바위, 지고 온 바위 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 걸어온 바위로서 날아온 바위나, 지고 온 바위는 아주 적은 빈도수를 보인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울산바위’는 산이 아닌 바위다. 전체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산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이다. 즉 ‘산처럼 생긴 바위’인데 그 모양이 계조암을 둘러싼 ‘울타리’처럼 생긴 것이거나 혹은 ‘우는 산’의 ‘울다’에서 유래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의 웅장한 모습과 다채로운 경관은 대규모의 화강암의 貫入을 바탕으로 하는 암질과 구조의 차에 의한 차별침식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垂直節理에 의해서 험준한 奇巖의 山貌를 이뤄 薦山岩이라고 불린다.<sup>6)</sup> 설악 8奇 가운데 하나로 ‘수직절리’가 들어가 있는데, 울산바위처럼 온갖 기괴한 모습으로 뾰족뾰족한 모습의 돌로서 이루어진 현상을 말한다.<sup>7)</sup>

강원도 설화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연구한 논문에서도 울산바위와 같은 산·바위·섬과 같은 이동형 전설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설화의 전승심리적 현상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sup>8)</sup> 그것은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총체적 자료개관이 없어 본격적인 고찰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필자가 수집한 속초시 설화에도 울산바위 전설은 몇 편에 불과하다.<sup>9)</sup>

그러나 그동안 나왔던 울산바위 전설의 전반적 존재양상을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 울산바위 전설을 종합하고 상호간 비교를 통해서 이 바위가 갖는 지역자원의 측면뿐 아니라 생활상에서 창조된 구전문학예술로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바위 전설에 대한 자료개관과 함께 설화유형, 전승집단의 의식 구조의 측면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분석 자료에서 그동안 수집 발표된 울산바위 내용을 소개하고, 분석 자료는 비교적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북한전승의 울산바위 설화를 대상으로 한다.<sup>10)</sup>

6) 文教部, 《雪嶽山》天然記念物 第171號 雪嶽山學術調查報告書. 1967, 61~65쪽

7) 黃沕根, 《國立公園 雪嶽山》通文館, 1973, 59~65쪽 설악산의 八奇 ①天吼地動 ②巨巖動石

③轉石洞穴 ④百斗甌穴 ⑤垂直節理 ⑥有多盪瀑 ⑦金剛有穴 ⑧冬季遲雪, 설악산의 八景 ①龍飛昇天 ②雲岳霧海 ③七色有虹 ④開花雪景 ⑤紅海黃葉 ⑥春滿躊躇 ⑦月夜仙峰 ⑧滿山香薰

8) 金英鎬, 〈강원도 설화의 연구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이해〉 《語文學報》 제6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82, 21~41쪽, ① 아기장수설화 ②명당설화 ③희생호설화 ④난생설화 ⑤변신설화 ⑥근친상간설화 ⑦수치심에 대한 美化설화 ⑧龍系설화 ⑨장자못설화 ⑩불교설화

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Ⅱ. 울산바위의 전승사료 검토

'울산바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그러나 옛 문헌에 나온 것으로 보면 '울산' (蔚山)이란 지명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펄썩 물리앉아 울어서 울산바위'라는 구전설화상의 인격적 화법처럼 치명상 명명이 아니라, 한자 표기 이전에 형성된 擬聲的·形態的 命名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울산바위는 天吼地動의 바람소리가 나는 '우는 산'의 울산이며 울타리 모양의 '울산' 일 뿐이다. 울산바위는 설악산의 八奇 가운데 하나로 垂直節理에 해당하며 그것이 형성한 설악산 팔경의 하나로 '雲岳霧海'를 갖추고 있다. 구름이 걸린 울산바위를 밑에서 쳐다보면 마치 연못에 연꽃이 막 피어난 것과 같은 '蓮花半開山'의 모습인데 문헌에 수록된 울산바위 내용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산(籬山) 부 북쪽 63리 쌍성호(雙成湖) 서쪽에 있는데 곧 대령(大嶺) 동쪽 가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울산(蔚山)이라 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 1530년 편찬]

천후산(天吼山):군 남쪽 70리에 있다. 이 산에는 돌이 많다. 바람이 산중에서 스스로 불어 나오기 때문에 "하늘이 운다"고 전해온다. 양양과 간성사이에 큰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은 이 산에 성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간성군 읍지, 1633년]

이산(籬山):설악산 동쪽 산기슭에서 와서 청초호 서남 언덕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꾸불꾸불하여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으므로 이산이라 하였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고도 하며 또한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여지도서, 강원도 양양, 1757~1765년 편찬]

천후산(天吼山):서북 40리 간성계(杆城界)에 있다.

울산(蔚山):북쪽 35리 청초호의 서쪽에 있다. 기이한 봉우리가 종횡으로 있어 울타리를 세운 것 같다. [대동지지, 양양, 김종호 저, 1861~1866년 편찬]

울산암(蔚山岩) : 군 남쪽 60리 미시령 부근 일대에 바위가 총총이 솟았다. 바위산이 마치 풀포기 같이 옆으로 5~6리나 뻗어 마치 기치창검이 좌우로 달려가는 듯한 웅장한 기상이다. 비록 금강산 밖에 있으나, 금강산 못지않은 기암총석이다.[고영희, 간성군읍지, 1884]

10) 오희복, <설악산의 울산바위>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11)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63쪽 '울산바위이야기' 이호열(남.70)속초시 노학동, 1994년 11월 2일 조사

이산(籬山):북쪽 63리 쌍성호에 있는데 기이한 봉우리가 울타리를 설치한 것과 같다.[여재촬요, 양양, 오흥목 저, 1893년 편찬]

천후산(天吼山):산에 옛 바위가 많고 바람이 스스로 가운데에서 부니 이를 일러 천후라 한다. 세속에 전하길 양양과 간성지간에 바람이 많다고 한 것이다. 산에 성인대가 있는데 석상이 마치 불상처럼 서 있어 유래했다. [김유동, 전선명승고적 간성군조, 1929년 편찬]

천후산(天吼山):군 북쪽 5리 설악산 동북쪽에 있다. 돌 봉우리가 높게 펼쳐져 있고 지주처럼 반공중에 꽂혀 있어 보인다. 구멍이 많아 큰 바람이 불면 산이 일어날 듯이 스스로 소리를 내는 연고로 이름 지어졌다. 판서 윤순(尹淳, 1680~1741)이 산 이름을 산 아래 바위에 전각하였다.

이산(籬山):군 북쪽 6리 쌍성호 서쪽에 있는데 즉 큰 고개 동쪽 지맥이다. 기이한 봉우리가 있어 종횡으로 울타리를 세운 것 같아서 이름 지어졌다. 세속에서는 울산(蔚山)이라 이른다. [강원도지, 김기옥 저, 1940년 편찬]

이상의 자료에서 1500년 경 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 ‘울산’이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울산바위는 고성군 읍지에 기재된 바 ‘울산암’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울다’ ‘울타리’에서 유래되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襄杆之間 多大風’이라는 金遁東의 설명처럼 이곳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로 인해 천후산이라는 이름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세속에서는 한자지명으로 ‘蔚山’이라 이르지만 그것은 순 우리말 ‘울’에서 온 것이다. 문현에 따라 천후산과 이산을 따로 기록하고 있으나 四方八方의 보는 시각이나 시점에 따라 별개의 산으로 인식할 뿐 같은 산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이러한 울산바위는 한자로 명명하기 이전부터 고유어인 ‘울’ (吼 · 篱)에 ‘산’이 붙은 것이다. ‘울산바위’는 ‘울산암’으로 혼용하여 표기하였고 그 높이도 860m, 650m, 950m로 다르게 표기되었다. 12)황호근의 글은 여러 각도에서 울산바위를 설명하였다.

12) 江原名勝古蹟》 강원도체육회, 1959년판에는 ‘울산바위’로 표기하였으며 孫慶錫, 《登山의 理論과 實際》 成文閣, 1964, 雪嶽山登山Course圖에는 ‘울산암’으로 표기되었다. 1950~60년대로 추정되는 흑백사진 《명승고적앨범, 관동, 설악》 서울백운상회 발행의 지도에는 울산바위로 되어 있고, 사진설명을 “울산바위 (蔚山岩) 울산바위는 천연의 대암석으로 높이 860m 길이 2km의 거대한 여섯 봉우리의 석산연맥이다.”라 하였다. 이후 1970년대 간행된 컬러판 《國立公園 觀光 雪嶽山》안내지도에 ‘울산바위’라 표기하였고, “울산바위(蔚山岩) Ul-San Rock Peaks, 계조암에서 0.5km 떨어진 곳에 하늘을 뚫을 듯 솟아오른 이 바위는 해발 650m로서 또한 天吼山이라고도 부르며 크고 작은 봉우리가 사방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고 있고 석벽을 낀 철제계단을 올라 사방을 한 눈에 보노라면 속세의 시름을 잊을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김기홍, 《관광설악산》 우진관광문화사, 1975년판에도 “울산바위·울산암·Ulsanbawi Rock 신선들이 금강산을 만들 때 1만 2천봉이 이미 다 찼다는 소식에 울산서 가져오던 바위를 여기에 두고 갔다 한다. 이를 핑계로 울산현감은 신흥사 주지에게 세금을 받아갔다는 전설도 있다.” 李孤雲, 《名山古刹따라》 신문출판사, 1982, 180쪽 지도에는 ‘울산암 950m’로 되어 있으며, 《전국유명100산 등산안내지도》 성지문화사, 1990, 36쪽 설악산 지도에는 ‘울산바위’로 표기하고 있다. 최낙민, 《천의 자태, 설악산》 신영,

울산암은 외설악의 북쪽에 위치한 암산(岩山)으로서 일명 천후산(天吼山)이라고도 한다. 울산바위의 높이는 해발 약 650여 미터가 된다.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발 불일 곳이 별로 없다는 곳이다. 여섯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관(奇觀)은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렵다. 더욱 암벽이 험난하므로 알피니스트들이 등반을 즐기는 곳이기도 하다.

울산암은 외설악의 팔기(八奇) 가운데 하나가 된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천동(天動)이 치면 산 전체가 뇌성(雷聲)에 울리어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 그래서 천후산(天吼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 소리가 외침 같기도 하고 무슨 부름 같기도 하다. 때로는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로 들리다가도 무슨 울부짖음같이 들리기도 한다. 천동이 길게 일어나면 외설악의 사자가 울부짖는(獅子吼)것 같다. 여름이면 하루 몇 번이고 천후지동(天吼地動)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성(奇聲)이다. 더욱 울산바위에 구름이 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그 경치가 흡사 구름 꽃송이가 피는 것 같다. 울산암 운화(雲花)는 외설악의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리고 울산암 위에는 넓은 반석(盤石)이 수백 칸(數百間)이나 되어 등반하는 알피니스트들이 여기서 휴식을 하면서 눈앞으로 전개되는 경치를 살피기도 한다. 계조암에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 외롭게 뭉쳐있는 바위들 같다. 주위에는 바위 폐가 별로 없는데 여기서만 오밀조밀하게 모였으니 전설이 있을만한 바위 폐이기도 하다.

울산바위가 이룩된 원인, 울산바위는 전체가 화강암(花崗巖:石英·雲母·長石)을 주성분으로 한 火成岩의 한 가지)으로 되어 있으며 수직절리에 의해서 험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수직절리라는 것은 잘라진 바위틈이 직선으로 드리워졌는 것을 말한다. 화성암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일정한 사이를 두고 규칙적인 틈새를 말한다. 이것은 바위가 되는 암장(岩漿)이 깊은 땅 속에서 지열로 말미암아 녹아서 반액체로 된 것이 식어서 응고될 때 생긴 것이다. 대개 기둥모양으로 네모진 형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산바위는 지질의 절리에 의해서 생긴 바위이다. 13)

---

1999, 42쪽에 “울산바위(울산암) 외설악 신흥사 서북계곡을 따라 올라가 내원암을 지나 산마루에 올라서면 엄청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 보는 사람마다 그 웅대함에 입을 벌리게 하는 산이 바로 울산바위이다. 높이 950m 전체둘레는 자그마치 4km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엄한 이 바위산은 설악팔경 중 하나이며 비가 내리고 천동이 치면 산 전체가 울려 흡사 산이 울고 하늘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아 일명 천후산이라고도 한다. 여름에 구름이 바위허리를 감아 걸쳤을 때는 흡사 꽃송이가 된 것 같고, 울산암 겨울 설화는 팔경 가운데 제일이다. 산위에 넓은 반석이 수백간이 되어 등산객의 휴식처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울산바위’와 ‘울산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13) 황호근, 앞의 책 83~84쪽

### III. 울산바위 전설의 자료개관

울산바위 전설이 수록된 자료는 1960년대 조사 자료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는 전체 39편이다. 내용상 중복된 게재가 있고, 달마봉과 울산바위가 같이 걸어왔다는 부분적인 변이형이 있으나 천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리지 않고 수록하였다.

이들 울산바위 전설자료는 크게 移動, 賦稅, 매미화소 등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동화소는 울산에서 금강산을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경우 ‘날아서 왔거나, 걸어서 온 경우’가 있고, 타인에 의해 누군가가 ‘지고 온 경우’로 나뉜다. 다음은 울산바위에 세금을 부과했다는 부세화소로 울산원과 승려(동자승)에 대한 내용이 있고, 울산바위나 계조암 매미소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진다. 수록자료는 다음과 같다.

- [자료1]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평민사, 1989. ① ‘울산바우’ (1962년 5월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 金面星 제보)
- [자료2] 黃沴根, 《雪嶽山》 통문관, 1973. ① ‘울산바위 전설’
- [자료3] 崔承洵, 《太白의 說話, 下》 강원일보사, 1974. ① ‘울산바위의 내력’ ② ‘계조암의 매미’
- [자료4] 《鄉土의 傳說》 강원도, 1979. ① ‘울산바위의 내력’
- [자료5]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① ‘금강산으로 가던 울산바위’ ② ‘매미떼의 대합창’  
③ ‘천후산 울산바위’
- [자료6]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① ‘계조암과 울산암’ ② ‘꾸며낸 엉터리이야기’ ③ ‘설악산의 자연경관’ ④ ‘설악산 매미울음의 사연’ ⑤ ‘울산바위와 동자승의 슬기’ ⑥ ‘울산바위 밑의 매미 떼’  
⑦ ‘울산바위의 유래’
- [자료7]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5》,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① ‘울산바위 유래’ ② ‘계조암 매미소리’
- [자료8] 《襄州誌》 양양군, 1990. ① 蔚山바위의 설악산 移住
- [자료9] 오희복,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① ‘설악산의 울산바위’
- [자료10]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江陵語文學》 제10집, 1987, ① ‘울산바위이야기’ ② ‘울산바위이야기’ ③ ‘울산바위이야기’
- [자료11]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① ‘울산바위 매미떼 합창’  
② ‘울산바위 매미 떼’ ③ ‘울산바위 유래’ ④ ‘울산바위 전설’ ⑤ ‘울산바위 전설’  
⑥ ‘울산바위와 동자승’ ⑦ ‘울산바위와 세금’ ⑧ ‘울산바위와 송강 정철’  
⑨ ‘울산바위와 의덕장사’

14) 강릉대국어국문학과,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31쪽, ‘울산바위이야기’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 [자료12] 최낙민, 《千의 姿態 雪嶽山》 신영, 1999, ① ‘금강산에 뽑히지 못한 울산바위’  
           ② ‘울산바위와 동자승’
- [자료13] 두창구·김경남, 《고성·속초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0, ① ‘울산바위와 동자승’  
           ② ‘울산바위와 매미’
- [자료14] 《강원의 설화》 강원도 동해안지역, 2006, ① ‘금강산 가다가 못 간 울산바위’ ② ‘울  
           산암 유래’ ③ ‘울산바위 유래’ ④ ‘울산바위’

이상에서 보듯이 현재 파악된 울산바위에 대한 최초 채록은 임석재에 의한 것으로 1962년이다. 이 채록 전에 이루어진 자료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전체 39편 대부분이 失機形이자 外入形으로 볼 수 있다.

최래옥은 명산의 기회를 놓친 전설을 ‘失機形’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山飛’(A산이 날아간다. ~B이미 완성되었다. ~C그만 떨어진다)에 해당되는 예로 ‘강원도 설악산 울산바위’(채록 1963년 8월 설악산에 갔을 때 현지 주민에게서 처음 들었다)를 거론했다. 이것은 이른바 ‘비봉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울산바위는 지질학적으로 ‘봉’이나 ‘산’으로 규정할 수 없으므로 ‘바위’로 재 논의해야 할 것이다. 15)

#### IV.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

울산바위 전설의 유형분석을 위하여 오희복의 ‘설악산 울산바위’ 전설을 대상으로 한다.<sup>16)</sup> 국내 전승자료와 대동소이하나 이 자료에는 금강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십리 둘레의 설악산 울산바위를 간접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정리 수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아주 먼 옛날 천하의 명산 금강산이 처음 생겨날 때에 있은 일이다. 산신령은 경치 아름다운 동해 바닷가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산을 하나 만들려고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하였다. 꽃이 무성하게 할까? 녹음이 우거지게 할까? 맑은 물? 흰 돌…?  
 며칠을 두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산신령은 비로소 한 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세

15) 《雪岳의 뿌리》 속초시, 1982, 114쪽 “설악산의 경치를 地質學的인 입장에서 고찰해 보면 설악산의 기괴한 岩相을 대략은 알 수 있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설악산의 훌륭한 경치는 바위의 형성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6) 《조선사화전설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185~191쪽, 이 자료에 사용된 북한어법은 우리식으로 바꾸었다. 예컨대 ‘녹음’은 ‘녹음’으로 등이다.

상에 더없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산을 만들자면 각이한 모양의 바위를 모아들이어 일만 이천 개의 봉우리를 쌓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산신령은 온 세상에다가 묘하고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바위와 돌들은 모두 금강산으로 모여오라는 분부를 내렸다. 이날부터 사방에서 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집채 같은 큰 바위도 동해 바닷가를 향하여 굴러가기 시작하였고 떡돌같이 넙적한 바위도 금강산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였다. 작고 동글한 돌은 빨리 굴러가고 모나고 둔중한 바위는 시간을 지체하면서 한 치 또 한 치 금강산을 향하여 움직이었다.

이때 경상도 울산 땅에도 신기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있었다. 빛깔이 곱고 생김새가 기묘한데다가 크기도 요란하였다. 아름다운 산을 이루는데 한 뜻을 단단히 하리라 생각한 그 바위는 산신령의 분부를 듣자 곧 길 떠날 차비를 서둘렀다. 금강산을 향해 떠나기는 남보다 늦지 않게 떠났으나 워낙 덩치 크고 둔중한 지라 걸음은 무척 더디였다. 그래서 이왕 떠난 길이니 기일이 늦지 않게 다달으리라 마음먹고 바위는 부지런히 북쪽을 향해 걸음을 다우쳤다. 고개도 넘고 시내도 건너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기였다.

아침 일찍이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걸었지만 겨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 날이 저물었다. 바위는 어두워오는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돌리고 섰다가 “에라, 다리도 아프고 기운도 진한데 늦은 바에야 여기서 하룻밤 쉬여가자.”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밤을 묵으려고 작정하였다.

바위는 그날 밤에 참말로 단잠을 잤다. 솔숲이 무성하여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교교한 달빛이 곤히 잠든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

이튿날 아침, 그는 동해바다 위에 해가 높이 솟아오른 다음에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서 금강산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는 북쪽을 바라보며 걸음을 서둘렀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파발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는 것이었다. 가까이 맞이하고 보니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었다.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도 된다는 신령님의 분부요.”

파발은 이런 말을 전하며 그 바위더러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바위는 기가 막혔다. 아무쪼록 산신령의 분부를 받은 이상 금강산으로 가서 꼭 한 뜻을 하려고 마음 다쳤던 노릇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이었다.

몹시 섭섭하고 아쉬웠으나 이제는 후회를 하여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난감한 일이었다. 그처럼 고생스레 걸어온 길을 되돌아가자니 갈 길도 아득하거나와 남들 앞에 나설 면목도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구르며 엉엉 우노라니 옆에서 그 모양을 보고 있던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그 정상이 하도 딱하였던지 이렇게 권고하였다.

“마음을 진정하오. 이 고장이 금강산만은 못하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울산보다는 훨씬 나아보이니 고향으로 돌아갈 것 없이 여기에 머물러 사시지요?”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 같고

이제는 “오지도 말라”는 금강산은 바랄 수도 없으니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아 사는 것 이 아무 모로 보아도 제일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바위는 어젯밤 잠을 자던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리라 마음먹었다. 이리하여 설악산 한 중턱의 솔숲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

푸른 소나무가 울창한 수림 속에 깎아지른 듯이 가파로운 절벽을 이룬 기묘한 바위, 주위가 십리나 된다는 이 바위를 사람들은 ‘울산바위’라고 이름 지었다. 하기는 산중턱에 걸 놓인 것 같이 보이고 방금이라도 굴러 내릴 듯하니 난데서 굴러온 바위라고 볼만도 한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울산바위가 설악산에 자리 잡고 앉은 지 몇 천년, 몇 만년이 지난 이 조 중엽 때의 일이다. 어떤 어리석은 양반이 울산고을의 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원은 별로 할일도 없어 고을안의 양반들을 대화루라는데 모아놓고 한담을 하다가 설악산에 있다는 울산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원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바위를 가지고 무엇을 좀 얻어 보지 못할까 하는 궁리가 들었다.

설악산의 경치가 금강산 다음은 간다고 하니 울산보다는 아름다운 고장이라 그것만 해도 은근히 심술이 나고 욕심이 가는데 거기다가 울산에서 옮겨간 바위까지 있어 그곳 풍경을 돋군다니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그 바위를 도로 찾아올꼬?”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마음 같아서는 그 바위를 울산으로 옮겨왔으면 좋으련만 산악 같은 바위를 무슨 재주로 옮겨온단 말인가? 그렇다면 아예 송두리째 깨버리고 싶지만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을 꽁꽁거리며 고심하던 끝에 원은 비로소 한 가지 신통한 생각을 해내게 되었다. 설악산에 있는 중들을 들볶아 재물을 긁어보자는 궁리가 떠오른 것이었다.

울산바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바로 신흥사(1644년에 설악산에 세운 절간의 이름)에 속한 땅인지라 신흥사를 찾아가 그 곳 중들을 보고 바위 값을 물게 하리라 마음먹은 원은 곧 행장을 차렸다. 위의를 갖추느라 멋진 가마를 대령하게 하고 말 잘하는 이방이며 힘 꼴 쓰는 형방에 아전붙이들도 수두룩이 이끌고 설악산 신흥사를 찾아갔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져 갈 무렵에 늘 한적하기만 하던 신흥사 절문 앞에는 난데없는 원님 행차 하나가 이르렀다. 가마에서 내린 원은 거드름스럽게 걸음을 옮기며 절 안에 들어섰다.

“여봐라, 울산 원님의 행차이시다. 주지가 어디 계시냐?”

나졸 하나가 한 걸음 앞서 들어가며 중들을 부르는데 마침 저녁 향불을 피우던 주지(절간 안의 일을 맡아보는 우두머리 중)가 마당으로 달려 나와 뜻밖에 들이닥친 손님을 보고 어리둥절해져서 미처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안절부절하고 서 있었다.

“이 방자한 놈들 같으니, 너의 고장에 우리 고을 바위가 와 있는데 어째서 여지껏 모른 체 하고 그냥들 있었더냐?”

원은 마루 위에 걸터앉으며 호령부터 앞세웠다. 원의 위엄도 두려웠지만 그 보다도 그의 말이 주지를 더욱 놀라게 하였다.

“올해부터는 그냥 있지 못할 줄 알아라. 우리 고을 바위 세를 물어야 하느니라. 일았

느냐. 바위 세를 내지 않으면 이 절간을 헐어버리고 말테다.”

울산 고을 원이 그 바위 세를 독촉하는데 그 값이 엄청나게 많아서 해마다 절간에서 거두어들이는 날알을 다 바쳐도 모자랄 형편이었다.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만을 숭상하는 나라의 세줄을 믿고 하는 행패질이라 억울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신흥사의 중들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해부터 신흥사에서는 매해 바위 세로 많은 곡식을 실어다 바쳤다. 그것은 물론 고을원의 주머니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었다. 다시 세월이 흘렀다. 신흥사의 이전 주지는 죽고 새 주지가 왔다. 그 해 가을 또 울산에 바위 세를 바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바위 세를 바치느라고 절간의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땅에서 거두어들인 날알은 깅그리 울산고을로 실어 보내고 온 한 해를 동냥으로 수많은 중들이 연명을 하는 티이었다.

새로 온 주지는 바위 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연해졌다. 어느 모로 보나 천부당만 부당한 요구라는 것은 분명한데 바위 세를 무는 것이 이제는 관례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는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우악스러운 울산고을 아전 놈들이 달려들 판인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때 절에 갓 들어온 한 어린 중이 있다가 껑꽁거리며 앓고 있는 주지를 보고, 입을 열었다.

“스님, 무슨 근심이 계시오니까?”

“너는 알 일이 아니로다.”

주지는 돌아앉으며 이마 살을 찌푸렸다.

“소승이 알면 안 될 일이오니까? 계책을 쓰실 일이라면 소승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사옵니다.”

어린 중은 두 눈을 반짝거리며 주지에게 졸랐다. 주지는 마지못해 그에게 자기가 걱정하는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중은,

“스님, 이 다음에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오면 소승에게 알려주시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며칠을 지나니 과연 울산에서 바위 세를 받으러 왔다. 이번에는 아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원이 아전무리를 이끌고 직접 들이 닥치었다. 당황한 주지는 얼른 어린 중을 불러내었다. 어린 중은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태연히 원 앞으로 다가갔다.

“울산에서 왔다는 바위가 우리 절엔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일뿐더러 도리어 해를 주는 것이오이다. 바위가 앉은 자리가 십리 둘레라 그곳에 해마다 날알을 심었더라면 술한 곡식을 거둘 수 있었을 터이온데, 그 바위 때문에 우리 절이 본 손해가 막심하오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 절이 본 손해를 울산고을에서 갚아야 할까 보오이다. 너무 오래전의 것은 그만 두시고 여기에 절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천년동안(설악산에 처음으로 절간을 세운 것이 653년인데, 그때에는 향성사라는 절간이 있었음)에 이 바위가 놓여 있던 십리 둘레의 땅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도로 돌려주셔야 할까 보옵니다.”

어린 중의 말에 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말이 조금도 사리에 어긋나지 않았다. 원은 눈알을 디룩거리며 고개를 비꼬는데 어린 중은 영특한 얼굴에 웃음을 담으며, “손해

를 정 갚기 어려우시면 당장에라도 그 바위를 옮겨가도록 하시오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원은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고개를 들었다.

“네 말대로 바위를 끌어갈 터이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놓아라.”

“그러시오이다.”

“이렇게 해 놓아라. 새끼를 태운 재로 바위를 묶어 놓아라.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와서 끌어 갈테다.”

원은 이런 말을 내뱉고 그대로 돌아가 버렸다. 바위 세는 물지 않았으나 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주지며 중들은 벌벌 떨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생생한 새끼로 십리 둘레의 바위를 묶어 놓으라 하여도 어려울 일인데 불에 탄 새끼로 매어 놓으라니 이것은 행패할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린 중은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았다. 이튿날부터 어린 중은 절 안의 중들에게 벗짚으로 새끼를 꼬라고 하였다. 수많은 중들이 모여 있는 절간인지라 모든 중들이 한 열흘 달라붙어 새끼를 꼬았더니 새끼더미가 산처럼 쌓이었다.

새끼가 다 준비되자 어린 중은 다시 주지더러 소금 몇 섬과 들기름 몇 독을 마련하게 하였다. 진한 소금물에 새끼를 푹 적시어 절이고 그것을 말리운 다음 다시 들기름에 담그었다. 이렇게 새끼를 마련하자, 어린 중은 그 새끼를 가지고 바위 위에 올라가 여기저기 줄을 드리워 비끄러 매었다. 바위를 다 동이고 난 그는 새끼줄마다 불을 붙이라고 하였다.

들기름이 묻은 새끼줄에는 불이 잘 달렸다. 그러나 소금에 절은 지라 까맣게 타도 재가 날리지 않았다. 멀리서 바라보면 흡사 새끼줄이 불탄 재로 바위를 묶어놓은 것 같았다. 이것을 보고 주지도, 다른 중들도 너무 신기해서 좋아하고 어린 중을 칭찬하였다.

어느덧 한달이 다 되었다. 울산 고을 원은 중들이 감히 불에 탄 새끼로 그 큰 바위를 묶어 놓았으랴 싶어 단단히 혼찌검을 내고 다시 바위 세를 받아 가리라 마음먹고 설악산으로 들어왔다. 신흥사의 주지를 만난 원은 “그래 바위를 묶어 놓았느냐?” 하고 물었다.

“예, 분부대로 하였소이다.”

“정녕 불에 탄 새끼로 묶었으렷다?”

“그렇소이다.”

“관가에 거짓말을 하면 죽음을 당할 줄 알아라.”

“여부가 있사오리까?”

원은 주지의 다짐을 받고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바위에는 불에 탄 새끼가 얼기설기 얹혀져 있었다. 원은 급살을 맞은 것처럼 아무소리 못하고 그 길로 달아나 버렸다. 그리하여 울산바위는 바위대로 남아있고 바위 세를 받아가던 울산 고을 원이 다시는 설악산으로 나들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의 울산바위 전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금강산 일만이천봉의 창시자인 ‘산신령’ 그리고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향하다가 설악산에 머문 바위’ ‘신흥사’의 주지와

동자승, ‘울산 원님’ 은 세금을 받는 인물로 나온다. 이 전설은 巖石移動과 賦稅話素의 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암석이동은 ‘失機形’으로 ‘岩去’ 와 ‘岩止’ 의 화소가 나타난다. 즉 “아침 일찍 울산을 떠난 바위는 하루 종일 걸었지만 겨우 설악산 중턱에 이르고 보니 말이 저물었다” 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룻밤을 묵으려고 작정하고 단잠을 자고 아침에 북쪽으로 가는 걸음을 재촉하려고 하는데 산신령의 심부름꾼이 와서 “어젯밤 자정으로 금강산 일만이천봉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바위들이 더 오지 않아도 된다” 는 산신령의 분부를 듣고 기회를 놓친다.

이러한 실기형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울산바위 전설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그마한 피로를 참지 못하고 하룻밤을 쉬는 바람에 그만 때를 놓치고 만 것” 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먼 울산에서 걸어온 노정의 疲勞에 의해 ‘失機’ 한 것이다.

따라서 울산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岩去’ 의 걸음이 멈추어 금강산 1만2천봉의 끝 자리라는 端役을 거절하고 도중에 정착한 곳이 설악산이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 남의 비웃음이나 받을 것과 같고, 금강산에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입장에서 “차라리 여기에 주저앉아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았고, 그 자리에 터를 잡고 살기로 함에 따라 “설악산 한 중턱의 솔숲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이게 되었다” 는 바위가 멈춘 ‘岩止’ 화소이다.

위의 전설에서 나타나지 않으나 비봉형이라고 규정하는 ‘날아서 온 바위화소’ 는 불과 한 편이다.<sup>17)</sup> 따라서 울산바위 전설을 통칭하여 비봉형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타인에 의해 울산바위가 옮겨진 중요한 사례로 ‘負山’ 유형의 화소가 전한다. 이것도 전체 39편 가운데 단 한편만이 전하고 있어 울산바위 전설의 대표성을 갖기 힘들다. 그 내용은 천하장사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위를 어깨에 지고 15일 동안 금강산으로 가다가 설악산에 멈추자 바위가 울어서 울상바위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sup>18)</sup>

17) 黃沴根, 《國立公園 雪嶽山》通文館, 1973, 84~85쪽 ‘울산바위 전설’

18) 《한국구비문학대계》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1)1983, 46~48쪽,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계조암과 울산암’

금강산에도 천하장사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금강산 천하장사인 의덕장사라고 하는 장사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금강산 신령인데 너 금강산이 몇 봉 우리인지 아니 금강산은 11,999봉이다. 우리나라를 물론이거나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강산이 한 봉이 없어 12,000천봉이 되지 못했대는 것은 분하기 한이 없느니 너는 이유를 막론하고, 어디 한 봉우리를 쪘다가도 채워 놓도록 해라. 만약 너가 안 채워 놓으면 너의 신상에 해로울 것이다” 깨보니 꿈입니다. …울산에 가니 저렇게 커다란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바우를 보니 바우는 명 바우예요. 그래 의덕장사가 울산에서 바우를 짚어지고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짚어지고 가는데, 가다가 무거워서 쉬어 갈라고 생각해보니 만약에 내려놓았다가, 짚어지지 못할 우려성이 많으니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 밤낮을 가리지 않고 15일 동안 거쳐서 짚어지고 오는데 양양 고을이라는 데를 지나오게 되었어요. 여기서부터 금강산이 얼마 멀지 않으니 없는 힘을 더 내서 지고 가야겠다고 결심을 먹고 지나가는데, 나그네가 어디서 헐레벌떡 하고 뛰어 오더니만 하는 말이 “장사님, 그 큰 바우를 어디로 뭐 할라고 짚어지고 가십니까?” “이 바우는 금강산에 한 봉을 채우러 짚어지고 간다.” “금강산은 만 이천봉이 다 확보되었으니 그바우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다 놔 두십시오.” “아. 그래 그럼 여기다 놔 둬야겠구나.” … 그냥 내팽개치고 장수는 자기 갈 데로 갔죠. 그래 이 바우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주 꽤 씹하고 분해 죽겠어요. 왜 분하고 꽤 씹하나, 그래 이제 가만히 놔 두지도 않고 내 팽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통곡을 하고 앓아 올다 지쳤다, 올다지쳤다…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상바위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바람이 불어 올 때면 심산에 후(吼)자가 우는 듯하게 울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세화소는 이동형 전설과 다른 것으로 정착과정에서 나온 화소다. 즉 이것은 이 바위의 본고지인 울산원님과 옮겨온 설악산 신흥사 동자승 또는 어린아이의 지혜대결로 나타난다. 근본적으로 두 계층의 대결은 연령상이나 계층상 불공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는 울산원님이 아니다. 이것은 지역민이 창조한 전승설화상의 정신적 승리다.

울산에서 이곳으로 왔으므로 세금을 받아온 원님과 지혜를 거둔 신흥사 동자승의 승리로 세금은 면한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입장이 바뀌어 울산에서 돈을 내거나 아예 소유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어린 동자승이지만, 십리 둘레의 울산바위에 곡식을 심으면 오히려 소득이 있을 터이니 653년 향성사가 생긴 이래 조선시대 중엽까지 약 천년간의 지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님과 동자승의 지혜겨루기는 울산바위를 새끼로 묶어 놓는 難題를 쉽게 해결한 동자승의 승리로 끝나고 울산바위는 설악산에 고스란히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세금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울산바위는 명실상부하게 울산의 소유가 아니라 설악산 소유가 된

다음으로 부세화소는 이동형 전설과 다른 것으로 정착과정에서 나온 화소다. 즉 이것은 이 바위의 본고지인 울산원님과 옮겨온 설악산 신흥사 동자승 또는 어린아이의 지혜대결 것이다. 금강산의 일부가 아닌 설악산, 울산의 소유가 아닌 설악산 울산바위가 되는 과정이 민중적 승리로 나타난다.

결국 울산바위 부세화소는 경관이 갖는 부가가치를 암시하는 것으로, 울산바위의 아름답고 빼어난 경관은 금강산을 비롯한 다른 어떤 곳의 바위에 비하여 비교우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울산바위의 다른 각 편에서는 동자승 대신 원님의 나이어린 7세 아들, 또는 5세의 어린아이, 할아버지의 손자 등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순수한 어린이의 때 묻지 않은 단순한 지혜로 세금을 내지 않게 된 것이다. ‘귀찮으니 도로 가져가라’ 든지 ‘그동안 보관한 보관세를 내라’ 또는 ‘울산바위라면 울산에 있지 여기 있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소유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너무도 평범한 진리이자 생활상의 지혜를 간접화법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중적 지혜와 재능이 합쳐지고 예술적으로 가공된 흔적을 울산바위 전설은 담보하고 있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화소에는 신흥사와 향성사라는 사찰문화를 또 다른 배경으로 하고 있어 불교설화적 양상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계조암 매미와 관련된 이야기에 구체화 되는데 울산바위 아래 계조암이 위치하고 있다.

계조암 매미떼에 관한 이야기도 울산지역과 연관되어 있다. 울산에서 날아온 약삭빠른 매미들이 떼 지어 울었다는 것이다. 도술로 울지 못하는 울산지역 매미의 목까지 대신하여 울어준다는 것이다. 매미울음소리가 요란함을 말하는 것이지만, 울산에서 온 바위가 있다하여 그 연고를 찾아와서 울었다는 地緣性을 보여준다.

19) 단순한 지혜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울산서 바우세를 받으러 오면 우리 양양에는 기묘한 바우가 많어서 좋은 경치를 이루고 있는데 울산바우 같은 것은 아무 볼품도 없어 귀찮으니 어서 가져가라. 그리고 그 동안 물어왔던 바우세를 도로 돌려보내고 그동안 양양서 울산바우를 보관하고 있었으니 그 보관세도 물어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임석재, 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1989, 104쪽) “그런데 울산서 여길 세금을 받아갔거든, 그건 참 너무 억울한 일 아니나, 그래 이제 손지를 업구 돈을 구하러 나섰는데 그 손지가 하는 말이 ‘그거 왜 돈을 주나? 산 가주가라 그래. 산 가주가라, 그럼 되지 워하려 돈을 줘’ 가만 할아버지 손지를 업고 땡기다 보니까는 그 소릴 하는 걸 보니 그럴 듯하단 말이지, 생각해봐 ‘우리가 저 산 출데니 가져가라. 우리 귀찮아’”(윤경문, 강릉어문학 10집) “왜 남의 산을 가져갔느냐 그래 세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세를 받아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다섯 살 먹은 애가 ‘그게 어찌 당신네의 산이라면 거기 있지 왜 여기 있느냐? 울산이 여기 있고 거기 울산바우는 거기 있겠지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도루 찾았다는 거야”(전달재, 남.72) 양양군 강현면 상복2리,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문학대계》 2-4, 1983, 115쪽

다음은 계조암, 달마봉과의 관계이다. 울산바위, 계조암과 달마봉은 일정한 연계성을 갖는다. 울산바위와 함께 달마봉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옮겨왔으며, 달마봉에서 보면 울산바위 아래의 계조암이 마치 목탁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서 목탁바위로 불리는 뛰어난 기도처로서 수도의 도량이라는 점이다. 특히 불교설화적 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정리한 울산바위 전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바위이동과 멈춤, 좌정에 관한 이동화소.

둘째, 바위에 세금을 매긴 것에 관한 부세화소.

셋째, 울산바위 매미 떼 울음에 관한 매미화소.

## V. 울산바위전설의 의미분석

울산바위 명칭에 대한 필자의 箴見은 ‘울산’이라는 고유어의 명칭이 먼저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는산’을 줄여 ‘울산’으로 지칭한 것이 후대에 ‘천후산’이라는 한자어로 정착된 것이다. 우리말로 ‘우는 산’이라 하다가 ‘울산’이 될 수도 있다. 그<sup>22)</sup> 러나 이것도 ‘울산’이 아니라 형태상 ‘울—相’이 아닐까 의심된다. 또한 ‘籬山’은 ‘籬相’으로 즉 ‘울타리상’이 줄어져서 발음상 ‘울상’으로 불리다가 ‘울산’으로 발음전이 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왜냐하면 ‘울산’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위’를 접합한 ‘바위산’임을 관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울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산이 아닌 바위로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20) “저기 저 달마봉하고 울산바우하고 금강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왔거든. 울산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강산이 다 찼다는 얘기여. 오지 말아라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울산바우가 저기메 떡 서선 이젠 못간다그러니깐 달마봉이, 여기가 달마봉이야. 그래 따라 올라오다가, 에휴, 그게 못가면 나두 못가지 뭐… 그래 울산바우가 달마봉이 거기 떨어져 있어.” 『강릉어문학』 제10집, 1995, 231쪽, 윤경문(남.76)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 1994년 10월 3일 조사

21) 『태백의 설화』 강원일보사, 1974, 212쪽 “잠이 들었는데 노승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대는 왜 목탁 속에서 살고 있으며 목탁소리가 어디서 나는 지 몰라 고민하느냐, 날이 밝거든 계조암 앞의 달마봉에 올라가서 계조암을 바라보면 목탁이 보일 것이다.’…다음날 시킨 대로 맞은편 달마봉에 올라가 계조암을 바라보니 계조암의 지붕인 큰 바위덩어리가 꼭 목탁과 같고 그 옆으로 흘러내린 산줄기는 그대로 목탁방망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를 보고 ‘계조암이 바로 큰 목탁이었고 목탁소리는 이 바위에서 났으며 목탁 속에서 수도를 하니 득도가 속하지 않겠는가?’

22)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57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본명이 천후산인데 저게 인제 왜 울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인제 준말이 되어 가지고 우는 산, 우는 산, 우는 산하다가 나중에는 울산, 이렇게 되었던 말이죠.”(장현영, 남.54, 중앙동 500번지, 1981년 4월 27일 조사)

따라서 ‘울산’은 ‘울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의미상 두 가지를 겸한 용어로 볼 수 있다. 이는 소리의 음성적 측면에서 ‘우는 산’의 ‘울상’이고, 산이 지닌 형태적 측면에서 ‘울타리상’을 축약한 ‘울상’에서 파생된 용어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문헌에서 정착되면서 ‘천후산’ 또는 ‘이산’으로 그 의미를 내포하여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지금도 민간에서는 ‘울산바위’로 지속화되어 전승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본래 ‘울상’인 것을 한자로 다르게 부른 것에 불과하다. 한편으로 ‘울산’의 본 음인 ‘울상’이 듣기에 그리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음에 따라 굳이 산도 아닌 이 바위를 ‘울산’이라 불렀을 것으로도 의심된다. 23)

한 가지 더 살펴보자면 ‘울산바위’를 ‘산’으로 볼 것이냐 ‘바위’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 형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바위산이다. 즉 바위가 중심이 된 산이다. 그것에 구멍이 많아서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그 모습이 마치 울타리를 쳐놓은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울산바위’를 ‘울상바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산은 바위도 내포하고 있지만 구전설화 상으로 표현된 것을 분석해 본다면 ‘바위산’으로 ‘바위’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디 이 바위를 ‘산’으로 보아서 ‘울산’이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아직까지 ‘울상’이라 기록된 사료를 찾지 못했다는 점과 고유어의 음성적 표현인 ‘울’에 한자어 ‘산’이 붙은 것은 자연스런 언어관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이든 울상이든 현전하는 울산바위 전설은 산악창조형의 고대전설이다. 조물주나 산신령에 의해 금강산이 형성되었듯이, 설악산 울산바위도 울산에서 설악산으로 왔다할 정도로 우주개벽에 의해 아름다운 바위가 명승을 이룬 것이다. 사람들의 자연관은 이러한 화소를 통해서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울산바위는 ‘울상’도 아니고 ‘우는 산’도 아니라 하나의 장대한 ‘바위’ 일 뿐이다. 거기에 형태적으로 음운학적인 유래를 창의적으로 붙여 흥미로운 집단전승의 이야기로 전승화 한 것이다. 한편으로 계조암, 신흥사와 연관하여 불교설화로서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이 전설은 ‘울산’이라는 지명으로 전승하면서 전설이 지닌 역사성과 전승성, 지역성의 면모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명산 설악산 울산바위는 금강산과 이렇게 연결된 산으로 백두대간에 형성된 산맥과 바위의 창조설화형 전설로 이어지고 있다.

23)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48쪽 김선풍·장정룡 조사 “금강산에 가지도 못하고 철철산중 두메산골 사람도 살지 않는 두메산골에다 가만히 놔두지도 않고 (의덕장사가) 패댕겨쳤으니 어찌 분한지, 울산바위가 아니고 울상바위라 합니다.”(유만석, 남.50, 설악동 170번지, 1981년 4월 17일 조사)

필자가 유만석 제보자에게 들었던 구전설화의 전승적 창작성은 설악산 지명유래를 “왔다고 해서 와선대, 비가 온다고 해서 비선대, 흔들흔들 흔들바위, 올고 앉았다 울산바위, 달려간다 달마바위”라고 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24)

## VII. 맷음말

울산바위는 산이자 바위다. 그러므로 천후산, 이산이라는 이름과 함께 울산바위 혹은 울산암라 하여 바위라는 단어가 보태어져 전승된다. 그러나 대부분 구전되는 설화 각 편에 나타난 것은 한결 같이 ‘바위’로 보고 있다. 사실상 지질학적으로도 울산바위는 ‘울+산+바위’가 아니라 ‘울산+바위’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지명상 ‘울산’이 아니라 ‘울상바위’ 전설로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바위이동형 전설은 후대에 이르러 자연에 人格性을 부여하여 창작된 것이고, 원래 형태는 ‘소리’와 ‘형태’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소리’는 ‘우는 산’ ‘형태’는 ‘울타리산’이라는 용어에서 ‘울산바위’가 탄생했으며, 이것이 지명상 ‘울산’과 동일함에 따라 이동형 전설로 확대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울산바위 산이동 유형은 ‘산’이 아니라 ‘바위’로 보고 ‘飛峰形’이 아닌 ‘失機形’의 ‘岩去와 岩止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9편의 각편 중에서 비봉형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불과 1편이고 負岩形도 1편이고, 대부분 ‘도보형’으로 걸어서 온 것이다.

산이동형의 岩去(바위가 걸어간다. 바위가 날라 간다, 옮긴다) 소재 이외에도 引岩去 즉 장사가 끌고 가거나, 어깨에 메고 가는 유형도 있지만 울산바위 전설은 ‘바위이동형 전설’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것은 산이 아닌 바위가 스스로 ‘날아서 왔다는 유형’과 ‘걸어서 왔다는 유형’ 그리고 타인이 ‘지고 왔다는 유형’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바위가 설악산에 왔다는 것보다는 이곳으로 옮겨온 이유와 그 정착에 대한 설화적 화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야 한다.

울산바위 전설은 ‘울’이라는 접두사에 산과 바위가 합쳐진 용어지만 기본적으로 ‘울’은 ‘울다’와 ‘울타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은 음운론적, 형태론적인 화법으로 집단

24) 《유만석(남.50) 설악동 170번지, 김선풍·장정룡 조사, 1981년 4월 17일, 『한국구비문학대계』 2-4, 강원도 속초시·양양군(1) 1983, 39쪽

전승상 지역민의 창작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바위는 ‘바위’ 가 강조된 ‘울상바위’ 가 그 본래적 형태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후산’ ‘이산’ 등의 한자어로 전승되면서 ‘산’ 으로 인식되었고 지금까지 ‘울산’ 의 ‘바위’ 로 전승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바위 전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대중적 지혜와 창작성, 인격성, 자연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울산바위 전설은 이동화소, 부세화소, 매미화소를 중심내용으로 전승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전설은 설악산과 금강산이 백두대간의 동일 脈絡이라는 親然性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이 전설은 지역성과 자존심을 강조하고 있다. 端役을 거절하고, 좌정한 명산으로 울산원의 부세를 극복한 화소가 이를 반증한다.

셋째, 울산바위의 어원은 ‘울상바위’ 에서 근원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술발음상 ‘울상’ 이 ‘울산’ 으로 구현되면서 移動形 전설을 집단 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로 이 전설은 계조암, 달마봉과 연계되어 하나의 명승권역을 이루고 불교문화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이 전설은 가장 한국적인 失機形 바위이동 전설로 의인화와 인격화를 통해 대중적 지혜를 드러내고 자연친화적 사상을 발휘하고 있다.

## [참고문헌]

- 金道東, 全鮮名勝古蹟, 1927  
崔南善, 朝鮮의 山水, 東明社, 1947  
江原道體育會, 江原名勝古蹟, 1959  
文教部, 雪嶽山, 1967  
黃道根, 國立公園 雪嶽山, 通文館, 1973  
太白의 說話 (下), 강원일보사, 1974  
崔來沃, 韓國口碑集說의 研究, 一潮閣, 1981  
東草市, 雪岳의 뿌리, 1983  
임석재, 한국구전설학, 강원도편, 평민사, 1989  
襄陽郡, 襄州誌, 1990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박현균, 조선사화전설집 1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리동원, 조선구전문학연구,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장정룡·양언석, 속초지역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두창구·김경남, 고성·속초지역의 설화, 국학자료원, 2000 24)  
한정규, 옛 문현속의 속초, 속초문화원, 2001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속초시·속초문화원, 설악산의 역사와 문화, 2003

## 속초 도리원농악 전승실태

이 자료는 속초도리원농악 전승실태를 위한 보고서로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한 속초도리원 농악의 원형을 연구한 자료이다. – 편집자 주-

□ 책임연구원 : 장정룡(강릉대 교수)

□ 보조연구원 : 박치영(시립풍물단), 주동진(시립풍물단), 조현정(소야초등학교 교사)

### I . 속초시 도리원농악의 개요

도리원은 노학동에 속한 마을로 물레방아간이 있었으며, 예로부터 농토가 잘 형성되어 전형적인 농촌이다. 농악놀이도 오래전부터 전승되었는데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고증에 따르면 1900년 이전부터 마을에는 농악대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며, 지금도 속초시에는 노학동 도리원 마을만 유일하게 농악이 전승되고 있다.



속초의 민속놀이는 다른 지방에서 행해지는 윷놀이, 씨름, 그네타기, 줄다리기, 농악놀이, 사자놀이 등이 연중 이루어지는데 1) 가운데 논뫼호불꽃놀이, 만천동나룻배싸움, 속초든대질놀이 등이 호수, 바다의 특징을 갖춘 놀이로 전승되고 있다. 아울러 도리원농악은 전형적인 강원도 동해안 영동농악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는데 2) 해 농사의 전 과정

1)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1쪽

2)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년, 18쪽 “嶺東農樂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강릉, 삼척, 울진, 정선, 평창, 동해, 고성 등 강원도 동해안 일대와 동해안 지역에 임해 있는 일부 경북지방에도 파급되어 있고, 길주와 함주 등지의 함경도지방의 농악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을 놀이로 품 농사풀이와 함께 뱃고사가 강조되는 등 속초의 해양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동해바다와 인접한 속초지역의 특성상 새로 배를 만들어 띄우는 ‘설망’ 때 바다에 배를 내리는 든대질을 하고 난 다음, 무녀가 축원굿을 하고, 도리원농악대가 뱃고사 농악을 치면서 항구를 한바퀴 돌아 풍년을 기원하던 것이 일상적 과정이었다.

도리원농악대는 1930년부터 대포동 별신제 굿놀이와 고성 아야진 별신굿에 초청받아 성대하게 농악공연을 했으며, 정월달에는 거진읍, 양양 강현면 일대 농가의 초청을 받아 일주인간 머물면서 여러 마을에서 대보름 걸립농악을 했으며 이때 모은 걸립기금으로 소야천 큰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도리원농악은 1900년대 이전부터 활동하였는데 당시에는 김경대, 최정수 씨 등이 중심이 되어 걸립굿과 뱃고사가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1910년대에 이르러 강릉에 살던 경기도 출신 이설기 씨가 이 마을에 정착하면서 도리원농악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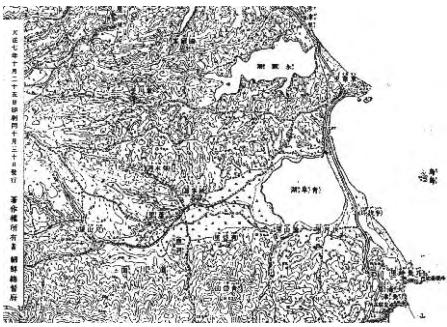
초기 농악은 대체로 영동지역 농악과 비슷하게 편성되었으나 경기지역과 강릉에서 농악대원으로 활약했던 이설기 씨에 의해 경기도 웃다리농악의 섬세한 가락과 동작이 반영되었고, 강릉농악의 특징인 농사풀이가 접맥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이설기 씨에게 쇠를 배운 엄상원 씨가 농악대를 이끌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나 전형적인 농촌마을인 도리원에서 농악놀이는 자연 발생되었다. 그러나 외부의 요인에 의하여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도리원지역이 청호동, 동명동, 영랑동 등 어촌과 인접한 까닭에 뱃고사굿이 발달한 것도 도리원농악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이들의 활동은 인근 고성지역과 양양까지도 알려져 도리원농악의 뱃고사굿은 대표성을 띤 농악놀이로 폐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속초도리원농악은 백년전통의 고유한 농촌서낭굿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뱃고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기농악과 강릉농악의 장점을 계승한 영북지역 유일의 농악대라는 영예로운 전통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Ⅱ. 도리원 마을의 역사와 지리

속초시는 해안에 접한 구릉지와 저지대로 형성되어 내륙 쪽은 농사짓기에 적합한 지형을 갖추고 있다. 1860년에 편찬된 《관동읍지(關東邑誌)》에 보면 도문면(道門面)에 538명, 소천면(所川面)에 668명 등 총 1,206명이 거주하는 등 비교적 인구의 밀집현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설악산 계곡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쌍천 인근 도문동 일대와 달마봉에서 시작하여 노학동 도리원 앞의 평야지대를 지나 청초호로 유입되는 청초천 주변에 농토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도문면의 상도문리, 하도문리, 물치리 등은 풍부한 수원에 힘입어 평지의 논농사가 활발하였고 소천면의 논산리, 부월리 등에서도 주민들이 잘 발달된 평야지대를 끼고 농토를 경작하였다.



1918년 도천면 지도. 이 지도를 보면 도리원(桃李源)의 모습과 앞바덩의 넓은 농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말 속초 도리원의 모습

도리원(桃李源)은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소천면 논산리에 속하였는데 노학동 지역 동북쪽 둔덕 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악산 자락 끝에 넓은 소야평야 들판을 끼고 있다. 이곳의 농토 넓이는 390여 정보로 한 해 약 3,600석이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게 됨에 따라 농악놀이가 오랫동안 전승되었다.

도리원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천면 노리(蘆里, 노동)가 생기면서 노리 마을 뒤 안쪽 둔덕에 마을이 있다하여 ‘뒤안둔덕’ ‘뒤란덕이’ 라 부르던 것이 ‘되란덕’ 이 되고 이러한 발음을 따서 한자로 바꾼 ‘도리원’ 이라 정했다고 한다. 3)

또한 이 마을에는 복숭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 불렸다고도 전하는데 소야벌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에는 도원홍우(桃源紅雨:도리원리에 복숭아꽃이 떨어지는 것이 붉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아름다운 경관)와 척산야침(尺山夜砧:척산마을에서 옷감을 다듬어 질 하는 밤의 경관)이 들어 있다.

3)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196쪽

이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복승아꽃과 다듬이질 경관이외에도 소야팔경(所野八景)을 기록한 『도천면 면세일반(道川面 面勢一班)』(대정15년, 1926)에는 또다른 팔경을 언급하였다. 즉 청호마경(靑湖磨鏡), 속초귀범(東草歸帆), 주교야화(舟橋夜火), 논산조양(論山朝陽), 온정조하(溫井朝霞), 노동명월(蘆洞明月), 청대화병(靑岱畫屏), 이동백설(梨洞白雪)이 들어 있는데 노학동과 청초호 일대의 아름다운 팔경을 언급한 것이다. 속초시에서는 이 마을을 전통민속마을로 지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 마을은 노학동 지역 동북쪽 둔덕지대에 위치한 마을로, 약 5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이전에는 노학동 지역이 전부 중심마을 노리에 속하였듯이 본래 蘆里에 속하였으나, 인구증가에 따라 1942년 행정상 노리에서 분리되었다가 1966년 동제 실시에 따라 다시 노학동으로 합쳐졌다. 한자로는 桃李源으로 표기하나 구전으로는 ‘되린덕’이라 부른다. 이 마을은 복승아나무가 많아서 도리원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복승아 桃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오얏 李에 대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위의 설명은 도리원이라는 한자표기에 의거하여 후대에 만들어진 설명인 것 같다. 그것보다는 도리원이 인구가 적어 노리에 속할 때 노리 마을 뒤안쪽 둔덕이므로 뒤안둔덕, 뒤안덕, 뒤란덕이라고 하던 것이 ‘되린덕’으로 변하고, 이것을 한자로 유래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비슷한 도리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도리원을 속칭으로는 되린덕이라고 한다.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주업이 농업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농악대를 구성, 각종 마을행사로 전통적으로 농악대를 구성, 각종 마을 행사에 참여해왔다. 도리원농악은 흥겨우면서도 부드러운 삼채덩덕궁 가락이 특색인데 영북지역을 대표할 만하다. 이 농악대는 명절에는 마을의 길복을 기원하기 위해, 농번기에는 노동악 형태로, 농한기에는 마을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 그리고 입신출세자 등 특별히 경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경축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며, 추수 후에는 풍년마당놀이를 크게 벌이곤 하여, 인근주민들이 축제를 관람하러 오기도 했다 한다. 상쇠, 무동, 상모꾼, 악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6년 이 지역 향토축제인 설악제에 출품되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4)

이 지역은 1966년 동제도가 시행되면서 노리,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 신흥리를 합쳐 노학동(蘆鶴洞)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리가 신설되었는데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노리는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를 포괄한 4개동으로 나뉘었고, 1962년에 이곳 뒷버.Networking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단 이주함에 따라 신흥리가 시설되었다. ‘노학’ 이란 이름은 노리의 ‘노’ 와 척산리 학사평의 ‘학’ 자를 딴 것이며 당시에 노리 지역이 합쳐져 노학동이 되었다. 이 곳에 전하는 지명유래는 다음과 같다.

4) 강원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1994, 60~61쪽

예전에 노학동이라는 게 노리, 갈무리라는 게 전문대학 있는 데가 노리거든. 노린데 노리가 네 개 부락이여. 네 개 부락은 도리원, 이목, 노리, 척산 그래서 일정 때도 이 네 개 부락이 두 개 부락씩 도리원, 이목리 한 부락이 되어 가지고 서는부장이 나와 가지고서는 이제 이 부락일을 보고 척산, 노리 가지고 한 부락이 되어서 보고 이리다가, 아 그게 일정 때 대동아 전쟁나기 그 무렵은 아주 통합이 됐어. 노리가 그 네 부락이 그래 가지고선 부장이 하나 나가지고서는 네 개 부락을 총지휘하고 그랬지. 근데 이제 노리는 왜 노리라 했냐면 거기 이 갈 노(蘆)자 갈대가 많아. 제일 누가 정착을 빨리 했냐면 서씨네. 저 지금 차씨네가 그 다음, 이 씨네가 정착을 했어. 제일 최초에 이제 서씨네가 하고. 그래 이제 도리원은 왜 도리원이라 했냐하면 복상나무 꽃이 피서. 거기 이제 양지천이거든. 그래서 도리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부락이름을. 또 이목리는 왜 이목리라 했냐면 배꽃 이(梨)자 배나무꽃이 이젠 봄이면 하얗게 피고, 예전인 제 개척 시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말이여. 부락이름을 척산은 왜 척산이라고 짓나 하면 이 척산 쪽 올라가면 원쪽으로 올라가면 판봉이라는 데가 있어. 판봉이 왜 판봉이냐 하면은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여기는 양짓마을이고, 온천장 너메 양지마을이고, 요건 중간 마을은 큰 솔대가 있으니 큰 솔대가 있어. 거기를 중간마을이라고 해서. 판봉은 이제 이 지금 온천장인가 이쪽으로 너메로서 여관이 하나 있지. 개바닥에 여관 뒤로 올라가면 외판봉 있는 게 자 척(尺)같애. 그래서 거 자 척자 같다 그래 가지고서 그 자 척자를 써서 척산이라 한다. 지명을 그렇게 짓고 쭉 내려와요 5)

노학동 ‘학(鶴)’에 대한 전설은 척산 목우재와 달마봉 사이에 있는 파명당(破明堂)터의 유래에 근거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명당자리를 몰래 팠더니 그곳에서 세 마리의 학이 나왔는데 한 마리는 양양으로 다른 한 마리는 보광사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가 이 마을에 날아와 앉았다고도 전한다. 이처럼 도리원 지역은 속초에서 유일하게 소야천 강변을 끼고 넓은 농토를 확보한 평야지대로 물레방앗간과 초가집이 아름답게 펼쳐진 농촌 마을이었으므로 농악발생의 자연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사평과 관련된 파명당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이곳 노학동에는 다음과 같이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곳에 이씨 성을 가진 대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이씨 집안에는 대대로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한 사람도 많고 학문의 경지에 오른 대 학자도 많이 난 명문대가입니다. 그렇게 명성과 학문을 날리던 그 이씨 집안은 어느 때 부터인지 점점 가문이 기울기 시작하여 과거에 급제하는 일도 거의 없고 대학자도 나타나지 않고 가문의 명예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불순한 일도 가끔 발생하곤 하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자 이씨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서 대

---

5) 필자조사:김종태(남.83) 속초시 교동, 1999.11.25

가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의논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당시만 하여도 풍수지리설을 매우 신봉하던 터이라 지관을 모셔다가 선조의 묘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묘소 앞 편에 산사태로 산이 많이 유실되어 나간 곳을 알게 되었데요. 그 지관은 유실된 그 곳을 유심히 이리저리 살펴보기 시작하고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곳이 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이 유실된 이 자리가 설악산 중에서 최고의 명당터일 줄이야. 그리하여 그 지관은 그 같이 갔던 이씨 문중의 어른들에게 여기가 설악산 최고의 명당인데 이렇게 유실되었으니 이씨 집안의 운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일러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중 한사람이 “그럼, 지관 어른, 이렇게 명당이 유실된 파명당이 되어 우리 가문이 쇠하게 되었는데 뭐 좀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그 중 또 한사람이 “지관 어른, 속는 셈치고 그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들이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니 그 방도를 일러주시지요?”

그 지관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일러 줄 터이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명당을 복원하여 후손이 흥하고 보궁받은 일이 가끔 있기는 하였는데 하여튼 이 파명당을 다시 복원하여 보시지요.” 그래서 그들은 일꾼을 얻어서 파명당 자리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다지고 하여 한창 공사를 진행할 즈음에 이 이씨 문중에 가장 나이든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문중에서는 이 어른을 모셔야 될 산소자리에 관하여 의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명당 자리에 모셔야 우리 후손이 복을 받고 길할 수 있다”는 의견과 “아직 다 복원도 안 되고 또한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이 명당의 기운을 받느냐”는 신중론이 대립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갑론을박하여 몇 차례 다시 만나 숙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문의 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인지라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가문의 제일 연로하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니 복원하는 파명당 자리에 모시기로 의논을 모았어요. 이 사실을 지관과 의논하였더니 그 지관은 한참 생각하다가 “그리면 묘자리를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단단히 일러 주었어요. 인부들을 시켜서 묘자리를 만들기 시작하여 정해진 깊이만큼 파내려 갔는데 한 인부가 잘못하여 그 깊이 이하로 삽질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땅이 움직이더니 허얀 학 두 마리가 광채를 발하며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놀라고 황홀하여 한참 동안 정신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대요. 학 두 마리는 하늘을 몇 번 선회하다가 한 마리는 지금의 학사평 쪽으로, 또 한 마리는 양양 쪽으로 날아갔다고 해요.

원래 학사평은 옛날에 시인 목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많은 선비들이 이곳을 출입하여 왔다고 하여 학사평을 배울 학(學), 선비 사(士), 평야 평(坪)하여 학사평(學士坪)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이 내려앉고부터는 또한 모래도 많고 하여 학 학(鶴), 모래 사(沙), 들 평(坪)하여 학사평(鶴沙坪)이라 하였어요. 이 학은 여기 학사평에 잠깐 내려앉았다가 지금의 노학동으로 날아 가버렸어요. 노학동은 원래 노동 즉 갈대가 많은 고을이라 하여 갈 노(蘆), 고을 동(洞)하여 노동이었는데 학이 왔다하여 노학동으로 불리게 되었고, 한편 양양 쪽으로 날아간 학은 양양에 학포리(鶴浦里)란 지

명을 얻게 하였다고 합니다. 6)

노학동에 편입된 학사평은 예로부터 배우는 학자가 많아서 학사평(學士坪)이라 했는데 그것을 예언이라도 했듯이 이곳에는 대학이 들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 목우재 파명당의 학이 날아간 양양지역에는 학이 내려와 앉듯이 국제공항이 생겨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있다. 학사평은 일설로 흑사평(黑沙坪)이라 하여 소야천 주변에 형성된 늪지의 점은 뺨로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며 도리원 지역은 과수원이 많아서 유래한 것으로 전한다.

도리원은 복숭아나무라든가 배나무꼴 이목리 같은 경우 옛날 배나무꼴이라고 해서 마을명이 그렇게 명명이 돼서 이목리, 도리원리 그런식으로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신흥촌이라든가 자활촌같은 경우 아주 최근에 60년대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은 박정희 정권 때 정화차원에서 그 재건활동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자활촌 같은 경우는 60년대 집단이주 정책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쪽에는 허허벌판였거든요. 황무진데 주로 충남 쪽의 논산사람들이나 연산사람 등 그 사람들이 이제 강제 이주가 됐어요. 지금은 자활촌과 신흥리 마을쪽에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가지고 재건촌을 형성하게 됐어요. 재건촌 그게 이제 의미가 승계되면서 자활촌이라고 명명이 되면서 60년대 이후 향촌이 생겨진 그 경우라서 역사성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흥리 마을이라든가 자활촌마을이고 흑사평은 펄(뻘)판이예요. 원래 이름이 흑사평이예요. 척산마을은 그렇게 설명이 되고 노리마을은 역사성을 갖고 그 다음에 도리원리와 이목리 같은 겨우 배나무꼴이라든가 복숭아 주로 과수원이 많이 형성되었던 지역이예요. 지금도 가보게 되면 도리원이라든가 이목리쪽은 좀 덜한데 응곡쪽에는 과수원이 많아요. 그쪽에 과수원마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인 노학동의 명칭에 대한 연혁은 그렇게 되요. 7)

---

6) 장정룡,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35~37쪽

7) 필자조사:김철환(남.37), 속초시 노학동, 1999.11.20

### III. 도리원농악의 전승과 내용

#### 1. 도리원농악의 유래와 계승

도리원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지금부터 500년 전 쯤으로 추정되는데, 농촌의 농악이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00년대 초로 추정된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농악놀이가 전승되었는데 1910년경 경기도 출신으로 옷다리 농악대원이었던 이설기씨가 강릉에 살다가 이곳에 이주 정착하면서 농악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마을에는 김경대, 최경수 씨 등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의 농악대를 이끌고 있었으나 이설기 씨가 가세하면서 도리원농악이 크게 발전하였다.

경기도와 강릉에서 활동하면서 농악놀이에 재능을 가졌던 이설기 씨에게 쇠를 배운 엄상원 씨(남. 89)가 20세부터 현재까지 도리원농악 상쇠를 맡고 있다. 본래 도리원 출신인 엄상원 씨는 상벅구를 맡았던 부친을 따라 무동으로 처음 농악을 시작했으며 당시 상쇠였던 이설기 씨에게 체계적인 농악을 배우고 상쇠를 맡았다고 한다.

우리 아버지도 농악대에서 상벅구를 했거든. 아버지가 하두 따라오라구 해서 따라 나갔는데 무동을 하라는 거야. 그때부터 무동을 했지. 그때 농악은 영동농악두 쪘금, 저기 농악도 쪘금해서 농악대를 꾸려 가지구 설라무네 그걸 농악대라고 해서 다녔지. 그래도 가락은 빨라가지구 경중경중 뛰어다녀서 힘들어서 숨이 목까지 달렸어. 1910년에 그때 경기도에 이설기란 양반이 도리원에 살라구 왔는데 쇠를 잘 쳤지. 그 양반이 경기농악을 가르쳤다고 하더래. 그래가지구 마을농악대가 그 양반한테 도리원농악을 맡겨 가지구 다른 도리원농악이 맹글어 지게 된 거지. 그렇게 되니까 사방에서 와서 놀아 달라구 하는거야. 그때 생각하믄 지금도 어깨가 들썩이지. 놀이두 많이 해가지구 오믄 돈두 벌구 쌀두 많이 벌구했거든. 그래 가지구 동네 앞 콘크리트 다리를 맨들었던거지. 나두 상무동을 하다가 폼새가 났거든. 그래서 이설기 양반이 “쇠를 해보지 않겠냐” 구 해서 “배우구 싶다” 구 했더니 갈켜주더라구. 그러다가 도리원 상쇠가 된거 아니우. 8)

한편으로 도리원농악대의 잡색인 ‘화댕이’로서 양반역을 맡고 있는 김동섭 씨(남. 76) 집안도 도리원농악의 전승에 큰 기여를 했다. 김동섭 씨 부친인 김경대 씨는 농악대에서 부쇠를 쳤고, 동생 김동수 씨는 벽구놀이를 잘했다고 한다.

8)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우리 조상이 전부 농악을 했어. 할아버지두 아버지(고 김경대, 부쇠), 작은 아버지(벽구), 동생(김동수, 벽구)다했는데 나는 따라만 다녔지. 그래서 도리원농악을 다 알지. 어릴 적에 어머니 등에 업혀갔구 따라 맹겼는데 그 때는 마을회관 앞에서 매일 하다시피 했어. 그때 상쇠에 이설기, 부쇠에 우리 아버지, 부쇠에 이호영, 새납에 최종수, 무동 염상원, 벽구에 양춘석, 김동수 등 등 수도 없었는데 가락이 빨라 가지구 보면 전부 숨이 목까지 찾는데도 엄청 놀았지. 무척 보기 좋았어. 설날하구 대보름에는 크게 놀았구 이리저리 맹기는데 아녀자들이 바깥을 못 나가자누. 그래서 무동을 15세되는 애들루 여자루 맹글어가지구 놀아주러 갔다오믄 돈두 벌구 많이 벌구 올꺼 아니우. 그래서 다리 두 놨지. 6.25가 나서 잠깐 중단됐는데 그 후에 다시 농악대를 맹글어서 다니는데 아래 와 저 경기도두 다니구 그랬어. 농악이 이설기가 경기에서 선생을 했다구 그래. 도리원에 와서 갈켜가지구 양양이나 그 아래 지역에서 배우러 오구 그랬었지. 9)

이상의 고증에 따라 도리원농악 초기 1기의 구성원을 정리하면 김경대(쇠), 이설기(쇠), 이호영(부쇠), 오창근(새납) 김주섭(복), 최경수(새납, 고사반), 김동수(벽구), 양홍석(벽구), 김종대(벽구), 이호준(벽구), 이세열(벽구), 김세열(복), 장기순(무동), 윤기준(무동), 최식중(무동), 이계춘(무동), 양춘석(무동) 씨가 1세대로 활약하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는 광복절 기념 농악대회가 열렸다. 당시 강릉, 양양 등지의 농악대도 참가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도리원농악대가 우승을 하였다. 당시에 무동으로 참가했던 최식중(남.71) 씨의 고증은 다음과 같다.

최:오래 되었지요. 연도수가 오래되었어요. 강릉 저 주문진 사임당 거기 갔다오고. 팔 일오 경축할 때 양양이고 거기에 갔고. 그전에는 속초에 팔일오 해방경축으로 여기서 시합을 하면 강릉에서 오고 고성에서 오고 양양에서 오는데 일구 거기서 했는데 농악시합을 했어요. 거기서 도리원이 최고 일등을 했어요. 팔일오 해방 때, 해방 기념으로 인공 때부터 했어요. 축구경기, 운동회예요. 거기에서 농악경연을 했어요. 그전에 일구시장 이거든. 도립병원 있던 자리 그 앞에 바닷가에. 영랑동이 거기가 중심이예요. 고 밑에시장이거든. 바닷가 거기, 부둣가 거기에서 했어요. 팔일오 해방을 경축하는 뜻에서 농악도 하고,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회를 했어요.

조:거기서 농악대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디서 왔나요?

최:강릉도 오구, 북평도 오구, 양양도 오구, 주문진에서 오구.

조:누가 심사를 했나요?

최:그전에 여기가 면사무소잖아.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지.

조:그러면 상장도 받으셨겠네요?

최:그럼, 그게 불타 가지고 다 없어졌지요. 일등을 했어요. 상타 가지고 그날 밤새 놀았어요.

9)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이와 같이 전성기를 누렸던 도리원농악은 1950년 6.25 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후반기에 다시 활발한 활동을 펼쳤는데 거진, 삼척, 경기 수원 등지에도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으며, 무동은 15세 전후의 남자아이들이 맡아서 했다.

최:제일 우두머리 오야지가 이설기, 두 번째가 최경수 이 양반들은 한꺼번에 같이 했어요. 거기 제일 주모자가 최경수지. 고사고 뭐고 돈벌이는 그 양반이 다 별은 거나 한가지지. 그 다음에는 북치고 장구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이(김)세열, 그 양반이 벽구잽이거든, 벽구잽이 오야지, 병거지 돌리는 거. 고담에 저 아래 대영이 아버지라고, 그 양반 이름도 까져먹었네. 거기에 제일 어린 것이 벽구잽이 양춘석이. 벽구가 팔벽구니까 제일 귀여움 받았어요. 병거지도 잘 돌리고, 저 거진 가서 제일 대우 잘 받았지. 거진 어판장 부둣가 살풀이할 때 어판장 지을 때 대우 잘 받았어요. 거기서 봉포 다니며 일주일씩 있었어요. 배타는 사람들 집은 거진 다 갔어요. 배타는 사람들이 “우리 집으로 가자”고 끌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부락책임자가 따라 다녀요. 10)

속초유일의 농악대로 활약을 거듭하였으나 1970년대 농촌의 고령화와 이동현상 등 인구의 축소로 전승이 어려워져서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런 가운데 설악문화제를 기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는데 1986년 설악제 당시 도리원풍년 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과거의 농악대가 행했던 농사풀이를 살리고,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도리원농악대를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속초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도리원농악대를 재건하여 1992년 설악문화제에는 동대항 농악경연을 개최하고 1995년 12월 29일 도리원농악대 옛 구성원이었던 엄상원, 양춘석, 최철수 씨를 중심으로 재 창단하게 되었다. 이들이 도리원농악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원은 28명으로 갯마당풍물단 5명과 도리원농악대 상쇠 엄상원 씨가 다시 팽과리를 잡고 정훈, 장기순, 이호성 씨가 참여하고, 장구는 김종인, 정한섭 씨 징은 이주복, 최식윤, 김기영, 북은 양춘석 기타 13명으로 구성되었다.

도리원농악의 3세대는 속초풍물단원인 갯마당이 합세하면서 새롭게 전승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1996년 제77회 전국체전 시연, 설악문화제 공연, 제15회와 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속초시 대표로 참가하여 공로상 등을 수상하였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는 작품성을 인정받아 ‘도리원농악’ 출연단의 상쇠 엄상원 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차지하였다. 현재 도리원농악은 고령이지만 1세대 초

10) 필자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 2008.1.31

창기 대원인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 씨가 중심이 되어 잊혀졌던 판굿과 가락을 되살리고 젊은 대원들이 합세하여 속초농악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마을태생으로 어려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농악대 무동을 했던 양춘석(남.64)씨는 당시에 어른들이 “농악을 하라고 하면 안할 수가 없었다”고 구술한다. 이와 같이 도리원농악대의 전통은 대를 이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속초도리원농악의 시작은 현재의 시점에서 추정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1900년부터 1950년까지를 제1기라 할 수 있다. 6.25전쟁 등 혼란기를 지나 안정기에 들어서는 1960년대부터 새롭게 재창단되는 1990년대까지를 제2기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젊은이들이 참가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확보되고 속초시에 시립풍물단과 도리원농악단이 창단된 현재까지를 도리원농악의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 2. 도리원농악의 구성과 마당

도리원농악대의 놀이마당은 걸립굿, 서낭굿, 뱃고사굿, 농사풀이, 진놀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농악대는 정초 대보름부터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음력 2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마을이나 외부의 걸립굿을 하기 전에 항상 마을서낭당에 가서 마을안녕과 풍년을 기원하였다. 농악대가 외부로 출타하거나 다리가 나올 경우 “다리다리 잘넜다 칠령 칠령 건네서”라는 장단의 다리굿을 치고 통과한다. 동해안을 끼고 있는 속초지역 특성상 뱃고사에도 농악대가 참여했으며 농사풀이와 다양한 형태의 진놀이도 구성되었다.

## 1) 걸립굿

도리원농악은 정월대보름을 기점으로 마을 서낭굿과 집돌이를 하고 이로부터 2월 15일 영등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날까지 걸립굿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마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걸립을 위한 전문걸립패를 농악대 안내자격인 ‘질라래비’가 이끌며 인근의 여러 마을을 다녔다고 한다. 걸립농악패는 농악대원 가운데 고사를 잘 올리는 사람이 앞장을 서서 행하며 서낭걸립, 동사걸립, 다리걸립 등 마을기금을 모금하였다.

농악대의 걸립 시에는 끝무동이 징으로 쌀이나 돈을 받았다고 하며 걸립고사는 새납을 불었던 최경수 씨가 주로 맡아서 했다고 한다. 그는 날라리도 잘 불고 고사반도 대단히 잘 했다고 전한다. 걸립(乞粒)은 본래 절을 중건할 때 민가로 다니며 경문을 외거나 염불을 하여 시중받는 일로 걸궁이라 했는데, 후에는 놀이패가 가담하여 집집마다 다니며 고시를 해주고 돈과 쌀을 걷는 전문적인 걸립패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의 농악을 걸립굿이라 하는데 순서는 지방에 따라 다르나 집돌이는 문굿·샘굿·마당굿·조왕굿·터주굿·장돗굿·성주고사·인사굿 등으로 되어 있다. 11)

조: 그러면 농악대에 상쇠도 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적고, 쌀을 걷는 사람이 있나요? 대방, 영좌 이런 직함이 있나요?

김: 총무가 있지요. 해영이 아버지가 그걸 했잖아요. 맨 앞에서 가면서 마을 구장한테 가든지 동네 죄장한데 가서 “우리 도리원 농악대가 들어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앞에 가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질라래비’라 그래요. “질(길)을 알으켜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예요.

조: 이런 말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총무지요?

김: 질을 가르쳐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안내자지요. 쌀이 얼마나 오고, 한갑수 그 양반 말대로 순수한 조선말이예요.

조: 농악대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섭외를 하는데 그 역할 하는 분을 ‘질라래비’라 했지요. 그것을 누가 잘 하셨어요?

김: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해영이 아버지, 이계춘 씨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조: 질라래비는 농악을 안하지요?

김: 그럼요. 어디로 간다고 안내하지요. 안면이 많은 분이 하지요. 12)

조: 그러면 어디어디 가서 농악하셨어요?

장: 복골, 장재터, 이 시내를 다 했어요. 음력설 셋다 하면 정월달 내로 돌아댕겨요. 척산 뭐 절로 다녀요. 청대리고 뭐고. 그때는 뭐 차가 있나 밤중에 왔지, 걸어서 열두시 넘어서 들어오지요.

11) 《한국민속대사전》(1) 민족문화사, 1991, 85쪽

12) 필자조사: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김:집에 있어보면 저기서 농악 치면서 와요. 우하고 나가보면 대단하지요.

장:그래서 쌀을 벌면 동네로 짚어지고 오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질꾼이 따로 있어요.

조:그러면 한번 가면 쌀이 얼마나 겉하나요? 한 가마니씩 겉나요?

장:아유, 한가마니가 뭐예요. 몇 가마니 씩이예요. 한 집에서 한 말씩 내놓으니까요.

그러면 집집마다 고사 드려 줘야 되요. 그러면 돈 내놓고 실 한 뭉탱이 내놓는 집  
도 있어요.

김:자손들의 명이 길게 해달라고 실을 내놓아요. 쌀은 말에다 수북하게 내놓아요.

장:한번 나가면 쌀 열댓 말씩 거둬가지고 와요. 집에 가면 부엌에 가서 신에게 쳐달  
라고 해서 치구 또 된에 가서 치구, 마당에서 치구 그래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때는 무동도 같이 따라 다니나요?

장:그럼요. 같이 따라 다녀요. 쌀 받고, 돈 받고, 상에다 놓으면 받는 거는 무동이 받  
아요. 증(징)에다 받아요.

김:제일 꼬마무동 끝무동이 재롱스러우니까 가서 징을 가지고 가면 쌀을 거기다 주지  
요. 13)

조:무동하시다가 벽구하셨나요?

최: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동 팔벽구 그래요. 소고도 있었어요. 여기는  
장구잽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팽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벽구가  
팔명, 무동 팔명 그렇지요. 그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잽  
이, 화댕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  
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다니면 애먹어요. 14)

농악대원들은 걸립을 통해서 공동의 마을숙원사업을 해결했는데 마을의 다리를 놓거나  
동사를 짓는 등 기금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마을 자체적으로 도리원 동사 앞마당에서  
어린이나 청장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전수활동과 농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 2) 서낭굿

도리원농악은 전통적 마을에서 행해지는 마을서낭굿농악의 흔적도 발견된다. 서낭제는  
매년 3월과 9월 길일인 삼짓날과 중구절에 지내는데, 황소 한 마리를 잡아 생육으로 제  
물을 사용할 정도로 마을서낭제는 중요하고 성대했다. 이때는 쇠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  
러나 마을농악대가 외부로 공연차 출타할 경우 반드시 ‘질꾸내기’를 치면서 마을서낭당  
을 들렸고 돌아올 때도 무사히 귀가한 것을 고한다고 한다. 서낭당에서 입출입 고사를

13) 필자조사:장기순(남.62),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4) 필자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울리며 치는 상쇠의 쇠소리 구음도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 이다.

이처럼 도리원농악대에는 반드시 서낭대를 앞세우고 다녔다고 하는데 서낭대를 ‘신대’라고도 부르며 왕대나무에 삼베와 한지를 걸었다. 이른바 이동서낭신으로 마을 서낭신을 농악대의 신격으로 받들었음을 알 수 있다. 도리원서낭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반드시 황소 생육을 썼는데 소의 껍질을 말려 농악대원들이 손수 북이나 장구를 만들었다고 한다.



조: 서낭대도 있지요?

최: 서낭대는 왕대로 만들어요. 깃발 들고, 한 사람은 서낭대 들어요. 그러니 두 사람 이 들지요.

조: 한 사람이 든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것을 들지요?

최: 서낭대는 대나무에 깃발을 달지요. 삼베를 한 발 정도로 해서 거기에 달지요. 그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왕대에 이파리 덧개 달린 거에 삼베를 걸고, 한 지도 달아요. 주령주령 달지요. 15)

서낭대는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농악에서도 있었다. “10尺 정도의 대나무로 깃대를 만들고 生葉枝를 깃대 끝에 달고 그 밑에 白紙를 그물처럼 오려 만든 것을 길이 6尺 정도 되게 단다.”<sup>15)</sup> 고 한 것으로 보면 유사하다. 동해시 괴란농악은 고청제라하여 성황굿을 치는데 서낭목이 등장한다.<sup>16)</sup> 이러한 서낭굿 농악대를 ‘굿중패’라고도 부르는데 당산제, 성황제, 부락제, 고사제와 같은 굿의식과 결합되어 있었다는 의미에서 ‘농악제’라고 불렸다. 그러므로 벽사진경의 굿의식과 결부된 농악을 ‘매구’, ‘매굿’, ‘지신밟이’라고 하였으며 그것을 담당하는 농악대를 ‘굿중패’라 불렀다.<sup>18)</sup>

15) 필자조사: 최식종(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16)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8책, 강원도편, 1977, 535쪽

17) 장정룡, 〈동해시 괴란동 고청제농악 전승실태〉 《강원민속학》 제21집, 2007, 589쪽

18) 장정룡, 〈동해시 괴란동 고청제농악 전승실태〉 《강원민속학》 제21집, 2007, 589쪽

노학동은 도리원, 이목리, 노리, 척산, 응골, 신흥1리, 신흥2리, 학사평, 자활촌 등 전체 9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4개 마을에 서낭당이 있었다. 1997년 조사당시 도리원리, 이목리, 노리, 척산리에서 서낭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춘추로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 두차례 제를 지내고 있었다.

척산리의 경우 성황지신, 여역지신 이외에 전조지신(田租之神)을 모신 점이 특징이었으며 학사평은 남서낭신이고 척산은 여서낭신이라 하였다. 19)들 가운데 오랜 전통을 지닌 도리원마을은 과거에 제답(祭畜)이 있어 이곳에서 나오는 소출로 춘추로 동제를 지냈다. 또한 이 마을 농악대가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서낭당에 들려 고하고 나갔으며 서낭대를 모시고 다녔다.

이 마을의 동제는 봄과 가을에 택일하여 지내는데 음력 3월 3일과 음력 9월 9일에 지낸다. 제당 인근에 살고 있으며 고추농사를 하는 변경용(남.64) 제보자에 의하면 100여 호 세대에서 제사에 참가하며 제관은 10여명 내외라고 한다. 제물은 메 한 그릇, 해물, 떡 등을 정성껏 장만하며 축문을 읽고 각자 소지를 올린다. 당집은 없으나 마을 입구 둔덕 길 옆 솔숲에 제단을 만들어 놓았으며 주변에는 1m 정도로 입구만 내놓고 둑글게 돌담을 짚은 돌로 옮겨 쌓았다. 수령이 200년 정도 된 소나무를 신목으로 삼고 있으며 금줄을 원새끼 줄로 소나무 하단에 여러 번 빙빙 감고 한지를 함께 매달아 놓았다. 매년 갑아 놓은 금줄과 한지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 마을의 성황제단은 산간마을에서 볼 수 있는 신목과 제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김: 그러니까 어디루 나갈 때는 여기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치고 나가구, 또 다리를 새로 놋거나 다리를 갈 때는 다리굿을 치고,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우물굿을 치구, 이제 농악이 돈 벌러 나갈 때는. 서낭님한테 가서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 낭님” 이제 그 양반 최경수 씨가 인제 팽과리를 치는데 꼭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지요. 팽과리 소리가 꼭 그렇게 들려요. 그리구 인제 우물굿을 칠 때는 따로 치고, 다리굿을 칠 때는 “다리다리 잘넜다 다리다리 잘넜다 칠렁칠렁 건너라 칠렁칠렁 건너라” 그 아주 사연이 많더군요. 출렁출렁이 아니고 칠렁칠렁하더군요.

조: 서낭당 제사를 언제 지내시나요?

김: 3월달 9월달, 3월 3일하고 9월 9일 지내요. 네 시나 다섯 시쯤 지내요. 저녁에. 초현관은 부락 통장이고, 우리들은 제관이지요. 도가는 통장이 생기를 봐서, 두 부부 가 생기가 맞으면 그 집이 도가를 하지요.

조: 그러면 유건을 쓰거나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나요?

김: 그전에는 다 했어요. 도포같은 것은 입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어른들이 쓰신 축문도 있었어요.

19) 장정룡, 〈속초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249쪽

20) 장정룡, 〈속초시의 민속문화〉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1997, 247쪽

조: 그러면 그 서낭당 소나무 아래 제물을 차려놓고 초현, 아현, 종현하고 축문 읽고 훌기외우고 그러셨겠네요? 거기서도 농악을 하셨나요?

김: 아니요. 그때는 농악을 안했어요. 축문을 읽고 집집마다의 소지를 올려주고요.

조: 그러면 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서낭당제사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어물이라든지. 소를 말이라고 하지요?

김: 옛날에는 소를 한 마리를 사지요. 도살장이 대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 마리를 다 갖다놓고 제를 지내지요. 화소로만 쓰지요.

조: 그러면 황소만 쓰네요. 머리하고 다 사족을 쓰겠네요.

김: 그걸 갖다가 네발때기로 뚝 갈라서 머리하고 다 갖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타살을 해가지고 동네가 이제 팔십 집이면 팔십 몇을 저울로 달아서 생 걸로 나누지요. 생고기를 놓고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삶아먹지요.

조: 제관들은 제사가 끝나면 고대로 나누어서 음복하고 집집마다 제물을 봉하지요. 시루떡도 나누고 생고기도 나누어주고요.

김: 그래, 대포로 별신맞이하러 가는 날에는 서낭당에서 먼저 가서 하는데, 마을에서 제사지낼 때는 먼저 서낭당에 가마를 걸구 그걸 삶아 가지구 제사지내고 나서 안주 좀하고 국물도 골고루 나누어줘요. 우선 우리가 음복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삶는 거구요. 나누어주는 것은 화소를 생고기로 나누어요.

조: 마을에서 농악대원이 외부로 나갈 때 서낭님을 모시는데 갔다 와서도 지냅니까?

김: 을 적에 들려서 오지요. “서낭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지요.

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 뭐, 이제 신세대들은 안하지요. 농악대가 없어지면서 안하고, 마을제사는 지내요.

조: 제사를 지내려면 비용은 결립을 하시나요?

김: 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는데 호구당 얼마씩 걷지요. 그 전에 옛날에는 제전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 가지고서는 회관도 짓고 했어요. 우리 공동논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통장 수고비도 주고 제사도 지냈는데 팔아서 회관을 지었어요. 동네논이 천사백 평이 있었어요. 삼환아파트 있는 거기예요. 21)

### 3) 뱃고사굿

도리원농악은 대표적 특징 가운데 하나가 뱃고사굿이다. 청호동과 동명동, 영랑동 등 바다를 끼고 생업을 유지한 어촌이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농촌농악이지만 뱃고사굿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영동지역농악과 차이점이며 이것이 도리원농악의 특징이다. 농악에서 ‘굿’을 사용하는 것은 무속적 용어와 동일하나 그 의미는 ‘의식이 행해지는 농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뱃고사굿은 ‘뱃고사 의식을 치르는 농악’이라고 하겠다. 이

21) 필자조사: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것은 이른바 농악 분류에서 ‘어업굿’에 속한다. 농악대가 행하는 어업굿은 선창굿, 배따라기, 배굿, 띠뱃굿, 풍어제, 슬비굿 등이 있다. 22)

속초에서는 정초 무렵 뱃고사를 정례적으로 지낼 경우 외에도 새롭게 배를 만들면 속초나 고성지역의 선주들이 배를 만들어 바다에 띄우는 ‘설망’ 때 든대질을 하면서 뱃고사를 하였으며, 정초에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뱃고사를 지낼 때도 도리원농악을 초청하면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강릉농악에 두레농악의 하나로서 여름농사가 마무리된 후 7월 이후에 배 위에서 농악을 잡히고 노는 뱃놀이가 있으나 23)리원농악대와 같은 방식의 뱃고사는 아니다. 이를 ‘배굿’ 또는 풍어제와 관계되는 ‘진대백이굿’이라고도 하는데 과거에는 배에도 징과 꽹과리 같은 악기를 싣고 다녔다고 한다. 정월에는 배에 고사를 지내고 무당과 농악잽이가 합하여 풍어와 무사함을 축원 드리는데 이러한 굿은 바다에 접한 마을과 크고 작은 섬에서 하는 축원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24)영지방에서는 서낭기를 배 위에 장식하고 농악을 치면서 선주가 제사를 지내고 이어서 집돌이를 하고 있으며, 전북 부안과 강릉지방에는 농악대들이 배에 재수 있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배성주신을 달래고 대접하며 잡귀를 물리는 굿을 한다.

든대질은 육지에서 만든 배를 바다로 내리는 일이다. 든대는 일종의 지렛대와 같은 나무로서 ‘드는 대’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질’ 이란 행위의 뜻을 가진 ‘짓’과 같은 말이다. 든대질놀이는 노동요가 결들어진 것으로 새로 배를 만들었을 때 항구가 없는 날바리 모래사장에서 주로 행했던 재래식 배이동 방식이다. 뱃고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1987년 제5회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속초시 대표로 출연했던 당시의 내용을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25)



22) 류무열, 『한국의 농악』 강원일보사, 1983, 15쪽에는 축제굿, 어업굿, 연극굿, 음악굿, 가정굿, 모금굿, 액맥이굿, 놀이굿 등 8개로 나누었다.

23)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 1997, 115쪽

24)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14쪽

25)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4~36쪽

배를 만들면 선주는 제물을 준비하여 도사공과 허리도리(선소리꾼)을 불러 고사를 지낸 후 든대질을 하여 배를 처음 물에 내리는 ‘설망’을 하게 된다. 속초든대질놀이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성주기(만선기)-마을 사람들이 만들어주거나 직접 만드는데 깃대에는 소나무가지를 뚫으며 짚으로 만든 삼재막이를 달고 배성주를 모신다.
- ◎고 사-제관은 선주가 되며 도사공과 허리도리는 같이 고사를 드린다. 이유는 배가 오래가고 무사고를 비는 뜻이라고 한다. 제물은 술, 초, 향, 시루떡, 포 등으로 간단하게 차린다.
- ◎액막이-액막이는 짚으로 만든 포막이대에 불을 붙여 배의 앞뒤로 다니면 소금을 뿐 리고 부정을 씻는다. 불은 발양력을 지녔다고 생각하여 불에 의한 주술적 행위가 많은데 양역(禳疫)의 뜻도 있고 생생력도 가지고 있어서 풍어를 빈다는 의미도 내포된 것이다.
- ◎비나리-고사가 끝나면 무녀가 소복을 입고 징을 치며 기도를 드린다. 그 내용을 일부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 조수타고 경세경년에 오늘날 속초시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해신 아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강한지종과 비렴으로 바람주고 백철금 되로내게 이제불통 하옵신후 각기 위엄하니 배를 타고 다스리고 도로구주 돌아들제 동남풍을 빌어내어 주유로 하공하여 배아니면 어이하리요. 도연명의 귀거래요 장한의 강들리요 종일위지 소여하여 지국총 어사화로 어부의 즐김이요. 오월이니 채련주오 상고선이 그 아닌가 상고로 위엄하여 포박서남 다니더니 각성반이 어부들이 남해신 축용이며 북해신 용강이며 일체 동감 하옵신후 해약으로 인도하여 소망이뤄 주옵소서”
- ◎든대질-기원과 액막이가 끝나면 허리도리는 짚은이들과 괴꾼, 든대꾼이 선소리와 뒷소리를 부르며 배를 내린다. “저- 자- 자- 자- 이럴적에 기운을내고 이럴적에 용기를써라.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항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려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열었구나. 사공님은 배를내려 정라진 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장사가 지나치며 나를보고 손을치네. 손을치는데는 밤에나가구 동네술집은 낮에나가자. 자- 자 26)
- ◎설 망-배가 처음 물에 들어가면 성주기를 바닷물에 세 번 적신 후에 배에 달고 노를 저어 나가며 뜻을 올려 바다를 한바퀴 돈다. 마을사람들과 어부들은 선주가 장만한 음식을 들며 풍어와 무사고를 기원한다.
- ◎농 악-농촌과 달리 농악대는 따로 없으나 뱃걸립시에 무녀와 함께 풍악을 울리며 악대들이 배에 올라가 만선과 무사조업을 빈다.

26) 필자조사:김형준(남.72) 속초시 청호동 4통1반, 1987.6.10

속초도리원농악의 뱃고사굿 활동은 그동안 재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닷가에서 행해진 설망시나 정초에 행하던 어촌의 뱃고사굿 활동이 속초농악의 특징을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조:마을에서 삼월 삼진과 구월 구일 제사 때에는 농악을 안치고 정초에서 대보름 사  
이에 걸립농악을 치시고, 다리 놓을 때는 다리굿을 치고, 그리고 배를 이제 내릴  
때 가서 뱃고사를 지내지요. 그 뱃고사 놀 때는 어떻게 노시나요?

김:농악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동이 가서 춤을 추고 이러는 건 아니고, 무동은 없  
고, 악사들하고 앞에서 고사 올리는 양반하고, 배 앞에 제물을 차려놓지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한바탕 놀지요.

조:놀 때는 배 위에 올라가지 않지요?

김:발동선 큰 배는 그 위에 올라서 빙빙 돌아 댕기면서 농악 놀더라고요. 27)

조:농악대가 가서 뱃고사 지내는 것을 보셨어요?

김: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우리 도리원 농악이 나가서 치고. 거기 최경수 씨라고 그  
사람이 고사도 아주 잘하고, 새납도 여기서는 최고라고 해요. 그 양반만큼 새납 잘  
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해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조:할아버지 사진이 있으시지요? 농악하시던 모습이 있나요?

민병희(최경수 씨 부인):안 찍어 두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만 있어요.

조:최경수 씨가 농악대원으로 새납을 잘 불고 고사반도 잘하셨군요. 그러면 뱃고사에  
도리원농악대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이 배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했지요. 배선주가 청하지요. 속초항 전 어부들이 초  
청해서 시내 내려가 살다시피 했어요. 이 양반이 고사지내는 데는 천재래요.

조:대개 보면 고사반을 할 때 팽과리를 치면서 하는데요, 고사지낼 때 어떻게 하셨나  
요?

김:이제 그 양반이 팽과리를 치면서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나  
고” 그러면서 했어요.

조:오늘 도리원농악에 새로운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악이라면 보통 농  
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속초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뱃고사 농악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김:그 아주 뱃고사 드리러 많이 갔어요.

조:그러면 배가 크던 작던 청하면 갑니까?

김:가지요. 그전에 발동선이라고 하지요. 목선을 만들어서 사뭇 기를 잔뜩 키우고는  
팽과릴치고 나가다가는 전수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나가다가 이 배가 어떻  
게 기울어져서 물에 모두 빠지고 그랬어요. 배에 타구서 나가요. 나가서 저기 섬  
있는데 돌아서 와요.

27) 필자조사:김동설(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조: 이제 만든 배를 든대질해서 날바리에서 바다에 진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농악대가 배에 타서 꽹과리를 치면서 가서 그 배를 타고 한바퀴 돌아서 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대개 만선기를 꽂던데요?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김덕수: 배에 준공식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배를 바다에 띄울 때 거기에 타고서 짹 기를 달고서 농악대를 싣고서 바다를 돌아요. 한바퀴를 돌지요. 28)

#### 4) 농사풀이

도리원농악은 역사는 농사와 관련된 것에서 시원을 찾을 수 있다. 노학동은 소야천인 청초천변 소야평의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뒷버덩인 후평(後坪)과 앞버덩을 포함하여 학사평일대가 글자 그대로 논으로 이뤄진 소야(所畠)평이다. 이곳은 속초지역 벼농 사의 적지로서 한 해 농사와 관련된 도리원농악대의 농사풀이가 강원 영동농악의 전통과 함께 그 전승의 기틀을 형성해왔다. 도리원농악의 농사풀이에서는 김멜 때 부르는 소리인 오독떼기나 미나리농요가 불렸고 티작가인 마댕이소리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농사풀이는 ‘농사놀이’ 또는 ‘농식’ (農式)이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놀이굿농악에 속한다.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

조: 김매는 과정에서는 김매는소리 같은 것도 하나요?

김: 근데 여기는 미나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독떼기나 미나리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지금 드물어요.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셨어요. 운석이 할머니, 동훈이 할아버지가 좀 잘했나요? 우리두 그걸 좀 따라하다가 못했어요.

조: 김멜 때 메나리나 오독떼기를 농사할 때 김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농악할 때 농사놀이하면 소리를 하나요?

김: 소리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그때는 했어요.

조: 놀이 중간에 소리가 들어가지요. 마댕이소리도 하지요. “에헤 마댕이야” 그러지요.

김: 그래 이제 농악이 놀다가 상쇠가 쇠꼭지를 바꿔주지요. 그러면 부쇠가 그걸 따라서 치지요. 쇠를 치며 노는 사람들이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면 신나게 마을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같이 놀지요. 29)

강원도 농악은 전체적으로 빠른 동작과 가락을 이용하고 있는데 정병호 교수는 영동지역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지신밟기를 할 때 마을을 돌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할 경우가 많으므로 바쁘게 많이 걸어야 하는데서 나온 동작으로 추정하였다. 30)

28) 필자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29) 필자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30) 정병호, 《한국의 민속춤》 1992, 238쪽

나아가 판굿진행에 있어서 제자리 춤없이 행진하는데, 정방형, 체조대형, 'ㄷ'자형, 명석말이, 오방진 등의 모습은 기마민족의 수렵모습, 농군이 전투에 임하는 모습, 손자 말이 논밭을 갈고 있는 것처럼 거칠고 전투적인 면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영동지방 농악놀이의 춤, 걸음걸이, 동작, 가락 등이 전체적으로 빠른 것은 고구려민족의 특성을 닮은 것으로 의심된다. 옛 강원지역이 북방 고구려의 영토에 속했던 만큼 고구려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마치 달리는 것과 같은 《삼국지》 위지동이전 기록이나 고구려 무용총 벽화, 안악 고분을 볼 때 발랄하고 직선적이고 동적을 춤을 춘 것으로 증명된다.

농사풀이는 강릉농악, 평창농악 등에서도 연행되는 모의농경(模擬農耕)으로 벽구놀이가 중심이다. 대부분 일년 농사짓는 모습의 형태로 이끌어가며 진행되는데 이 풀이를 지나치게 길게 함으로써 본연의 농악놀이인 황덕굿놀이나 서낭굿, 걸립굿 등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강릉홍제농악은 15개풀이로 가장 많으며, 3평창둔전평농악은 7개 풀이, 고22) 성 교동농악은 12개, 33)도리원농악은 8개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사풀이는 원래 영동지역농악대에서 간단하게 행했던 농경모의 형태였다. 이것을 강릉농악 상쇠 박기하 씨가 이를 확대했다는 고증이 나왔다. “처음부터 스물네살 때부터 우리가 모여 가주고 상쇠가 뗏을 가지고 가르쳤느냐 이거야. 옛날에는 그냥 놀고 막 이러그렁. 그래서 내 그랬지, ‘이거 농악이 농낙이니까 농사로 농식을 배워보자. 농식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느냐’ 나도 연구를 해봤지만 아래봐도 안돼지 저래봐도 안돼지. 그래가주고 연구하던 중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처음 이보형 선생하고 강릉에 오셔가지구 우리 첫 출연을 양조장 한 솔밭인데 거기가 처음 시범을 보였어요.(박기하를 만나기전까지 강릉의 마을농악은) 그냥 놀았지. 그냥 돌고 두들기고…”라고 언급하였다. 34)

강원도 농악은 크게 영서지방농악과 영동지방농악으로 나누는데 영동지방은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성행하고 경북 동해안 일부 지역과 함경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원영동농악의 특징으로 알려진 농사풀이는 1970년 부터 전체적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31)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 1997, 134~159쪽에는 농사풀이로 가래질, 논갈이, 뜻자리누르기, 범씨뿌리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호미씻기, 낫갈이, 벼베기, 벼광이기, 벼타작, 벼모으기, 벼방아찧기 등 15개가 소개되었다.

32) 장정룡, 〈평창농악의 전통과 계승〉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521~522쪽 농사풀이는 논갈이 모찌기, 모심기, 김매기, 벼베기, 탈곡마당, 벗가마나르기 등 7개 풀이가 있다.

33)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70쪽에는 농사풀이로 가래질, 논갈기, 뜻자리하기,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 낫갈기, 벼베기, 벼광이기, 태치기, 벼모으기, 방아찧기 등 12가지를 언급하였다.

34)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 1997, 183쪽

## 5) 진놀이

진놀이는 ‘진풀이’ 라고도 하는데 판굿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진놀이는 십자진, 골뱅이진, 도리원, 대한독립만세 등의 글자새기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농악대가 초청받은 마을의 동이름을 새기면 걸립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1974년에 창단된 강원도 고성지방 교동농악의 경우 판굿으로 인사굿, 명석말이, 골뱅이진 등이 있었다고 한다. 35)

특이한 점은 도리원농악대에 ‘화동’ ‘화맹이’ 라 부르는 잡색이 있었다고 전한다. 이것은 ‘화동(花童)’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릉농악에도 예전에는 있었다. 36) 화동은 잡색과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의 도리원농악에는 양반이 잡색으로 등장하고 있다.

농악대에 양반이 등장하는 것이 가면극의 원초적 형태라는 견해 뿐 아니라 잡색의 연극성이나 제의성은 여러 방향에서 논의된 바 있는데 도리원농악의 경우 사라진 ‘화동’의 재현이 중요하다. 현행의 양반잡색은 고증에 없는 것으로 농악대를 이끄는 ‘질라잽이’가 양반의 역할 가장(假裝)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리원농악의 진놀이 판굿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 37)

김: 도리원 농악은 옛날 어른들이 농악하는 것을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봤지요.

그전에 우리가 6.25사변 나고 한 열 대여섯 살 때 보았고, 사변 전 왜정말기에도 농악하는 거를 어렸을 때 구경했습니다. 이 동네가 농악을 오래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지요. 농악을 나 많은 이들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했구. 그리고 농악 놀이하는 거는 무슨 놀이, 짐(김)매기, 타작하는 거, 그런 거 십자놀이 하고, 골뱅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38)

조: 농사놀이 말고도 진놀이가 있잖아요?

김: 십자가 그리는 거, 글 새기는 것도 하더라구요. 글은 대한독립만세 이런 걸 그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볶아치니까 제자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아치구. 골뱅이하고 그랬어요. 39)

35) 정병호 앞의 책, 170쪽

36) 정병호 앞의 책 162쪽에는 1979년 강릉시 흥제농악을 조사한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화동은 장삼에 가사를 걸치고 한삼 소매를 매고 고깔을 썼었으나 지금은 花童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도리원농악의 화동과는 차이를 보인다. 김동섭 제보자가 말한 화동은 잡색의 일원인 ‘양반’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양반잡색이외에 화동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은 화동만 있었던 것이 아닌지 전승과정이 의심된다. 강릉농악의 경우 잡색은 없고 화동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영동농악권에 속한 도리원농악에서도 화동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37) 판굿은 놀이와 극으로 나누는데 놀이에는 열두발상모놀이, 무동타기, 농사풀이, 진풀이가 있으며, 극에는 잡색놀이, 판굿의 극놀이가 있다.

38) 필자조사: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39) 필자조사: 김동섭(남.74)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 3. 도리원농악의 편성과 복색

속초도리원농악은 고성, 양양의 영북권 강릉, 평창, 삼척 등 영동권에 속한 강원농악이나 판제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인사굿, 골뱅이틀기, 십자진, 황덕굿, 농사풀이로 판굿을 진행하지만 황덕굿을 할 때 ‘쇠꼭지’라는 개인놀음이 있어 한 명씩 재주를 보이는 독특한 구성이 있고, 십자진풀이는 전개방법과 진풀이가 독특하다. 주로 걸립굿 중심의 농악으로 발달되어 오랫동안 외부활동을 하였으므로 초창기 무동은 대부분 15~18세의 남자들로 구성하였고, 해방 뒤에는 신파극놀이 등이 첨가되어 잡색놀음도 연희되었다.

#### 1) 편성

강원농악의 전승권역으로 불리는 지역은 북쪽의 고성에서부터 강릉, 평창을 비롯하여 남쪽의 삼척농악까지를 펴져있는데 초창기 도리원농악의 편제는 팽과리 3, 날라리 1, 장구 3, 북 2, 징 1, 벽구 8, 무동 8, 질라잽이 2, 화댕이 1, 기수 1명 등 30여명이었으며, 가락은 삼채덩덕궁이, 춤사위는 덕거리춤이 주로 쓰였다.

특히 도리원농악의 무동은 팔무동으로 이들이 추는 춤사위가 갖는 의미가 심오하다. 즉 손바닥을 펴서 안으로 감거나 뒤집고 펴는 것 등이 모두의 행복을 찾고 행복을 나누어준다는 뜻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무동은 고깔을 쓰고 쾌자를 입고 춤추는데 옛날의 도리원 농악에서는 네 가지 색깔의 큰 종이꽃을 단 고깔에 삼색띠를 매으며, 대부분 정초 무렵 걸립 때에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도리원농악 무동춤사위는 깨끼춤, 좌우치기, 발림 등으로 파악되는데 4에 대한 고증은 다음과 같다.

조: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내가 볼직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별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구, 그 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 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럿이 행복을 같이하자

40) 깨끼춤은 경기 평택과 이천 등지 농악에서 보이는데 1박에 양 손을 옆으로 흔들어 부드럽게 펴고, 2박에 오른손을 꺾어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흔들어 올리고, 3박에 오른손을 옆으로 부드럽게 흔들어 펴고, 4박에 왼손을 꺾어서 손바닥을 위로 보이게 흔들어 올린다. 좌우치기는 쾌자 앞자락을 양 손에 쥐고 좌우로 휘젓는 동작이며, 발림은 제자리에서 오른발을 앞으로 뒤로 딛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부드럽게 앞으로 펴다 굽히고 춤추는데 대전 웃다리농악에서 하고 있는 동작이다. 최식중 무동이 언급한 것처럼 손바닥을 보이게 흔드는 동작, 그리고 ‘앞으로 잘랑잘랑’한다는 발동작을 통해서 경기웃다리 농악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다.

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뻗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랑질랑하지요.

조: 무동하시다가 벽구하셨나요?

최: 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등 팔벽구 그래요. 여기는 장구잽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팽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벽구가 팔 명, 무동 팔명 그렇지요. 그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잽이, 화댕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다니면 애먹어요. 41)

조: 농악대 끝에 잡색이라고 탈 쓰고 나오는 인물이 있나요?

김: 그걸 '화동'이라 그래요. '화동' 아주 웃기는 사람. 영감님처럼 하나요. 한 명 있어요. 수염만 쓰고 가면은 안 써요. 양반을 만들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화동이' '화댕이'라 그랬어요. 아주 사투리지요. 42)

조: 그 담에 벽구라 그러니까요? 벽구쟁이 그러니까요?

김: 벽구쟁이 그래요. 상벽구, 벽구쟁이, 무동(무동) 그래요.

조: 무동을 무동, 속초사투리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놀이가 뭐가 있었나요?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 43)

제19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화천:2001.9.20)에 참가했던 속초도리원농악의 편성과 복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인사굿-일채, 질꼬내기 가락을 치며 입장하여 삼채, 사채까지 가락을 내고 인사굿을 친다.
- (2) 골뱅이진-삼채장단의 빠른 걸음으로 골뱅이처럼 원을 말았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반복한다.
- (3) 십자진-상쇠와 부쇠줄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있다가 서로 엇갈리게 빠져나와 십자진을 만든다. 좌우로 방향을 바꿨다가 가운데부터 원을 그리며 돌아 나온다.
- (4) 오방진-원진을 만들어 돌다가 상쇠가 가운데 서고 쇠와 징, 장구와 북, 소고, 무동이 각자 네 귀퉁이에서 원을 만들어 오방진이 되게 한다.

41) 필자조사: 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이 분의 언급에 따르면 법고(벽구)와 소고의 존재가 혼동된다. 강릉농악의 경우 악기자체에서 소고와 법고가 분명하게 나뉘나 1977년 조사된 고성군 교암농악의 경우도 법구 8명, 무동 8명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리원농악의 경우도 소고는 없고 벽구와 무동만 8명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커다. 후에 들어와 소고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대부분 도리원농악 고증자들이 소고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하지 않고 있음에서도 확인되는데 벽구잽이 농사풀이가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다.(필자주)

42)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160쪽에는 “영동농악에서 특이한 것은 무동 이외의 雜色들이 없다는 것이다. 무동춤은 어른들의 配役으로 추어지나 삼총 높이의 무동타기는 대개 어린이가 담당하고 그 위에서 열두발 상모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리원농악에서 잡색인 ‘화동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도리원에서는 삼동고리 위에서 열두발상모를 돌리지 않고 개인놀이로 행했다.

43) 필자조사: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5) 농사풀이(농사짓는 모의동작을 연출한다)

- ① 가래질 :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 중 한 사람은 가래를 쥐고 두 사람은 끈을 당기는 동작을 연출하며 앞으로 나간다.
- ② 논갈기 :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가 일렬로 서서 논갈기를 한다.
- ③ 모찌기 : 쇠, 징, 장구, 무동들은 제자리에서 연주하고 소고들이 일렬로 앉아 모찌기를 하며 무동이 모를 나른다.
- ④ 모내기 : 소고는 모를 심는 동작을 하고 무동은 모를 나르는 흥내를 낸다.
- ⑤ 낫갈기 : 소고가 한 줄로 앉아서 소고를 발 사이에 끼고 소고채로 장단에 맞추어 이리저리 낫을 바꾸어 간다.
- ⑥ 벼베기 : 소고가 벼를 베어서 수확하는 동작을 한다. 상모를 돌리며 벼를 베다가 단을 묶어 던지는 동작을 연출한다.
- ⑦ 태치기 : 무동들이 나와서 도리깨질을 하고 소고는 복을 사이에 앉혀놓고 태치기를 한다.
- ⑧ 방아찧기 : 소고 중 한 사람은 방아가 되고 두 사람은 방아의 중심대가 되며 무동은 방아찧기와 키질을 한다.

## 2) 복색 44)

- (1) 상 모 : 짚으로 또아리를 틀어 만든 다음 진자를 맞추어 얹고 펙을 매달아 만들었다. 굵은 무명실에 적자(구슬)를 여러 개 끼워달고 길이는 2척에 끝부분에 4척의 얇은 한지를 매단다. 상모를 쓸 때는 머리에 머리수건을 동여매고 짚상모의 끈을 얹어 머리에 맨다. 50년대 말부터 한지를 이용해서 상모를 만들기 시작했다.
- (2) 고 깔 : 흰색의 천과 종이에 상, 좌, 우측에 큰 종이꽃을 장식한다.
- (3) 상 쇠 : 흰 바지저고리에 청색 덧저고리를 입고 짚상모를 쓴다. 삼색띠를 어깨와 허리에 맨다. (상벼구, 상소고-청색 덧저고리)
- (4) 농기수, 단기수 : 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고깔을 쓴다.
- (5) 징, 장구 : 흰바지 저고리에 삼색띠, 펙이 달린 짚상모를 쓴다.
- (6) 무 동 : 흰바지에 붉은 치마, 노란저고리를 입고 남색쾌자를 걸친다. 머리에는 고깔을 쓴다.
- (7) 삼색띠 : 청색과 적색의 띠를 한번에 겹쳐 청색이 위로해서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허리로 옮아 묶고 노란색띠를 허리에 두른다. 무동은 양 어깨에 엑스 자로 하고 적색을 허리에 감아 묶는다. 초창기 농악대 복색은 다음과 같다.

조:농악대 복색은 어떻던가요?

김:상모도 쓰고 무동은 고깔을 쓰고요. 상모는 병거지 꼬랭이를 달고, 악사들은 상모 위에다가 꽃만 달고, 이제 벅구쟁이는 한 발씩 되는 꽁지를 달지요.

조:그걸 채상이라 그러지요.

44) 속초시, 〈의생활〉 《속초시사》 하, 2006, 1699~1700쪽

45) 필자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김: 여기는 ‘벙거지꼬리’ 라 그래요.

조: 다른 데서는 ‘꾀상’이라서 해서 수술같은 것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 여긴 거냥 꽃만 달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움직이는 건 없어요.

조: 꽃의 색깔이 어떻던가요?

김: 그러니까 하얀 것에다가 끝에는 발그레하게 장미꽃 모양으로 하지요. 전부다 그전에 하마 어디루 간다하면 그걸 며칠씩 맨들어요. 신문지를 인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디 대기며 문종이 뜯어놓은 거, 신문지 이런 거를 전부 물에다 불궈 가지고 풀에다 이렇게 섞어 식기를 요렇게 엎어놓고 자꾸 이렇게 봉해 가지구 며칠 말려 가지구 농민모자마냥 맨들지요. 그래 가에는 빨간 걸로 뺑 돌리게 하고 밑에는 새까만 거로 하고요. 위에 돌아가는 거는 박달나그(나무)로 만들어요. 고걸 요렇게 깍지요. 맨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요. 자전거 체인줄로 엮어 실로 감아서 하지요. 만들라면 그거 뭐. 그래 식기 같은 거를 엎어놓고 마른 다음에 여길 구녕(구멍)을 뚫구 박달나무로 깎은 꼬쟁이 고걸 여기 박지. 박아 가지고 요 밑에 구녕을 뚫고 빗장을 친다구.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처럼 보도를 박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 이게 요만큼 나오면 요길 구녕을 뚫고서는 빗장을 친다구. 덜미꼭지에다가. 그래 가지구 실을 양초를 매겨 가지구 꼭지에다 칭칭 감았지.

조: 상모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머리에 고깔을 쓰잖아요? 고깔은 누가 쓰나요?

김: 무동이 주로 많이 쓰지요.

조: 무동은 팔무동인가요?

김: 원래 팔무동 팔벽구인데, 여덟 명 더 되는 것 같더라구요.

조: 무동이 고깔에 꽃을 달잖아요? 몇 개나 달게 되나요?

김: 그러니까 하나 둘, 한 네 개를 달지요. 분홍색깔 약간 장미꽃 색깔처럼 그렇게하고, 꽃잎 위로는 발그리하고 밑으로는 푸름하게 한다든가 하얗든지 그렇게 하드라고요.

조: 그걸 만들 때는 종이는 어떤 거를 쓰나요? 한지든가요?

김: 한지가 아니고 뭐 백노지 같은 거로 해요. 그걸 꼬불꼬불하게 만들자면, 지금은 그런 종이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나무에다 쪽 이렇게 말아 가지고 쪽 압축을 시키고 쑥 빼니까 조글조글하게 되더라구요. 끝에다 요기다가 물감을 들이고 자꾸 말아서 맨들더라구요. 나갈 어른들이 만드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맨들드라고요. 고깔 바탕은 삼각형으로 지금 같으면 골판지 같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종이를 겹겹이 풀을 발라서 말려 가지구 이제 만들지요. 고깔 바탕은 흰 색깔이지요.

조: 그러면 복장은 어떤 것을 입었나요?

김: 그때는 한복을 입었지요. 바지저고리, 광목이지요. 옛날 50년대 찍은 사진에 보면 나와요. 끈은 파란끈, 빨간끈, 띠는 노르한 거 하고, 신발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행전 쳤어요.

조: 무동은 어떤 옷을 입나요? 아래위로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나요?

김: 될 수 있으면 일괄로 한 색깔로 입드라구요. 그리고 띠를 두르고 쾌자를 걸쳐요.

조: 무동은 다 남자들이지요?

김: 옛날에는 남자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들이 하지요. 우리가 삼척갈 때는 부인들이 많이 갔지요. 45)

2007년 강원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한 도리원농악은 1950년대 이전의 고증과 기존의 사진 자료에 따라 옛 모습으로 재현하여 속초고유의 가락과 판놀음을 되살렸다. 기, 악기, 복색, 판놀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 : 도리원 농악의 기는 농기와 마을기가 있다.

농 기 :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農者天下之大本’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평장목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 지네발은 검정 색이다.

마을기 : 긴 대나무 깃대에 지네발이 달린 기폭을 달고 ‘東草桃李源農樂’이라 쓰고 깃대 꼭대기에 평장목(평장)을 단다. 흰색바탕에 검정 글씨, 지네발은 검정색이다.

(2) 악 기 : 팽과리 4명, 징 4명, 장구 8명, 북 8명, 소고 8명, 벼구 8명, 호적 1명

(3) 복 색 : 복색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4) 판놀음 : 속초도리원농악의 판놀음은 고증자들의 구술에 따라 계승되고 있다. 다만 농사풀이 부분이 가미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농사풀이 부분이 1960년 대부터 타 지역에서 하던 것을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리원 고유의 농악을 재현하기 위해 개인놀이와 동고리놀이를 보강하여 전수하였다.

놀음의 구성은 인사굿, 달팽이진(황덕굿), 십자진(십자진과 건풍놀이), 입구(口)자진, 가마니짜기, 발전(田)자진(밭전자진과 건풍놀이), 글자놀이(도리원), 개인놀이(무동—소고—벼구—열두발상모놀이),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황덕굿(인사굿)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특히 다른 곳과 달리 글자와 놀이를 접목시켜 시각적인 구성을 돋보이게 한 점이 이채롭다.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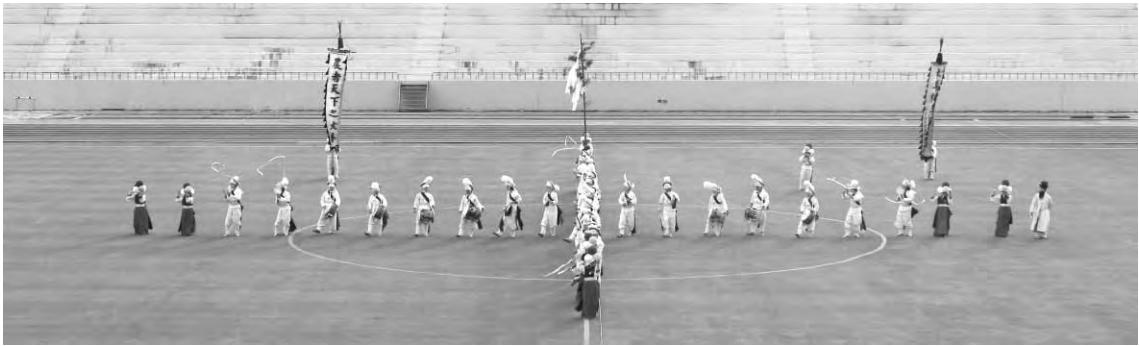
① 인사굿 – 한 일자로 된 대형으로 입장해서 정면에 정렬하여 인사를 한다. 인사굿을 마치면 삼채가락에 맞춰 원진을 만들고, 발맞추기를 한다. 입장 12채(굿거리), 원진 삼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입장 및 인사굿은 첫째줄 무동, 둘째 벼구, 셋째 소고, 넷째 쇠·징, 다섯째 장구, 여섯째 북이다.

농악이 들어가문 몸을 숙이구 엉거주춤하게 원발, 오른발을 들었다 놋다 하면서 입장 을 해. 인사굿은 한 일(一)자루 서서 인사하는데 무동이 앞줄, 벼구, 소고, 쇠, 징, 장구 북 이러케 줄을 맹글어서 섯지. 인사하구 원진을 맹글어서 발맞추기를 오른쪽으로 여덟 번, 왼쪽두 여덟 번 가구 가락에 팽그르 돌았지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 46)

46)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 ② 달팽이진 – 원진에서 삼채로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면서 다음 동작선으로 이동 준비한다. 삼채–사채–오채, 악을 칠 때는 항상 몸을 숙인다.
- ③ 십자진 – 상쇠가 이끌어서 1번과 2번, 3번과 4번으로 나누어 일자로 만난다. 제자리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다. 전풍가락에 훌수는 제자리에서 가락에 맞추고 짹수는 오른쪽으로 돌아 십자진 대형을 갖춘다.



달팽이진을 만들고 풀고 나가는 데 상쇠가 재빠르게 나가서 쇠와 징이 번갈아서 빠져 나가게 해 가지구 왼쪽과 오른쪽으로 돌면서 만나게 되니까 한 일자를 맨들게 아니우. 그때 전풍가락으로 해서 전풍놀이를 하면서 짹수쪽이 사이사이 빠져 가지구 오른쪽으로 돌면서 십자진을 맨들었지 뭐. 그래서 전풍놀이 박자에 발맞추기를 해서 열십(+)자를 맹글며 큰 박수를 받았지.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 47)

- ④ 입구(口)자진 – 십자진에서 삼채–사채–오채로 정리한 다음 가운데 상쇠로부터 원을 돌며 풀어 나오게 된다. 쇠와 징이 세로의 한일자를 구성하고 장구와 북이 가로의 한일자, 소고가 세로의 한일자, 벽구와 무동이 아래위 한일자를 대형으로 구성하여 사각의 입구자진이 되게 한다.



47)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⑤ 가마니짜기 – 입구자를 만든 다음 쇠와 징의 줄과 소고가 자리를 서로 바꾼다. 지나갈 때는 서로 왼쪽 어깨를 스치듯이 이동하고 그 다음 장구와 북, 무동과 벽구줄이 자리를 바꾸다 다시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⑥ 발전(田)자진 – 가마니짜기가 끝난 입구자진에서 진을 풀어 발전자를 만든다. 쇠와 징이 한일, 장구, 소고, 무동이 각각 한일로 바깥쪽에 사각을 만들고 북과 벽구가 안에서 열십자를 만들어 발전자를 만든다. 진을 만들면서는 삼채–사채–오채가락, 대형을 갖추게 되면 건풍가락을 치고 논다.



⑦ 글자놀이 – 발전(田)에서 풀어 나오면서 원진을 구성하게 되면 ‘도리원’이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논다.

발전자를 맨드는데 벽구가 한일(一)자, 북이 옆으로 한일자를 만들든 다른 줄도 빙자리가 있으니까 돌면서 발전자를 맨들게 되는거지. 또 풀면서 맨들다가 바루 도리원마을이니까 도리원 글자놀이로 들어가는 거여. 글자놀이는 해방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하러댕길때 자기네 마을글자두 맹글어달라구 해서 맨들어주믄 돈두 주구 막걸리두 주구 굉장히 했지.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증) 48)

48)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그때 자기마을 이름 써주니까 술을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니 그저 취해 가지구 자기 자리도 못 찾아 가지구 이리저리 뛰 땡기구 그럴 거 아니오. 그 담부터 한지에 먹으로 써서 높이 착하구 걸어놓으면 다음에 "이거구나"하구 놀이를 잘하게 된거지 뭐. (김동섭, 남74, 전 속초도리원농악 양반역) 49)

⑧ 개인놀이 – ‘도리원’ 글자에서 풀어 나오면서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로, 북과 벽구가 그 뒤로 한일자, 소고가 세로로 한일자, 무동이 반대편 세로로 한일자로 하여 ‘ㄷ’자 대형을 갖춘다. 무동놀이, 소고놀이, 벽구놀이, 열두발상모놀이가 있다.

개인놀이를 들어가는데 쇠와 징, 장구가 한일자, 북하구 벽구가 한일자, 무동이 세로루 한일, 소고가 세로루 한일자루 해서 서가꾸 맨 먼저 무동이 나오는데 무동이 나오니까 그 세로루 한일자가 없으니까 벽구가 나와서 그 줄을 끼워서 ‘ㄷ’ 자 맞추면 무동은 발 맞추구 팔무동이니까 훌수 짹수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대루두 하구. 안쪽 바깥쪽 번갈아서 이쁘게 놀았지. 끝나면은 소고잽이 자리루 가요. 그러면 소고잽이들이 나오지. 소고들이 나와서 앉았다 일어났다 상모돌리기 기술을 보이면서 갈라져서 돌리구 일자루 서서 ‘개갱 적적 개갱 적’에 맞춰서 기술을 보였지. 그 담에 벽구가 나와서 놀구. 또 그담엔 열두발들이 나와가지구 놀구 아주 볼만했어. 그렇게 놀았다우.

(엄상원, 남87세, 전 속초도리원농악상쇠 고종) 50)

조: 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 내가 볼찌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벌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구, 그 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럿이 행복을 같이하자 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뺀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령게 요령게 잘 랑잘랑하지요.

조: 뛰어 가면서도 하잖아요?

최: 그게 덕거리춤이라고 있어요. 덕거리는 번개질하고 옆에 나팔 불고 하면 무동들은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벽구잽이들도 안에서 하고 그럴 때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지요. 관람객들을 웃기기도 하구.

조: 덕거리춤이라고 했나요?

최: 그런 거는 막거리춤이지요. 막거리춤, 덕거리춤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무동들이 추지요.

조: 무동들이 소매자락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추던데요?

최: 웃끄네기가 요령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첫번에는 가위로 요령게 흔들고

49)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50)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찰랑찰랑하지요. 손은 이제 그다음부터 ‘깽깽깽 자작 깽’ 하면 이렇게 하지요. 예쁘게 행복이 오라는 거지요. 막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조:농악대 무동이 끝에 따라오잖아요. 팔무동이지요?

최:무동이 여덟이란 말이예요. 벽구잽이는 안에서 돌리고 나팔하고 북은 옆에서 하고, 북 장구를 때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지. 51)

⑨ 동고리놀이(동고리와 단오그네놀이) – ‘ㄷ’ 자 대형에서 벽구와 소고, 무동이 나와 동고리와 그네놀이를 한다. 벽구가 단동고리를 만들어 그네를 만들고, 무동 1인은 그네에 타고 1인은 그네를 밀어주며, 소고잽이도 무동을 한다.



삼동고리를 두 개 만들어서 그네놀이를 했는데 사람이 빠지구 해서 단동고리 그네 단오놀이루 했어요. 소고잽이들도 무동두 타구 나머지는 신이 나서 막 잡아돌리구, 하여튼 숨이 목까지 차서 힘들었어요.

(장기순, 남.60, 전 속초도리원농악 상무동) 52)

조:우리가 동고리받기라고 그러잖아요. 태우는 거요? 삼동고리나 오동고리를 했나요?

김:예전에는 했어요. 삼동고리까지 했어요. 밑에 들어서 있고 위에 한 명 올라서고 그 위에 조그만 애가 올라가요. 상모는 위에서 못 돌렸어요.

조:열두발 상모도 돌리셨나요?

김:옛날에 여기 열두발 상모가 있었어요. 그 양반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53)

⑩ 황덕굿(인사굿) – ‘ㄷ’ 자 대형에서 진을 풀어 달팽이진을 만들고 한바탕 놀이를 한다. 인사를 한 후 퇴장한다.

51) 필자조사:최식중(남.71)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52) 제22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 속초시 출연작, 《속초도리원농악》 해설집, 속초시, 속초문화원, 2007. 6.1

53) 필자조사: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김: 이런 데서 치는 거는 질꾸내기나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고 그러지요.

조: 질꾸내기는 행진할 때 치는 거고, 삼채덩덕궁이는 흥겹게 놀 때 치지요.

김: 한참 흥겹게 놀 때 삼채덩덕궁이를 치지요. 황덕굿이라고도 하고, 사방 모여서 신 나게 치고 놀지요. 54)

상기 언급에서 도리원농악 가락은 삼채덩덕궁이와 행진채, 질꾸내기, 황덕굿을 쳤음을 알수 있고 춤사위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었다고 한다. ‘채’는 농악가락 장단이라는 뜻이다. 이 낱말은 ‘치다’ ‘차다’ 등의 명사형으로 말채, 파리채와 같이 때리는 기구를 뜻 하나 음악에서는 북채, 징채, 궁글채 등과 같이 타악기를 쳐서 소리 내는 기구를 말한다.

국악보의 ‘편(鞭)’은 채편’ ‘채’ 등으로 쓰는데 ‘치다’ 혹은 ‘연주하다’는 뜻이 있으며 장단의 ‘박(拍)’을 뜻하게 되므로 농악가락의 ‘채’는 장단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채’와 같은 의미로 ‘마치’가 쓰이기도 한다. ‘마치’는 적중(的中)의 의미로서 겨냥하여 때려 마치는 것이므로 고어 ‘마치다’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따라서 ‘마치’ 역시 농악 가락의 ‘박’과 같은 의미로 장단을 가르킨다. 위에서 ‘삼채’라 언급한 것은 ‘세마치’와 같다. 삼채에 대하여 이보형 씨는 갹매기는 “갯매갯 갹매갯 갹매갯 갹갯 개갯매 갹매갯 갹매갯 갹깨,….”하고 한마루 4박11점을 치는데 징은 한마루에 제1, 2, 3박에 3점을 친다고 하여 징에 의한 분류임을 밝혔다. ‘덩덕궁이’는 장구의 구음(口音)으로 3분박 좀 빠른 4박자(8분의 12박자)이며, 자진모리장단과 같다. 긴 삼채굿 혹은 자진 삼채굿과 비슷하나 다른 점은 삼채굿은 기본형과 변주형을 교대로 치지만 덩덕궁이는 기본형에 구애됨이 없이 다채롭게 변주하며 리듬이 매우 생동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유능한 농악대에서는 긴 삼채굿보다 덩덕궁이를 주로 치며 상쇠놀이, 설장구 등에 주로 사용한다. 55)

54) 필자조사: 김동섭(남.75)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리, 2008.1.31

55) 류무열, 『한국의 농악』 강원일보사, 1983, 46쪽

자진모리장단으로 기교가 뛰어난 농악대는 삼채굿 대신에 맷고 푸는 매우 구성진 가락인 덩덕궁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며 삼채굿은 세마치장단의 변형으로 ‘징을 세 번 친다’ 하여 ‘삼채굿’이라 하는데 빠른 자진삼채와 느린 긴 삼채 두 가지가 있다. 56)

‘질꾸내기’는 지역에 따라 ‘길꼬냉이’라고도 발음하는데 ‘길굿’ 또는 ‘길군악’을 말한다. 이것은 행악(行樂)중의 하나로 관현악곡인 취타의 뒤를 이어 연주되는 관악곡에 속한다. 또한 농업노동요로도 같은 명칭이 쓰이는데 도리원농악의 ‘질꾸내기’는 길군악칠채로 치는 가락이다.

이것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농악에서 쓰이는 장단의 하나로 징이 한 장단에 일곱점 들어가는 장단이란 뜻이다. 행진과 오방진 같은 진법, 그리고 명석말이 같은 판굿에서도 쓰인다. 매우 빠른 3박과 2박의 혼합으로 이루어지며 서양음악식으로 표기하면 8분의 36 박자다. 빠르기에 따라 느린길군악칠채와 자진길군악칠채가 있으나 자진길군악이 많이 쓰이고 리듬이 경쾌하며 생동한 느낌을 준다. 57)

도리원농악 무동이 춘 덱거리춤은 막춤, 막거리춤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간취하기 어려우나 즉흥적인 덧뵈기춤 종류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덧뵈기춤은 덧보기·덧배기·덧베기춤이라고도 하는데 즉흥적으로 특징적인 것만 추려는 추는 춤을 말하기도 한다. 58)

#### IV. 도리원농악의 특징과 연혁

도리원농악은 속초 유일의 농악대로 백여 년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소야천을 감고 도는 소야평야 농토를 경작한 농민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농악이라 하겠다. 옛날에 농악에 참여했거나 보았던 고증자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도리원농악의 전반적 특징과 새로운 언급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리원농악은 서낭대를 모시고 행해진다는 점이다. 서낭대는 대나무 잎이 달린 긴 왕대로 만드는데 상단에 삼베와 한지를 매단다. 이는 도리원농악이 서낭굿농악에서 유래했음을 밝혀 주는 자료로서 농악대가 출타할 경우 반드시 서낭당에 들렸다는 옛 대원들의 고증에서도 이 농악이 전통적 기충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6) 김우현, 『농악교본』 세광음악출판사, 1984, 23쪽

57) 이보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4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555쪽

58) 『한국민속대사전』 (1) 민족문화사, 1991, 387쪽

둘째, 도리원농악은 속초지역만이 갖는 어촌문화에 접목된 뱃고사굿을 쳤다는 점이다. 필자의 보고서에는 든대질놀이 때 농악이 들어갔음을 밝힌 바 있는데, 59) 이번 조사에서 뱃고사굿의 과정과 그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뱃고사굿은 고사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끝나면 배위에 타고 항구를 한바퀴 돌았다. 무동들은 이때 배에 타거나 참가하지 않았다. 이것은 도리원농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리원농악은 걸립굿 때 ‘질꾸내기’ (길군악, 질꼬내기라고도 함) 장단을 쳤으며 놀이판에서는 삼채덩덕궁이를 중심가락으로 활용하였다. 놀이내용은 걸립굿, 황덕굿, 진놀이, 삼동고리받기, 열두발상모의 개인놀이와 농사풀이가 있었다. 특히 농악대에는 ‘질라잽이’라는 안내자와 ‘화동’이라는 잡색이 있었으며 농사풀이는 팔벽구와 팔무동이 연출했다.

넷째, 도리원농악의 복색은 다른 농악과 차이가 있는데 상모는 짚상모를 썼으며, 어깨끈도 청홍색을 하나로 겹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쪽만 매고 황색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것은 1950년대 사진으로도 확인된다. 즉 징, 장구, 북, 벽구 등의 악사는 분명히 한쪽으로만 색띠를 매었으며 무동만 치마저고리를 입고 양어깨에 색띠를 매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지역에서 일률적으로 양어깨에 엑스자로 청홍황색 끈을 매는 것과 다르다. 60)

끝으로 속초도리원농악대의 활동사항과 특징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연혁]

- 1900년대 이전 농악대 구성
- 1910년대 이설기 씨에 의해 지역농악에 경기농악이 가미된 색다른 농악전승
- 1930~40년대 대포동 별신제 등에서 공연
- 1945년 8월 15일 속초에서 개최된 광복절기념 농악대회 우승
- 1950년대 삼척, 경기 지역 등에서 공연
- 1986년 설악문화제 초청 도리원풍년마당놀이로 공연
- 1995년 속초도리원농악대 재창단, 엄상원, 양형석, 최철수 씨 중심
- 1997년 제15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1년 제1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 2002년 남산골 한옥마을 초청공연
- 2004년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엄상원 씨 연기상 수상
- 2005~2006년 정월대보름제, 설악문화제 초청 공연
- 2007년 제22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 공로상 수상

59)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37쪽

60) 이 점은 영북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교암농악의 사례와도 일치한다. “징잽이, 장구잽이, 북잽이는 한쪽 어깨와 허리에 가사(색띠)를 메고 가사를 쓴다. 범구잽이는 한 쪽 어깨 허리에 가사를 메고 병거지를 쓰는 범구잽이의 병거지는 상쇠의 것과 같되 초리가 5척이나 되어 쓰면 땅에 달는다. 무동은 여자 옷에 남색 덧저고리(남쾌자)를 걸치고 양어깨 그리고 허리에 가사(색띠)를 매고 고깔을 쓴다.”고 하였다.

강원도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8책, 강원도편,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77, 536쪽 참조

## [참고문헌]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8책 강원도편,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77
- 권희덕, 농악 · 선예굿 · 악기놀이, 후반기출판사, 1981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 · 풍어제 · 민요편, 문화재관리국, 1982
- 류무열, 한국의 농악, 강원일보사, 1983
- 김우현, 농악교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정병호, 농악, 열화당, 1986
- 장정룡, 속초의 민속, 속초문화원, 1987
- 장정룡, 설악제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내고장 문화논단 지방문화와 향토축제, 속초문화원, 1989
-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 강원도, 강원의 전통민속예술, 1994
- 장정룡, 속초지역 문화활성화, 속초연구 2호, 속초지역개발연구소, 1996
- 국립문화재연구소, 강릉농악, 1997
- 장정룡, 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 장정룡 외,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강릉대박물관, 강원도 속초시, 1997
- 장정룡 · 김무림, 속초 청호동의 민속과 언어, 속초문화원, 1998
- 장정룡 · 양언석, 속초지역 구전설화집, 속초문화원, 1999
- 장정룡, 속초시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 계획, 속초시, 2000
- 장정룡, 속초영랑호 설화의 형상화 계획, 속초시, 2000
- 속초시 · 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보는 속초, 강원인쇄사, 2001
- 장정룡 외,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속초문화원, 2002
- 한정규, 속초의 옛 땅이름, 속초문화원, 2002
- 장정룡, 강원도민속연구, 국학자료원, 2002
- 장정룡, 속초시 매곡 오윤환선생 선양사업기본계획, 속초시, 2003
- 장정룡 · 이한길, 속초의 민요, 속초문화원, 2003
- 장정룡, 강원도거주 독립운동가 및 강원도 거주 실향민생애사 조사연구, 강원발전연구원, 2005
- 장정룡, 설악문화제의 민속학적 의미와 발전방향, 설악문화제 문제점과 발전방안 세미나, 2006.4.20
- 장정룡 외, 속초민속발굴과 도문메나리농요 전승, 속초시 · 속초문화원, 2006
- 장정룡, 강릉단오제 현장론탐구, 국학자료원, 2007
- 장정룡, 밤해사자료기초조사 학술연구보고서, 속초시박물관, 2007
- 장정룡 외, 속초지역 실향민 구술조사보고서, 속초시 · 속초시박물관, 2007

## [구술조사1]

- 조사일시 : 2008년 1월 31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조사장소 :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회관
  - 조사자 : 장정룡
  - 제보자 : 김동섭(남.75) 김덕수(남.68)
- (이하 조사자는 '조'로 표기하고 제보자는 '성'만 기록한다)

조: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도문동 농요가 강원도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도문동에 계신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으로 농악을 계승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속초지역에도 농악이 여러 곳에 있었지만, 속초도리원농악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새롭게 발전을 시켜야 하므로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증을 토대로 예전 모습대로 재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몇 분에게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농악대에 참여하셨던 엄상원, 김동섭, 양춘석 어르신 이외에도 고증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잘 기록하여 재현하고 전통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면 도리원 지역이 농악마을로 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후배들에게도 물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예전 농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김: 김동섭입니다. 올해 일흔 넷입니다.

조: 태생은 어디신가요?

김: 원래 여기서 나서 여기서 살고 있어요. 선친들은 경상도 경주에서 나왔는데 경주 김씨이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곳으로 와서 우리가 한 사오 대째 지금 살고 있어요.

조: 몇 세 때 처음 농악을 보셨어요? 아주 어려서 물론 보셨겠지만요?

김: 도리원 농악은 옛날 어른들이 농악하는 것을 그때만 해도 어렸을 때니까 봤지요. 그전에 우리가 6.25사변 나고 한 열 대여섯 살 때 보았고, 사변 전 왜정말기에도 농악하는 거를 어렸을 때 구경했습니다. 이 동네가 농악을 오래했어요. 그래서 구경을 많이 했지요. 농악을 나 많은 이들이 하고, 젊은 사람들이 했구. 그리고 농악놀이하는 거는 무슨 놀이, 짐(김)매기, 타작하는 거, 그런 거 십자놀이하고, 골뱅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요. 나는 귀경만 했지요. 몇 년 전에 도리원 농악 양반을 했어요.

조: 예전 보셨을 당시에 농악 하시던 분들이 누가 있었나요?

김: 제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저 사람 양춘석 씨인데, 제일 막내지요. 시방 다 작고하고 엄상원 씨가 그 양반이 남았는데 거동도 힘들어요.

조: 그때는 농악을 언제 했습니까? 정월 대보름에도 하시고요?

김: 정월대보름에도 하고, 설 이런 명절 때도 하지만, 여기는 내가 보기에는 그전에 별신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별신할 때 도리원에서 농악도 했을 뿐 아니라 부월리, 도문동 이런 데도 가고, 농악을 했는데 아야진 장에서 별신할 때도 그때 모두 가서 했지요. 도리원 농악이 아야진에서 이등했니 뭐 그러드라구요.

조: 그때가 언제쯤 되나요?

김: 제가 잘 모르지만 육이오 전 왜정 말년 쯤 될 거예요. 농악하러 가는 것만 알았지요. 여기 마을회관 마당에서 뭐뭐 다 저녁으로 연습했지요. 여기가 동사(洞舍) 자리니까요. 주위 마을사

람들이 “저기 도리원 사람들은 밤낮 두드리고 모여 그런다”고 했어요.

조: 농악은 아무래도 농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연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김: 밤으로만 해요. 낮에는 일하구. 기리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 동생(김동수)하고 우리 아버지(김경대)가 농악에 골수분자들이지요. 아버지는 경자 대자예요. 동생은 김동수라고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구 그 양반들이 다 없고 동생들이 했지요.

조: 아버님은 악기를 뭘 하셨나요?

김: 채, 팽과리를 하고, 동생은 벽구(법구)하고, 저기 사람하고(양춘석) 들어서 같이 했어요.

조: 그러면 아버님에게 쇠를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김: 근데 전에 그 양반들이 여기에 이설기 써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들하고 이제 같이 했지요. 원래 우리 아버님도 채는 그전부터 쳤구요.

조: 여기 분인데 여기 채를 치셨구요. 이설기 써는 여기 분이 아니지요?

김: 강릉 분인데 일루 이사를 왔지요. 어려서 이동네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살면서 그 농악을 그 양반이 그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지 한 칠십년 되었지요.

조: 그러니까 이설기 어른이 오시면서 부친이 같이 힘을 합쳐서 농악이 활성화되었군요?

김: 그전부터 이 동네는 농악이 있었는데 같이 더 했지요.

조: 김선생님 아버님께서 상쇠를 하시고 어디어디를 이렇게 다니셨다고 하던가요? 아까 이야진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김: 이야진도 가고, 사방 돌아다녔지요. 양양 어디를 갔다 왔는지 농악노는 데는 다 맹겼어요. 그래서 가지구 이 다리가 큰 다리가 있었는데 농악으로 벌어서 다리를 놓았다고 그러드라구요. 맹기면서 걸립을 했구요. 그리고 시내 바다로 내려가서 뱃고사도 지내고요. 아주 우리 동네에서는 문화재가 될만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아주.

조: 농악대가 가서 뱃고사 지내는 것을 보셨어요?

김: 배를 만들어서 띄우면 우리 도리원 농악이 나가서 치고. 거기 최경수 써라고 그 사람이 고사도 아주 잘하고, 새납도 여기서는 최고라고 해요. 그 양반만큼 새납 잘 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없다고 해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조: 할아버지 사진이 있으시지요? 농악하시던 모습이 있나요?

민병희(최경수 씨 부인): 안 찍어 두었어요. 주민등록증 사진만 있어요.

조: 최경수 씨가 농악대원으로 새납을 잘 불고 고사반도 잘하셨군요. 그러면 뱃고사에 도리원농악대가 갔을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 배가 고기를 많이 잡으라고 했지요. 배선주가 청하지요. 속초항 전 어부들이 초청해서 시내 내려가 살다시피 했어요. 이 양반이 고사지내는 데는 천재래요.

조: 대개 보면 고사반을 할 때 팽과리를 치면서 하는데요, 고사지낼 때 어떻게 하셨나요?

김: 이제 그 양반이 팽과리를 치면서 “이 집 짓고 삼년 만에 아들을 나면 효자를 나고” 그러면 서 했어요.

조: 오늘 도리원농악에 새로운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농악이라면 보통 농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속초는 바다가 가까우니까 뱃고사 농악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김: 그 아주 뱃고사 드리리 많이 갔어요.

조: 그러면 배가 크던 작던 청하면 갑니까?

김: 가지요. 그전에 발동선이라고 하지요. 목선을 만들어서 사뭇 기를 잔뜩 키우고는 팽과릴치고

나가다가는 전수 이렇게 물에 빠지기도 했어요. 나가다가 이 배가 어떻게 기울어져서 물에 모두 빠지고 그랬어요. 배에 타구서 나가요. 나가서 저기 섬 있는데 돌아서 와요.

조: 이제 만든 배를 든대질해서 날바리에서 바다에 진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농악대가 배에 타서 팽과리를 치면서 가서 그 배를 타고 한바퀴 돌아서 온다는 말이지요? 그럴 때 대개 만 선기를 꽂던데요? 풍어를 기원하는 것이지요?

김덕수: 배에 준공식할 때, 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배를 바다에 띄울 때 거기에 타고서 꽉 기를 달고서 농악대를 신고서 바다를 돌아요. 한바퀴를 돌지요.

조: 그러니까 보셨다는거죠. 언제 이렇게 기를 꽂고 뱃고사 지내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오십년전인가요?

김: 그렇지요. 육이오 사변 나고도 맹겼어요. 장재터도 가고 뭐 사방 돌아다녔어요. 복골도.

조: 장재터가 설악동 부근인데 거긴 왜 가셨나요?

김: 집집마다 다니면서 돈 벌려요. 돈벌려 맹겼어요. 다리 놓으려고요. 우리 아버지 살았을 때 팽과리해서 다리 놋다고 들었어요.

조: 그럼, 다리 이름이 뭡니까? 다리 걸립을 한 것이잖아요?

김: 그렇지요. 소야천에 큰 다리지요. 그전에 다리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여기 속초일대는 그렇게 큰 다리를 시멘트로 놓은 것은 이것 밖에 없었어요. 기찻길 내놓고는 그 다리 밖에 없었어요.

조: 그 당시에 걸립을 얼마나 한 것으로 기억되십니까?

김덕수: 다리 발이 세멘이니까 그 다리가 여기 물방아간 옆에 있었거든요. 물방아 옆에 다리를 놋어요. 그 주변으로 내려가면서 하천 옆으로 오리나무가 큰 것이 있었어요.

김: 그전에 경치가 말이지요, 기차타고 가면서 여기 노학동 골짜기를 디다보면 이 하천 옆으로 오리나무 이런 기 꽉 찼잖아요. 그기 지금 경지정리가 되어가지구 저렇게 되었지요.

김덕수: 행상들도 그 옆에 있었어요.

조: 옛날 사진을 보니까 물레방아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옆에 다리는 전부 농악대원들이 걸립을 한 돈으로 놓은 것이군요. 다리가 완공되었을 때 흥겹게 노셨겠군요? 이 마을 분들이 흥이 있으셨군요?

김: 그럼요. 아, 유명했었어요. “여기 와서는 노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동네 와서는 요.

조: 그러니까 어르신 말씀하신 대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 했던 걸립, 그리고 뱃고사 지낼 때 이 제 배내릴 때 하는 농악이 있었군요.

김: 가끔 농촌으로 다니면서 이제 집고사를 했어요. 정초에는 주로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조: 대보름 전후하여 고사 걸립을 하셨겠군요?

김: 그러니까 어디루 나갈 때는 여기 서낭당에 가서 서낭굿을 치고 나가구, 또 다리를 새로 놋거나 다리를 갈 때는 다리굿을 치고,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우물굿을 치구, 이제 농악이 돈 벌려 나갈 때는 서낭님한테 가서는 “서낭님 서낭님 동네밖에 서낭님” 이제 그 양반 최경수 씨가 언제 팽과리를 치는데 꼭 사람 말하는 것처럼 하지요. 팽과리 소리가 꼭 그렇게 들려요. 그리구 언제 우물굿을 칠 때는 따로 치고, 다리굿을 칠 때는 “다리다리 잘넜다 다리다리 잘넜다 칠렁칠렁 건너라 칠렁칠렁 건너라” 그 아주 사연이 많더군요. 출렁출렁이 아니고 칠렁 칠렁하더군요.

조: 서낭당은 지금도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김:나무인데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소나무인데요.

조:몇 년 쯤 된 나무인가요?

김:우리가 보기에는 몇 백년 된 것 같지요.

조:서낭당 제사를 언제 지내시나요?

김:3월달 9월달, 3월 3일하고 9월 9일 지내요. 네 시나 다섯 시쯤 지내요. 저녁에. 초현관은 부  
락 통장이고, 우리들은 제관이지요. 도가는 통장이 생기를 봐서, 두 부부가 생기가 맞으면  
그 집이 도가를 하지요.

조:그러면 유건을 쓰거나 도포나 두루마기를 입나요?

김:그전에는 다 했어요. 도포같은 것은 입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쓰신 축문도 있었어  
요.

조:그러면 그 서낭당 소나무 아래 제물을 차려놓고 초현, 아현, 종현하고 축문 읽고 홀기외우고  
그러셨겠네요? 거기서도 농악을 하셨나요?

김:아니요. 그때는 농악을 안했어요. 축문을 읽고 집집마다의 소지를 올려주고요.

조:그러면 제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서낭당제사와 다른 점이 있었나요? 특별히 어물이라든지.  
소를 말이라고 하지요?

김:옛날에는 소를 한 마리를 사지요. 도살장이 대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통마리를 다 갖다  
놓고 제를 지내지요. 화소로만 쓰지요.

조:그러면 황소만 쓰네요. 머리하고 다 사족을 쓰겠네요.

김:그걸 갖다가 네발때기로 뚝 갈라서 머리하고 다 갖다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다 타살을 해  
가지고 동네가 이제 팔십 집이면 팔십 몇을 저울로 달아서 생 걸로 나누지요. 생고기를 놓  
고 제사를 지내니까요.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삶아먹지요.

조:제관들은 제사가 끝나면 고대로 나누어서 음복하고 집집마다 제물을 봉하지요. 시루떡도 나  
누고 생고기도 나누어주고요.

김:그래, 대포로 별신맞이하러 가는 날에는 서낭당에서 먼저 가서 하는데, 마을에서 제사지낼  
때는 먼저 서낭당에 가마를 걸구 그걸 삶아 가지구 제사지내고 나서 아주 좀하고 국물도 골  
고루 나누어줘요. 우선 우리가 음복하고 안주하기 위해서 삶는 거구요. 나누어주는 것은 화  
소를 생고기로 나누어요.

조:마을에서 농악대원이 외부로 나갈 때 서낭님을 모시는데 갔다 와서도 지냅니까?

김:올 적에 들려서 오지요. “서낭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지요.

조: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김:뭐, 이제 신세대들은 안하지요. 농악대가 없어지면서 안하고, 마을제사는 지내요.

조:제사를 지내려면 비용은 결립을 하시나요?

김:그러니까 유교식으로 하는데 호구당 얼마씩 걷지요. 그 전에 옛날에는 제전이 있었는데 그걸  
팔아가지고서는 회관도 짓고 했어요. 우리 공동논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통장 수고비도 주고  
제사도 지냈는데 팔아서 회관을 지었어요. 동네논이 천사백 평이 있었어요. 삼환아파트 있는  
거기예요.

조:이곳 소야뜰에는 소야팔경이 있던데요? 온정조하, 청호마경 등이 있는데 이곳은 농사가 중심  
이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상쇠셨으니까 자연히 농악을 들으셨겠네요?

김:그런 걸 지금 같으면 귀담아 들었겠지만 맹기니깐 만날 놀러만 맹기는 줄 알았지요. 난 농

사밖에 아는 게 없어요. 사람만이 꾀이는 데는 농악이 제일이예요.

조:마을에서 삼월 삼진과 구월 구일 제사 때에는 농악을 안치고 정초에서 대보름 사이에 걸립 농악을 치시고, 다리 놓을 때는 다리굿을 치고, 그리고 배를 이제 내릴 때 가서 뱃고사를 지내지요. 그 뱃고사 놀 때는 어떻게 노시나요?

김:농악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동이 가서 춤을 추고 이러는 건 아니고, 무동은 없고, 악사들하고 앞에서 고사 올리는 양반하고, 배 앞에 제물을 차려놓지요. 거기서 고사를 지내고 한바탕 놀지요.

조:놀 때는 배 위에 올라가지 않지요?

김:발동선 큰 배는 그 위에 올라서 빙빙 돌아 댕기면서 농악 놀더라고요.

조:그 위에서 장단은 신나게 치겠네요?

김:이런 데서 치는 거는 질꾸내기나 삼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고 그러지요.

조:질꾸내기는 행진할 때 치는 거고, 삼채덩덕궁이는 흥겹게 놀 때 치지요.

김:한참 흥겹게 놀 때 삼채덩덕궁이를 치지요. 횡덕굿이라고도 하고, 사방 모여서 신나게 치고 놀지요.

조:농악대 복색은 어떻던가요?

김:상모도 쓰고 무동은 고깔을 쓰고요. 상모는 병거지 꼬랭이를 달고, 악사들은 상모위에다가 꽃만 달고, 인제 벽구쟁이는 한 발씩 되는 꽁지를 달지요.

조:그걸 채상이라 그러지요?

김:여기는 ‘병거지꼬리’ 라 그래요.

조:다른 데서는 ‘퍽상’ 이라서 해서 수술같은 것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김:여긴 거냥 꽃만 달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움직이는 건 없어요.

조:꽃의 색깔이 어떻던가요?

김:그러니깐 하얀 것에다가 끝에는 발그레하게 장미꽃 모양으로 하지요. 전부다 그전에 하마 어 디루 간다하면 그걸 며칠씩 맨들어요. 신문지를 인제,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디 댕기며 문종이 뜯어놓은 거, 신문지 이런 거를 전부 물에다 불궈 가지고 풀에다 이렇게 섞어 식기를 요렇게 엎어놓고 자꾸 이렇게 봉해가지구 며칠 말려가지구 농민모자마냥 맨들지요. 그래 가에는 빨간 걸로 뻥 돌리게 하고 밑에는 새까만 거로 하고요. 위에 돌아가는 거는 박달낭그(나무)로 만들어요. 고걸 요렇게 깍지요. 맨드는 거 우리가 많이 봤지요. 자전거 체인줄로 엮어 실로 감아서 하지요. 만들라면 그거 뭐. 그래 식기 같은 거를 엎어놓고 마른 다음에 여길 구녕(구멍)을 뚫구 박달나무로 깎은 꼬쟁이 고걸 여기 박지. 박아 가지고 요 밑에 구녕을 뚫고 벚장을 친다구.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지금처럼 보도를 박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게 없으니 이게 요만큼 나오면 요길 구녕을 뚫고서는 벚장을 친다구. 덜미꼭지에다가. 그래가지 구 실을 양초를 매겨가지구 꼭지에다 칭칭감았지.

조:상모는 이렇게 두 가지고요. 머리에 고깔을 쓰잖아요? 고깔은 누가 쓰나요?

김:무동이 주로 많이 쓰지요.

조:무동은 팔무동인가요?

김:원래 팔무동 팔벽구인데, 여덟 명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무동이 고깔에 꽃을 달잖아요? 몇 개나 달게 되나요?

김:그러니까 하나 둘, 한 네 개를 달지요. 분홍색깔 약간 장미꽃 색깔처럼 그렇게하고, 꽃잎 위로는 발그지하고 밑으로는 푸름하게 한다든가 하얗든지 그렇게 하드라구요.

조: 그걸 만들 때는 종이는 어떤 거를 쓰나요? 한지든가요?

김: 한지가 아니고 뭐 백노지 같은 거로 해요. 그걸 꼬불꼬불하게 만들자면, 지금은 그런 종이가 나오는지 몰라도, 그전에는 나무에다 쪽 이렇게 말아 가지고 쭉 압축을 시키고 쑥 빼니까 조글조글하게 되더라고요. 끝에다 요기다가 물감을 들이고 자꾸 말아서 맨들더라고요. 나갈 어른들이 만드는 거를 보니까 그렇게 맨들드라고요. 고깔 바탕은 삼각형으로 지금 같으면 골판지 같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종이를 겹겹이 풀을 발라서 말려 가지구 이제 만들지요. 고깔 바탕은 흰 색깔이지요.

조: 그러면 복장은 어떤 것을 입었나요?

김: 그때는 한복을 입었지요. 바지저고리, 광복이지요. 옛날 50년대 찍은 사진에 보면 나와요. 끈은 파란끈, 빨간끈, 띠는 노르한 거 하고, 신발은 운동화 같은 거 신고, 행전 쳤어요.

조: 무동은 어떤 옷을 입나요? 아래위로 치마저고리를 입지 않나요?

김: 될 수 있으면 일괄로 한 색깔로 입드라구요. 그리고 띠를 두르고 쾌자를 걸쳐요.

조: 무동은 다 남자들이지요?

김: 옛날에는 남자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인들이 하지요. 우리가 삼척갈 때는 부인들이 많이 갔지요.

조: 등장하는 악사부터 말해볼까요?

김: 상쇠, 부쇠, 그러니까 상쇠는 하나지만 부쇠는 세 사람도 할 수 있고, 부쇠 뭐 주로 농악노는 거는 상쇠는 쇠머리만 딱 잡아주면 데리고 노는 거는 부쇠가 짹 데리고 놀아요. 십자도 하고, 베 비는 것도 하고, 뭐 탈곡하는 것도 하고 짐(김)매는 것도 하고 시키는 거는 상쇠는 쇠꼭지만 눌러주고는 그 데리고 움직이는 거는 부쇠가 짹 하지. 실은 부쇠가 기술이 더 좋지. 하하하

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농사놀이가 많네요. 김매고 하는 등 농사하는 과정을 노시잖아요. 김맬 때는 김매는 흉내를 내시나요?

김: 주로 농사놀이지요. 짐맬 때는 짐매는 흉내 내고, 베 빌 때는 베비는 흉내 내고, 또 탈곡할 때는 탈곡하는 흉내 내고, 손으로 짚단 내던지는 흉내를 내고 그러지요.

조: 우리가 동고리받기라고 그러잖아요. 태우는 거요? 삼동고리나 오동고리를 했나요?

김: 예전에는 했어요. 삼동고리까지 했어요. 밑에 둘이서 있고 위에 한 명 올라서고 그 위에 조그만 애가 올라가요. 상모는 위에서 못 돌렸어요.

조: 열두발 상모도 돌리셨나요?

김: 옛날에 여기 열두발 상모가 있었어요. 그 양반들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조: 보셨을 때 질꼬내기 치고 가서 마을에서 걸립농악을 할 때 상쇠가 있고 부쇠가 있고 그담에 징이 있었지요?

김: 정도 여기 두어 개 있지요. 장구도 두 서너 개씩 있고, 그담에 벽구도 팔벽구하고 소고도 여덟명, 무동도 여덟 명이예요.

조: 농악대 끝에 잡색이라고 탈 쓰고 나오는 인물이 있나요?

김: 그걸 '화동'이라 그래요. '화동' 아주 웃기는 사람. 영감님처럼 하나요. 한 명 있어요. 수염만 쓰고 가면은 안 써요. 양반을 만들었는데 그걸 옛날에는 '화동이' '화댕이' 라 그랬어요. 아주 사투리지요.

조: 그 담에 벽구라 그러니까요? 벽구쟁이 그러니까요?

김: 벽구쟁이 그래요. 상벽구, 벽구쟁이, 무동(무동) 그래요.

조: 무동을 무동, 속초사투리인데요. 제일 기억 남는 놀이가 뭐가 있었나요?

김: 그러니까 주로 농사과정을 하는 것이 재미있지. 우리가 또 알고, 하는 일이고 하니까 그런거 하면 아 그게 재미있다 하지요.

조: 김매는 과정에서는 김매는소리 같은 것도 하나요?

김: 근데 여기는 미나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독떼기나 미나리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는 지금 드물어요.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셨어요. 운석이 할머니, 동훈이 할아버지가 좀 잘했나요? 우리두 그걸 좀 따라하다가 못했어요.

조: 김멜 때 메나리나 오독떼기를 농사할 때 김매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농악할 때 농사눌 이하면 소리를 하나요?

김: 소리하는 양반들이 있어서 그때는 했어요.

조: 놀이 중간에 소리가 들어가지요. 마댕이소리도 하지요. “에헤 마댕이야” 그러지요.

김: 그래 인제 농악이 놀다가 상쇠가 쇠꼭지를 바꿔주지요. 그러면 부쇠가 그걸 따라서 치지요. 쇠를 치며 노는 사람들이 사채덩덕궁이 같은 거를 치면 신나게 마을사람들이 덤벼들어서 같이 놀지요.

조: 농사놀이 말고도 진놀이가 있잖아요?

김: 십자가 그리는 거, 글 새기는 것도 하더라구요. 글은 대한독립만세 이런 걸 그때 보니까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사람이 일루 갔다 절루 갔다 볶아치니까 제자리를 못 찾아서 빙빙 돌아치구. 골뱅이하고 그랬어요.

## [구술조사2]

- 조사일시 : 2008년 1월 31일 오전 11시~오후 1시
- 조사장소 :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회관
- 조사자 : 장정룡
- 제보자 : 양춘석(남.65), 김동섭(남.75), 장기순(남.62), 최식중(남.71)  
(이하 조사자는 '조' 제보자는 성씨만 기록한다)

조: 이름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양: 양춘석, 속초시 노학동 147번지, 여기서 태어나 가지고 여태 것 살지요. 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았어요. 양양 가래피 양씨지요. 남원 양씨.

조: 남원 양씨지요. 가래피가 어디예요?

양: 양양 오색리, 동네 이름.

조: 농악을 처음 몇 살 때 했어요?

양: 초등학교 졸업하자 배웠어요. 온정초등학교, 그기 그전에는 설악국민학교였어요. 설악초등학교 3회예요.

조: 설악국민학교는 옛날 주봉초등학교 아니예요?

양: 그거는 도문에 있고, 설악국민학교였어요. 도문으로 넘어가고 예전 온정초등학교가 되었어요.

조: 동네에서 농악할 때 무슨 역할을 하셨나요?

양: 처음에는 무동하다가 그 담에는 벽구. 계속 벽구쟁이했어요.

조: 벽구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김: 지도는 성만이 아버지 이설기 씨가 했어요.

양: 나는 하나 가지고 와서 집에서 된에서 상모 돌리는 거 혼자서 배웠어요.

조: 상모 돌리는 거를 혼자서 연습하셨군요.

양: 내가 배울라고 욕심을 썼기 때문에 된이 넓으니까 혼자 했어요.

김: 이 양반 형도 했어요.

조: 형님 성함을 어떻게 되세요?

양: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양홍석이예요.

김: 두 형제가 같이 벽구를 했어요. 상모는 한지를 이렇게 파 가지고 요렇게 돌려서 가에 돌려요.  
그래서 뚫어놨지요.

조: 그러면 농악을 어려서부터 배웠잖아요. 예전에 상쇠를 누가 하셨어요?

양: 이설기 씨가 상쇠를 했어요. 그 양반이 했어요. 엄상원 씨가 부쇠를 하고, 그러다가 그 양반들이 다 작고하니까 상쇠를 했어요.

조: 그럼 계속 벽구만 했나요?

양: 그럼요. 첫 번에 한 일년은 무동하고 그 담부터는 벽구를 했어요.

조: 벽구를 어떻게 했어요?

양: 그걸 돌리게 되면 자연히 돌아가게 되었어요. 병거지만 돌렸어요.

조: 농악 놀 때 벽구가 하는 장면이 어떤 게 있나요?

양: 많지요. 그걸 델라면 많지요. 아까 그 말마따나 김매고 벼베고 그럴 때 하던 게 자연히 쇠만 들으면 뭘 한다는 걸 알지요.

조: 그러면 초등학교 때 하고 60년대까지 하셨나요?

양: 시 승격하고 할 때 했고, 80년대까지 했어요.

조: 그전 노학동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도리원이 있고 이목리, 척산, 노리, 응골, 학사평 등 아홉 개 부락이 있었다고 하는데 주변에 다 농악이 있었나요?

양: 없었어요. 이 동네 밖에 없었어요. 도리원만 있어요. 노학동 대표로 도리원이 나갔어요. 정월 대보름날 되면 노학동 싹 돌아 맹겨요. 돈벌이 맹기라. 고사 드려주면 쌀 주고, 쌀하고 말에 돈 올려놓고 실 올려놓고 그래요.

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설기 씨가 여기 오기 전부터 노학동에서 농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제시대 초기인가요? 1910년쯤 되나요?

김: 그 양반이 강릉서 여기 들어오기 전인데, 내가 어려서 잘 모르지만, 그전에 하마 농악을 했거든요.

조: 그러면 구한말에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했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농악 역사는 한 백년쯤 되겠군요. 그러면 벽구쟁이 할 때 동구리도 했나요?

양: 그건 안 해봤어요.

조: 그러면 상모도 만들어봤나요?

양: 만들었지요. 개인으로 가지고 와서 했지요.

김: 여기 와서 여럿이 만들어요. 시영이 아버지가 와서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선생이야. 다 만들어서 주면 가지고 가서 했지.

조: 시영이 아버님 성함은 어떻게 되나요?

김: 이호영 씨인데 그 양반들이 나이가 많은데, 김세열 씨가 만들었어요. 그 양반들이 상쇠도 하고 상벽구도 하고, 북도 만들었어요.

조: 이호영 씨가 상모도 만들고 그랬군요?

김: 그 양반들이 만들어서 자급자족했어요.

조: 예전에 농악하시던 분들이 이호영 씨, 김세열 씨, 엄상원 씨가 있으신데요. 아버님도 같이 하셨나요?

김: 우리 아버님(김경대)은 이 양반들 그 전에 했지요. 이설기 그 양반들하고 같이 했어요.

조: 그러면 도리원 농악 1세대 주축이 김경대, 이설기, 최경수 씨가 되겠네요. 2세대는 이호열, 김세열, 엄상원, 양춘석 씨가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3세대 되겠네요.

김: 장구, 북, 소고 만드는 쇠가죽을 어디서 가져 오냐면 서낭제사 지낼 때 소를 잡거든요. 그 소 껌질을 거기다 주지 않고, 우리가 갖다가 집에서 말려서 제작하여 소고도 만들고 했어요. 김주섭 그 분이 북을 만들었어요. 살았으면 한 백세 되었어요. 그분이 경을 했어요. 복술. 그걸 했어요. 그래 그 양반이 북도 잘 맨들고 이 농악에도 좋아하고, 힘도 장사고. 쌀도 잘 짚어지구 그랬어요.

조: 김주섭이란 분이 살았으면 백살이 넘지요. 경쟁이란 말이지요. 마을에 일이 있으면 경을 읊어주고 그랬지요. 이 분도 농악대원인가요?

김: 그럼요.

조: 오늘 예전 농악대원 여러분 이름이 나오네요. 이호영, 김세열, 양홍석, 김주섭 이런 분들이 나오네요.

김: 거기에 김종대, 이호춘 이 양반들이 벽구예요. 이 양반이 끝벽구예요.

조: 혹시 무동하시던 분이 계신가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장: 장기순이예요. 육십 둘이예요.

조: 태생이 여기신가요? 무동을 하셨다구요. 몇 살 때 처음 하셨어요?

장: 어렸을 때 했어요. 열 대 여섯살 때 했어요.

조: 그러면 초등학생 때인가요?

장: 아, 졸업했지요. 집에 있을 때지요.

조: 무동을 어떤 동기로 시작하셨나요?

장: 그때 동네에서 농악을 하는데 안하면 안 되잖아요. 어른들이 붙잡아서 끝무동으로 시작했어요. 저기 저 양반(최식중)이 상무동을 했어요.

조: 무동도 춤사위가 있잖아요? 손바닥을 뒤집는다든지. 어떻게 했어요?

장: 이렇게 하라고 어른들이 시키면 그대로 했어요.

조: 그러면 어디어디 가서 농악하셨어요?

장: 복골, 장재터, 이 시내를 다 했어요. 음력설 셋다 하면 정월달 내로 돌아댕겨요. 척산 뭐 절로 다녀요. 청대리고 뭐고. 그때는 뭐 차가 있나 밤중에 왔지, 걸어서 열두시 넘어서 들어오지요.

김: 집에 있어보면 저기서 농악 치면서 와요. 우하고 나가보면 대단하지요.

장: 그래서 쌀을 벌면 동네로 짚어지고 오는 사람이 따로 있지요. 질꾼이 따로 있어요.

조: 그러면 한번 가면 쌀이 얼마나 걷히나요? 한 가마니씩 걷나요?

장: 아유, 한가마니가 뭐예요. 몇 가마니 씩이예요. 한 집에서 한 말씩 내놓으니까요. 그러면 집집마다 고사 드려 줘야 되요. 그러면 돈 내놓고 실 한뭉텅이 내놓는 집도 있어요.

김: 자손들의 명이 길게 해달라고 실을 내놓아요. 쌀은 말마다 수북하게 내놓아요.

장: 한번 나가면 쌀 열댓 말씩 거둬 가지고 와요. 집에 가면 부엌에 가서 신에게 쳐달라고 해서 치구 또 뒤에 가서 치구, 마당에서 치구 그래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 그때는 무동도 같이 따라 다니나요?

장: 그럼요. 같이 따라 다녀요. 쌀받고, 돈받고, 상에다 놓으면 받는 거는 무동이 받아요. 증(징)에다 받아요.

김: 제일 꼬마무동 끝무동이 재롱스러우니까 가서 징을 가지고 가면 쌀을 거기다 주지요.

조: 그러면 농악대에 상쇠도 있지만 이런 것을 관리하고 적고, 쌀을 걷는 사람이 있나요? 대방, 영좌 이런 직함이 있나요?

김: 총무가 있지요. 해영이 아버지가 그걸 했잖아요. 맨 앞에서 가면서 마을 구장한테 가든지 동네 죄장한데 가서 “우리 도리원 농악대가 들어왔으니 잘 부탁한다”고 앞에 가서 말을 하는 사람을 가지고 ‘질라래비’ 라 그래요. “질(길)을 알으켜서 데리고 간다” 그런 뜻이예요.

조: 이런 말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총무지요?

김: 질을 가르켜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지요. 지금 말하자면 안내자지요. 쌀이 얼마나오고, 한갑수 그 양반 말대로 순수한 조선말이예요.

조: 농악대를 초청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섭외를 하는데 그 역할 하는 분을 ‘질라래비’ 라 했지요. 그것을 누가 잘 하셨어요?

김: 그 양반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해영이 아버지, 이계춘 씨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해요.

조: 질라래비는 농악을 안하지요?

김: 그럼요. 어디로 간다고 안내하지요. 안면이 많은 분이 하지요.

조: 끝무동하실 때가 몇 세였어요?

장: 한 열 다섯 여섯 살쯤 되었어요. 어떤 때는 저물면 거기서 자고 오는 때도 있어요. 저물면 자요.

조: 어느 마을에 가셔서 자고 왔나요?

장: 복골 가서 잤어요. 많아요. 거진 가서 일주일 씩 있고요. 동네에서 다 해줘요. 진종일 해요. 아침에 나가서 술 먹고 떡 주면 떡 먹고, 정월달 되니까 영동 때까지 해요.

조: 영등날이 이월초하루잖아요?

김: 영동 올라가는 이월 십오일까지 해요. 초하루가 영등오는 날이지요. 초하루날 바람님이 오고, 보름에 가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해요. 대부분 정월보름부터 영등날까지 배타는 사람들이 초청을 해요. 고사를 해요. 속초시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진도 갔어요.

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최: 최식중입니다. 나이는 칠십 하나요. 여기서 나서 여기에 현재까지 있어요. 나팔부는 최경수 그 양반이 고사를 잘 드립니다. 그전에 왜정 때부터 해가지구, 우리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이걸루 해서 돈벌어 가지고 요 앞에 청대리 건너가는 그 다리 그거 놓구요. 그 담부터 여기서 버는 거는 지지한거는 우리 부락에 많이 해놨습니다. 상여도 만들고 곳집도 새로 지었지요. 걸립해서 지었어요.

조: 지금도 상여가 나갑니까? 이 마을에서 언제까지 나갔나요?

최: 아,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여기 보지만은 한 오년 전까지 상여가 나간 집이 더러 있어요. 왜냐하면 나팔부는 그 양반이 고사를 잘 드려서 아주 대우를 잘 받아서 영등지역에서는 일 등이예요. 나팔 잘 불지요, 고사 잘 지내지요. 속초부둣가에 가면 살풀이라고 있어요. 가정에 살풀이라는 거는 원래가 열 두 살풀인데 그걸 쑥 풀어줘요. 그리구 이제 그것도 돈 나오는 것이 있어요. 고걸 봐서 힘을 많이 주지요. 물에 빠져 죽었다하면 배타는 살풀이, 산에 가서 하는 살풀이 다 틀려요.

조: 그러면 농악대에서 상무동 하셨지요?

최: 아니래요, 상무동 하신 분은 죽었지요. 나보다 나이 더 먹었으니까 내가 두 번째 셨지요. 고기에 돌아가신 분은 윤기준 씨예요.

조: 그러면 몇 세에 무동을 하셨나요?

최: 열 일곱 살부터 했어요. 무동만 했어요. 딴 거는 안했어요. 하다가 결혼하고 먹고 살다가 공사일 다니고, 명절 때 대부분 일월 달과 이월 달에 하거든요. 그때는 공사판도 없으니까 그래서 한 사십 살까지 했어요. 그전에 다친 것이 있어서 춤을 못 춰요.

조: 무동춤의 특징은 무엇이 있습니까?

최: 내가 볼찍에는 무동춤이라는 거는 손바닥을 이렇게 하구 이렇게 하구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을 벌릴 때는 상대방의 행복을 찾구, 그 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여기 들어온 행복을 여러 사람과 같이 누리자, 이렇게 안을 때는 여렷이 행복을 같이하자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구요. 그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만 알았지요. 그래서 손을 뻗쳐 가지구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요. 발은 앞으로 요렇게 요렇게 잘랑잘랑하지요.

조: 뛰어 가면서도 하잖아요?

최: 그게 덕거리춤이라고 있어요. 덕거리는 번개질하고 옆에 나팔 불고 하면 무동들은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벽구잽이들도 안에서 하고 그럴 때는 덕거리춤 막춤을 추지요. 관람객들을 웃기기도 하구.

조: 덕거리춤이라고 했나요?

최: 그런 거는 막거리춤이지요. 막거리춤, 덕거리춤이라고도 하지요. 이렇게 무동들이 추지요.

조: 무동들이 소매자락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추던데요?

최: 웃끄네기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첫 번에는 가위로 요렇게 흔들고 찰랑찰랑 하지요. 손은 인제 그다음부터 ‘깽깽깽 자작 깽’ 하면 이렇게 하지요. 예쁘게 행복이 오라는 거지요. 막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요.

조: 농악대 무동이 끝에 따라오잖아요. 팔무동이지요?

최: 무동이 여덟이란 말이예요. 벽구잽이는 안에서 돌리고 나팔하고 북은 옆에서 하고, 북 장구를 때리면 우리가 그 안에서 놀지.

조: 농악놀이하던 때 옛날에 하신 어른들은 누구누구였나요?

최: 제일 우두머리 오야지가 이설기, 두 번째가 최경수 이 양반들은 한꺼번에 같이 핸 거요. 거기 제일 주모자가 최경수지. 고사고 뭐고 돈벌이는 그 양반이 다 별은거나 한가지지. 그 다음에는 북치고 장구 이런 거 만드는 데는 이(김)세열, 그 양반이 벽구잽이거든, 벽구잽이 오야지, 병거지 돌리는 거. 고답에 저 아래 대영이 아버지라고, 그 양반 이름도 까져먹었네. 거기에 제일 어린 것이 벽구잽이 양춘석이. 벽구가 팔벽구니까 제일 귀여움 받았어요. 병거지도 잘 돌리고, 저 거진 가서 제일 대우 잘 받았지. 거진 어판장 부둣가 살풀이할 때 어판장 지을 때 대우 잘 받았어요. 거기서 봉포 다니며 일주일씩 있었어요. 배타는 사람들 집은 거진 다 갔어요. 배타는 사람들이 “우리집으로 가자”고 끌고 이렇게 선착순으로 부락책임자가 따라 다녀요.

조: 무동하시다가 벽구하셨나요?

최: 그렇지요. 귀염 받았지요. 대부분 팔무동 팔벽구 그래요. 여기는 장구잽이가 셋, 북이 둘이고, 그 담에 날라리, 꽹과리가 서이고, 징이 하나, 벽구가 팔 명, 무동 팔 명 그렇지요. 그 담에 앞에 주선자가 두 명, 안내자가 두 명이 질라잽이, 화댕이가 한 명, 기수는 따로 있지요. 그 사람은 깃발만 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바람불면 깃발 들고 다니면 애먹어요.

조: 서낭대도 있지요?

최: 서낭대는 왕대로 만들어요. 깃발 들고, 한 사람은 서낭대 들어요. 그러니 두 사람이 들지요.

조: 한 사람이 든 것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쓴 것을 들지요?

최: 서낭대는 대나무에 깃발을 달지요. 삼베를 한 발 정도로 해서 거기에 달지요. 그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왕대에 이파리 댓개 달린 거에 삼베를 걸고, 한지도 달아요. 주렁주렁 달지요.

조: 그러면 그 당시에 무동하신 분들 성함을 기억하세요?

최: 그때 윤기준, 나 그담에 장기순, 이름을 다 까져먹었네. 다 죽었어요. 여자들이 또 있다구. 무동은 대부분 여자들이 했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했는데 남자도 팔 명, 여자도 팔 명 되었어요. 우리가 할 적에는 여자들이 했어요. 강릉갈 적에 여자들이 했어요.

조: 강릉갈 때가 언제였나요? 단오제 때 가셨나요? 아니면?

최: 오래 되었지요. 연도수가 오래되었어요. 강릉 저 주문진 사임당 거기 갔다오고. 팔일오 경축 할 때 양양이고 거기에 갔고. 그전에는 속초에 팔일오 해방경축으로 여기서 시합을 하면 강릉에서 오고 고성에서 오고 양양에서 오는데 일구 거기서 했는데 농악시합을 했어요. 거기서 도리원이 최고 일등을 했어요. 팔일오 해방 때, 해방 기념으로 인공 때부터 했어요. 축구경

기, 운동회예요. 거기에서 농악경연을 했어요. 그전에 일구시장이거든. 도립병원 있던 자리 그 앞에 바닷가에. 영랑동이 거기가 중심이예요. 고 밑에 시장이거든. 바닷가 거기, 부둣가 거기에서 했어요. 필일오 해방을 경축하는 뜻에서 농악도 하고, 씨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운동회를 했어요.

조: 거기서 농악대회를 했다는 말이지요? 어디서 왔나요?

최: 강릉도 오구, 북평도 오구, 양양도 오구, 주문진에서 오구.

조: 누가 심사를 했나요?

최: 그전에 여기가 면사무소잖아. 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심사를 했지.

조: 그러면 상장도 받으셨겠네요?

최: 그럼, 그게 불타 가지고 다 없어졌지요. 일등을 했어요. 상타 가지고 그날 밤새 놀았어요.

조: 그때 사진이 없으세요?

최: 불이 나고 그래서 다 없어졌어요.

조: 고사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김: 지금은 없어요. 옛날 양반들이 하는 거를 들었지요. 그전에 그러더라고. 저 신기네 아부지가 고사드릴 때 “울긋불긋 대추차지다. 도리깨작지로 넘겨다 쳐라” 그러더라고. “찰벼는 웃벼는 내 벼는 아랫논이고, 아들을 낳으면 효자고 말을 낳으면 용마고, 소를 낳으면은 우억부리요, 딸을 낳으면 열녀로다” 그랬어요. 그 양반에 옛날에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 고구려의 기상을 만나다

최상규 · 속초문화원 회원

### 1.

속초문화원의 문화탐방은 고구려의 기상을 만날 수 있는 4박 5일의 여정이었다. 우리나라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강은 백두산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두만강과 서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이다. 나는 백두산을 두 번 다녀오는 기회가 있어 두만강을 보았기에 이번에는 압록강을 본다는 마음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해 놓고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미리 여행갈 준비를 해 놓았다.

지난 10월 27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이는 마음을 가다듬고 집을 나섰다. 문화원에 도착해 문화원 원장님, 과장님, 임원, 회원들이 기쁜 얼굴로 서로 인사를 나누자 버스는 인천을 향하여 달렸다.



속초를 떠나 인천국제터미널에 도착한 시간은 3시 40분. 2시간 정도의 수속을 끝내고 승선하니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였다. 꼬박 하루를 타고 가야 되는

배 이름은 동방명주호라는 화물선이었다. 인천과 단동항을 오고가는 보따리상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로 보였다. 푸르고 깊은 느낌의 동해바다와는 사뭇 다른 느낌의 서해를 가르며 동방명주호는 천천히 인천항을 떠났다.

일행 중 누군가 새벽에 일어나는 바람에 눈을 떴다. 창을 내다보니 아직 깜깜하다. 중국 북쪽 방향이니 추울 것 같아 두툼한 옷으로 갈아 있었다. 밖은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7시 10분쯤 망망한 바다 동쪽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른다. 장관이다. 해는 이글이 글 불타며 수평선에서 솟았다. 회원들 모두 뱃머리에 몰려 이국의 타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 2.

날씨가 좋아서인지 기분도 덩달아 좋다. 버스 안에서는 현지 가이드 청년이 마이크잡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지만 내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눈 앞에 끝없이 펼쳐지는 중국의 산하가 더욱 들어온다. 버스가 단동시로 가는 도중 끝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에는 벚단을 나란히 쌓아 놓았다. 밭에는 옥수수대를 뚫어 놓았지만 일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안보인다. 버스는 이차선 도로로 압록강 강변 도로로 달린다. 압록강을 보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울컥했다. 넓디 넓은 압록강의 건너편과 이쪽편이 너무나 달라 보였다. 북한과 중국의 차이였다.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단동과 강 건너 신의주의 상황은 경제 수준의 차이를 한 눈에 느끼게 해주었다. 게다가 6·25 전쟁 때 끊어진 철교를 보니 동족상잔의 전쟁을 느끼게 되어 더욱 큰 아픔을 갖게 만들었다.

우리 일행은 조선족이 운영하는 외딴 곳 식당에서 중식을 먹고 차 한잔씩 하면서 중국의 산하를 둘러보고 있었다. 산에는 떡갈나무 종류만 있고 소나무는 전혀 없었다. 누런 단풍이 되어 바람만 불면 한꺼번에 낙엽이 될 것 같았다. 차는 산과 산이 이어져 있는 산길만 달린다. 주몽이 개국한 졸본으로 가고 있지만 밤이 되었고 먼 거리다. 차는 졸본을 지나 통화시에 왔다. 다리에 오색불빛이 화려하게 장식을 하여 멋있게 감상하였다. 깨끗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 후 여장을 풀었다. 먼 곳까지 와서 피곤함을 느껴 모두가 잠자리에서 피로를 풀어야만 했다.



### 3.

이곳 통화시는 겨울이 시작되었다. 아침 6시에 눈을 떴다. 난방을 안 넣어주어 추운밤을 보내 감기 증세가 약간 느껴졌다. 밖을 보니 사람들 입김이 나오고 마스크까지 하고 다닌다. 버스에 올라 오녀산성에 온 것은 2시간 거리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최초로 쌓은 성 졸본성이다. 성까지 가지 못하고 산 밑에서 올려다 보기만 하였다.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중국의 유적지로 등재되어 있다 한다.

국내성은 고구려 2대 왕인 유리왕 때 졸본성에서 집안으로 옮긴 것이 국내성이다. 집안에는 광개토대왕릉과 비, 장수왕릉, 국내성터 등 고구려 유적이 제일 많은 곳이기에 광개토대왕 비를 먼저 보기로 했다.

광개토대왕은 고구려 19대 왕이다. 고구려 역사상 가장 영토를 넓히고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다. 광개토대왕비는 광개토대왕이 죽은지 2년 뒤 대왕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

들 장수왕이 세운 비로서 가장 큰 비석이다. 이 비석은 높이가 6.39m이고 무게 약 37톤으로 4면에 예서체로 1775자를 새겼다.

이 비문은 상고사 금석문이며 오랜 세월 속에 글자가 마모되어 판독할 수 없는 글자가 141자 된다고 한다. 아쉬운 마음에 비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우리 문화원 일행들은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다.

광개토대왕비에서 300m 떨어진 곳에 릉이 있었다. 화강암 돌레를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아름다운 방형계단석 실묘였다. 높이가 18m 한 면의 길이가 66m이니 엄청난 크기이다. 과거 고구려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던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을 시작하며 자기 민족의 역사로 미화시키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광개토대왕비에 정자를 만들고 유리로 비를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적시한 안내문은 없었다. 그저, 이국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문화사적임을 알려줄 뿐이었다.

장수왕릉은 아버지 광개토대왕릉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장수왕릉은 화강암으로 7단의 피라미드형으로 쌓았는데 한 변의 길이는 30m 높이 약 13m이다. 광개토대왕릉이나 장수왕릉을 세울 때 세부적인 공법은 알 수 없으나 어떻게 저 큰 돌을 운반하여 묘를 만들었는지 의문이 일며 감탄했다.

고구려 역사는 주몽이 건국하여 700년이란 긴 역사 속에서 마지막 왕 연개소문을 거쳐 28대 보장왕에 와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망하게 된다. 이 넓고 넓은 고구려 땅이 우리 후손에게 이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나마 하였다.



## 4.

광개토대왕비와 룽이 있는 곳은 중국 압록강변 집안시로 강 건너는 북한 만포시다. 저 멀리 만포시 어느 공장에서 굴뚝 연기가 난다. 우리 일행은 가이드 안내로 북한식당에 들어섰다. “어서오시라요”라는 익숙한 억양의 북한말로 인사를 건넸다. 음식을 다 먹고 나니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도우미들이 전자반주에 맞추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노래는 남과 북의 심리적 거리를 한결 가깝게 만들었다.

집안시에서 단동까지는 면 거리였다. 약 4시간 가량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중국의 전형적인 시골풍경이 스쳐갔다. 획일적인 붉은 벽돌과 붉은 기와, 일자형 크기, 모습이 똑같은 집들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겨울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생활의 지혜가 엿보였다.

집안시에서 떠나 3시간 넘어서야 단동시에 왔다. 단동시 야경은 아름다웠다. 가게마다 네온싸인은 없고 큰 건물의 불빛이 색색 아름답게 꾸며 놓았다. 인구 240만 도시라 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길거리에 많지 않고 차도 없는 셈이다. 길은 이차선이고 신호등 건널목 보기가 힘들다. 압록강 강변은 산책로가 일품이었다. 강변에 앉아 한가로이 낚시하는 사람이 매우 평화롭게 보였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압록강 유람선을 탔다. 유람선은 상류 방향으로 가다 북한 압록강 강변에 바짝 붙어 배가 가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이 껴먼 옷차림에 서성대고 있고 남루한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민도 있었다. 6·25 전쟁 당시 끊어졌다는 철교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통일을 생각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만리장성의 시작이라고 하는 호산산성에 갔다. 저 멀리 고려의 운명을 바꾸게 했던 위화도도 보이고, 호산성에서 북한 땅을 가까이서 보기도 했다. 호산성에서 보는 북한땅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다.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너무나 다른 현실이 분단을 실감나게 했다. 통일이 되면 압록강 철교를 건너 이번 탐방 고구려 유적지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하는 마음 태산 같으나 내 나이 60중반 다시 볼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맘을 뒤로 하고 안타까운 고구려 유적탐방을 끝냈다.

## 지붕없는 박물관, 강화·수원 역사문화대장정

김은중(속초문화원 사무간사)

날씨는 변덕스러웠다. 어디 날씨뿐일까. 건국 60주년 기념 'I Love Korea, 청소년 역사문화대장정' 사업이 손에 떨어질 때부터 다양한 변덕(?)이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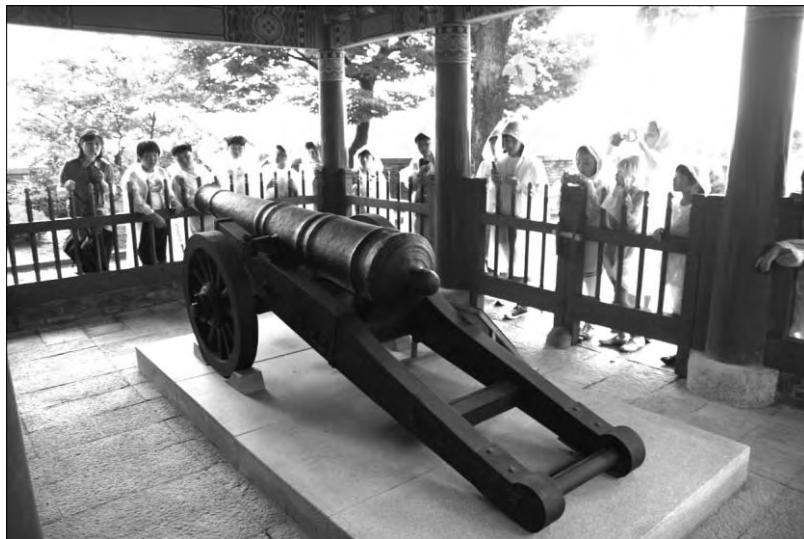
처음엔 학생모집이 걱정이었다. 초등부터 30세 이하의 일반인이라는 폭넓은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사업공지 때문에 정원인 35명을 다 채울 수나 있을런지 걱정이었던 것. 다행히 속초자원봉사센터 어머니들의 자녀 10명, 고성문화원의 추천자 8명, 위스타트 소속 학생들 10명, 자체 모집인원 12명 등 40명의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 예상보다 5명의 학생들이 넘치는 바람에 모든 예산을 수정해야 했지만, 시작치고는 꽤 근사했다.

40명의 학생과 5명의 인솔자가 가야할 곳은 강화군과 수원 화성. 강원도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곳이다. 물론, 이미 와본 학생들도 있지만 문화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적은 인원의 팀방단이라는 조건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갑작스레 떠나는 팀방이었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했다. 급하게 자료집을 만들고 팀방에 필요한 기념품을 준비했다. 그리고 출발.

버스 안에서 팀장인 문화원 사업과장님이 은근 협박을 한다. 이번 탐방은 단순한 캠프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해 몸과 발로 느끼는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점을 몇 번씩 강조한다. 자료집 뒤에 있는 메모란에 매일매일 기행문을 적지 않으면 부모님께 연락을 하겠다는 멘트까지 날리자 학생들은 순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출발 첫날은 비가 많이 쏟아졌다. 속초에서는 간간히 날리던 비가 경기도로 접어들자 장대비로 바뀌었다. 첫날 일정이 걱정이었다. 강화도는 고인돌을 비롯한 선사문화와 고려 궁지의 중세사, 광성보의 근대사가 함께 어우러진 박물관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날씨는 고맙게도 변덕스러웠다. 강화역사관에 도착하면서부터 살짝 잦아진 비가 용흥궁과 고려궁지에서는 멈춰주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이들이 가장 흥미로워했던 고인돌에서는 파란 하늘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출발은 별로였지만, 첫날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다.

강화유스호스텔에 도착한 후 7시부터 8시까지 기행문을 적는 시간을 가졌다. 앞서의 협박도 있었지만 제법 진지한 모습이었다. 자료집과 현장에서 가져온 팜플렛을 뒤적이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는 모습은 이번 사업의 조그만 성과로 볼 수 있었다.

다음 날은 강화도의 나머지 중요유적을 돌아보았다. 석모도를 찾아 보문사를 탐방하였고, 전등사의 소중한 문학유적을 보며 우리 문학의 흘.Tween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동해안에서는 보기 드문 갯벌체험을 할 수 있는 갯벌체험관을 탐방하고, 강화도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인 화문석을 체험하였다.

탐방 3일차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탐방하였다. 원래 계획은 성문을 다함께 돌아

보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현지 문화해설사가 뜨거운 햇살 아래 학생들의 탈진을 걱정하였기에 화성열차 체험으로 바꾸었다. 그래도 정조대왕의 일대기가 담긴 화성행궁을 답사하는 학생들의 눈빛은 빛나 있었다. 아마도 드라마 대장금과 이산의 영향이었던 듯하다.

문화원연합회가 마련해 준 숙소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삼성화재 교통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그동안 우리 문화에 짓눌렸던 탓일까? 세계 각국의 명품차들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박물관은 아이들의 넉넉한 쉼터가 되어주는 듯 했다. 역사문화탐방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곳이어서 걱정이었지만, 이 정도의 변주는 허용해도 좋을 듯 했다.

속초문화원이 마련한 프로그램은 3일차로 끝이 났다. 다음 날은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가하고 속초로 돌아오는 일만 남았다. 아이들은 지칠법도 했지만 여전히 기운이 펄펄했다. 광복절의 뜨거운 열기도 그 아이들의 싱싱한 열기를 이기지는 못한 것이었다.



속초로 돌아오는 길. 진행요원 5명이 돌아가며 아이들이 적은 기행문을 읽었다. 거칠게 쓴 아이, 대충 쓴 아이, 너무 꼼꼼하고 섬세하게 적어 우리를 놀라게 한 아이. 지난 3일간의 경험을 적은 내용들은 얼굴만큼이나 다양했지만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짧고도 제한적인 탐방이었지만 강화도와 수월이라는 역사문화유적지가 또렷히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는 점이다. 이번 문화대장정은 또 하나의 교과서 밖 역사여행인 셈이다. 이런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치러진다면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것으로 생각해 보았다.

## 전통을 염는 우리 문화 지킴이 – 속초 실향민문화촌 이성오 할아버지 –

이우철(설악신문 문화담당 기자)

속초시립박물관 실향민문화촌. 이곳은 이북 5도의 전통가옥을 재현, 방문객들이 쉽게 들러볼 수 있게 개방돼 있다.

개성집, 평양집, 평안도집, 함경도집, 황해도집. 모두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전통생활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이중 황해도 가옥만은 유독 사람들이 봄빈다.

방문객들은 짚으로 엮은 넓은 명석 위에 앉아 정갈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묵묵히 새끼 줄 꾸는 백발의 할아버지에 흥미를 느끼기 때문.

이성오(76, 사진) 할아버지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도, 수공예장인도 아니다. 일당 3만2천원을 받는 속초시 공공근로자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곳을 지키고 있다.

“여기에 있는 짚으로 만든 것들은 다 내가 만든 것들이여.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어. 근데 내가 연구해가지고 만들기만 하면 다 돼. 안 되긴 해서 안 되는게 어딨어.”

할아버지의 말대로 이곳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짚신부터 모자, 소쿠리, 명석 등 짚으로 만든 많은 생활용품들이 줄줄이 걸려있다.

“이건 도랭이라고 하는 것인데 비 피할 때 쓰던 거여. 지금의 비옷이랑 같은게지.”

“저건 종다래미라고 하지. 씨종을 담아 이렇게 허리춤에 차고 밭에 나가는 게야. 예전에는 이것도 귀해서 빌려 쓰곤 했지.”

“삼태미라고 아는가. 거름이나 곡식, 쓰레기를 담아 나를 때 썼지. 밭에서 쓰는 쓰레 받기라고 생각하면 쉽겠지. 이것은 시방도 사용되는 것인데….”

그리고도 한참을 설명했다.

달걀을 담던 닭등주리, 소의 입을 막는 소입망, 경상도에서 사용하던 동냥 그릇 오장 치, 잡곡을 담는 둥그미까지.

일일이 받아 적기도 벅거울 정도로 설명이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나서야 물어볼 기회를 줬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정식으로 기술을 배운 적이 없다. 아버지가 짚신을 삼는 모습을 그저 어깨 너머 눈동냥으로 본 것이 전부다. 하지만 어렸을 때 가장 또렷한 나이에 본 것이라 기억에 오래 남아 있을 뿐이라고 한다.



고령으로 일손을 놓은 뒤부터 기억을 더듬어 짚을 엮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져 박물관과도 연계가 됐다.

짚신 한 절레를 만드는데는 보통 하루가 걸린다.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 있는 명석은 보름이 걸렸다.

조금 더딘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면 이해가 된다.

“나는 이걸 보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야. 쓰려고 만드는 게지. 빨리 만들어봐야 좋을거 없어. 손가락으로 후벼파도 들어가지 않게 촘촘히 만들어야

오래 쓰지.”

짚신은 특성상 수명이 길지 못하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래 신을 수 있는 짚신, 나일론 짚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는 시내 곳곳에 버려져 있는 박스 포장용 끈을 모아 박물관으로 가져온다.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발명품보다 짚신에 더 관심을 가진다. 조금 아쉽긴 해도 옛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직까지 깊게 남아있는 점에 위안을 삼는다.

할아버지의 능력을 높게 산 방문객들 중에는 며칠 씩 속초에 머물면서 기술을 배워가는 사람도 있다.

할아버지는 충북 중원군(지금의 충주시)이 고향이다.

원래 이름은 ‘이성호’였지만, 6.25 한국전쟁 때 면사무소가 불에 타면서 넓을 ‘호’가 다섯 ‘오’로 바뀌었다. 본적도 강원도 원성군(원주시)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했다.

속초에 온 지는 40년이 훌쩍 지났다. 군 전역 후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해서 무작정 이곳에 발을 들였다.

시청에서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해, 안 해본 노동일이 없다. 지금은 공공근로를 해서 받는 돈으로 할머니와 함께 설악동에서 살고 있다.

할아버지는 수많은 방문객 중에서도 유독 아이들을 반긴다.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자를 보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한다.

“꽃도 꽃도 그런 꽃은 세상에 없지. 이쁘게 자라려면 옳은 것하고 바른 것, 정직한 것만 가르치면 돼.”

때문에 아이들을 만나면 표정이 급작스레 밝아진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일손을 놓으면서 까지 설명을 해준다. 20대 후반인 필자에게는 말을 낮춰도 아이들에게만은 정중하다.

마냥 상냥한 것만은 아니다. 아이들이 창호지를 손가락으로 뚫거나 담장에 늘어진 짚더미를 뜯어 가면 불호령을 내린다.

“박물관은 나라의 재산이야. 내 재산보다 더 중히 여겨야 해. 세금이 올바른데 쓰여야지 박물관 고치는데 더 들어가면 쓰겠어. 그래야 나라가 배부르지.”

마음은 찡하지만 아이들이 올바르고 곧게 자라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외국인 방문객들 사이에서 집중 조명을 받는다. 박물관에 들른 외국인 대부분은 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짚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필름에 담아간다.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것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외국인들이 더 지극 정성이야. 말이라도 통하면 얘기해 줄 텐데. 입이 균질근질해서 답답해.”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영어를 배울 수도 없고.”

때문에 할아버지는 외국인들을 만나면 빙그레 웃어주고 묵묵히 짚만 엮는다.

“한 2년 정도를 여기에 있다 보니 이제는 내 집 같아. 나를 보고 좋아라하는 사람들, 신기해하는 사람들. 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모두 내 손님 같거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싶어. 그래야 나도 무언가를 했던 사람으로 남지.”

## 고 이기섭박사 추모비 건립

청초호유원지에 … 지난 11일 제막식 가져

고 이기섭 박사의 추모비가 청초호유원지에 세워졌다.

지난 11일 청초호유원지 ‘하나호 선장 유정충 동상’ 인근에서 고 이 박사의 추모비 제막식이 거행됐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 박사의 유족을 비롯해 장철규 부

시장, 김진기 부의

장, 노광복 문화원장, 조수웅 설악문화제 위원장, 김남철 목사, 교인, 산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장철규 부시장, 김진기 부의장, 김남철 목사 등의 추모사에 이어 노광복 문화원장의 경과보고, 현화 순으로 진행됐으며, 고인이 즐겨 부르던 ‘봉숭아’ 가

색소폰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고 이기섭 박사의 장남 이규형씨가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 현화를 하고 있다.

아들 이규형씨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속초와 설악산에 사랑을 많이 베푸셨다고는 하나 시민과 산악인 여러분이 아버님께 드리는 사랑에 비교할 수는 없다”며 “아버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실천해주시는 속초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답사를 했다.

이우철 기자

## 물의 영성(靈性)

한초자

지금 생각해보면 아득한 옛날이야기만 같다. 처음 강원도에서 올라와 서울 시민이 된 곳은 성북동이었다. 그때 권투 선수 김기수씨가 우리 이웃에 살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권투를 재패하고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였다.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 한 일 년 정도 큰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때는 아주 변두리에 속한 미아리라는 곳이었다. 그 자리는 비만 오면 땅이 질척거렸고 아래 공장이 그 쪽 어디쯤에 있어서 그런지 냄새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래도 사람들은 서울 가면 살길이 열리는 것처럼 꾸역꾸역 서울로 몰려왔고 그 때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떠돌던 시절이었다. 서울이 이제 막 개발이 되던 때라 도시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이 미비하여 지금처럼 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각 동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제한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던 시절이었다.

그 때 내 나이 이십대 중반쯤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사는 동네는 고지대여서 늘 새벽 두시나 세시 경에야 물이 공급되었는데 때로는 조금 일찍 나오는 날도 있어서 밤 한시 쯤 수도꼭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기다렸다. 그러면 “쏴아! 쏴아! 핀핀!”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웃음이 나곤 했다. 그 소리는 얼마 후면 물이 나오는 신호이며 호수관 속에 쌓여 있던 공기가 압으로 밀려나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밤마다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수도꼭지 앞에서 목을 빼고 앉아 물이 언제 나오나 하고 수도꼭지를 틀고 있으니 어찌 꼭대기에 사는 우리 집까지 물이 빨리 나올 수 있겠는가 “쏴아! 핀핀!” 소리가 계속 들려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물이 채워져야 나오기 때문이다. 물이 공급되는 시간은 보통 서 너 시간 사이이다.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항아리나 양동이, 세숫대야, 나중에는 쌀을 씻는 조그마한 남박까지 일렬종대로 세워 놓고 물을 하나하나 채워 나갈 때는 그렇게 신나고 좋을 수가 없었다.

그날도 한참을 이 항아리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 나가고 있는데 그 날이 음력으로 보름쯤 되었는지 달이 새벽하늘에 등실 떠 있어 항아리에 검은 물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달빛에 반사되어 저렇게 보이는가 싶어 검은 물을 손으로 찍어서 입에 대

보았더니 짭짜름했다.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그동안 밤마다 여러 번 물을 받아도 이런 실수는 안했는데 물 항아리 옆에 있던 십년 넘게 묵혀온 집 간장 항아리에 신나게 호스를 대고 물을 채웠으니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 호스를 팽겨 치듯이 던져놓고 그 자리에 텔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 때 밤하늘 달빛은 어찌 그리도 환 하던지.... 형님께서 늘 자랑으로 여겨오시던 간장이 아니었던가? 자는 둉 마는 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뜰과 장독대를 쳐다보니 온통 검은 얼룩과 물과 섞인 간장이 여기저기 고여 있었다. 형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첫 말씀이 “웬 간장 냄새야” 하셨다. 나는 형님께 달려가서 형님 손을 꼭 잡고 내 가슴 속에 소리 없이 자리하고 있던 설움을 함께 실어서 울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지만 손으로 장독대만 가리키고 있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무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찌 다 감출 수가 있었겠는가? 그 날 이후로 그 항아리는 전부 씻겨져서 정말 물 항아리가 되었다.

그 때의 어려움을 딛고 찾아 온 지금의 풍요로움을 나는 사랑한다.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하고 있다. 지금은 언제라도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평평 나오고 차가운 물을 쓰고 싶으면 차가운 물, 더운 물을 쓰고 싶으면 더운물로 언제든지 샤워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일이 불과 사십 여 년 전의 일이다. 이렇게 편리하게 자유자재로 물을 쓸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사람들은 물의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 같다.

나의 어머니는 생전에 늘 쌀뜨물을 받아 두었다가 우리 자매에게 세수하라며 물을 내놓으셨다. 쌀뜨물로 세수를 하면 비누도 필요 없고 잡티도 없어 얼굴이 희어 진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저승 가서 염라대왕이 네가 생전에 쓴 물을 다 마시라고 한단다. 그 물을 다 어찌 마실래” 하시며 물 아끼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기억이 난다.

이 세상 만물 중에 물이 주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은 물로 통한다. 인도 여자들은 아직도 면 산길을 돌고 돌아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길어서 나른다. 그것은 거의 고행에 가까운 행위이다.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지구상에 존재 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물이 공정하게 분배 된다면 절대로 풍족하게 쓸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의 삶은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한된 유한한 존재 일 뿐이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물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물은 신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만인의 생명수라고도 할 수 있다.

철따라 해당화가 피고 소나무가 자라던 바닷가 백사장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하여 매립되어 버리고 조그마한 운동장으로 그 모양이 바뀌어 갔다. 또한 여기저기 솟아나던 옹달샘과 강의 발원지가 지구의 온난화로 말라 가고 있다. 각종 쓰레기와 폐수의 방류로 바

다 역시 크게 오염되어 우리들 삶을 위협하고 있지 않는가? 그동안 무한한 자원으로만 여기고 있던 물이 언젠가는 고갈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물을 사랑하고 아끼자는 자성의 소리가 여기저기 높아지고 있다.

지구 곳곳에서 쓰나미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과 함께 집채 냉이 보다 더 큰 파도가 사람과 집을 삼켜 버리는 것을 TV로 보았다. 물이 단순한 물로 끝나지 아니 할 때 기준의 영역에 대한 물의 저항이요, 인간들에게 주는 가혹한 시련이라고 할 수가 있다.

물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에 부리어 스스로 성품을 내세우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본성을 잃지 않는다. 원효대사께서 화작(化作)으로 중생을 제도 하셨듯이 물이 언제 내가 양귀비 몸을 씻은 물이요, 천지연에서 선녀가 내려와 목욕한 물이요 하고 내 세우던가?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고 귀한들 물에 비하랴? 사막에서 “다이아몬드 한 자루 가지겠습니까? 물 한양동이 가지겠습니까?” 하고 선택 하라면 그 때의 다이아몬드는 하나의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사막에서 물 한 잔에 백만 원을 한다고 해도 그 달고 맛있는 물을 어찌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쓰고 있는 물을 잘 간수 하지 못하고 지구 곳곳에 파생되는 재앙의 줄가리를 읽지 못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물싸움이 또 다시 시작 될지도 모른다. 기름 뜯지않게 소중한 것이 물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물을 함부로 쓴다면 생명 그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지구 곳곳의 사람들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물 절약을 실천해보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현대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은 감동 할 줄 아는 마음 속 에너지를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행복의 주파수를 보내면 행복의 파장이오고 슬픔의 주파수를 보내면 슬픔의 파장이 열린다. 물도 그렇다. 그 실체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 영성(靈性)이 곧 사람의 영성(靈性)과 같은 형태를 만들어낸다.

물은 아름다운 말이나 노래 소리에 육각형 꽃모양의 입자를 만들어내고 화내는 소리에 험한 파장의 입자를 형성한다고 한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음을 깨닫고 사람을 사랑 하듯 물을 사랑 하자! 반짝이는 물의 영성(靈性)을 우리들 마음속까지 끌어들여 생기 넘치는 삶의 에너지로 환원 시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임이다.

# 2008년을 빛낸 문화인물

◎제2회 강원예술상 공로상 수상  
윤홍렬 속초예총 명예회장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

◎제34회 신사임당상 수상  
안정희(安貞姬, 62세) 여사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회 '봉사장 은상'  
최돈일 속초시번영회장

### 제2회 강원예술상 공로상 수상 윤홍렬 속초예총 명예회장



지난 12월 19일 춘천 베어스관광호텔에서 개최된 '2008 강원예술인 대회'에서 윤홍렬 속초예총 명예회장이 제2회 강원예술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인생의 절반을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힘써온 윤 명예회장은 1969년 속초에 '설악문우회'라는 문학회를 결성, 초대 회장을 맡고 이듬해 동인지 '갈뫼'를 창간하는 등 지역 문학 발전과 문학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윤 회장은 이후 '갈뫼' 30집 발간 때까지 30여 년간 설악문우회 회장을 지냈고, 1974년 문인협회 속초지부를 창립, 2001년까지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속초 문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일에 힘써 왔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문인협회의 대표 사업인 학생백일장, 주부백일장, 합평회 및 독자와 함께하는 시낭송회, 문학유적탐방, 거리시화전 등을 지부장으로 재직시 기획한 사업들이다.

이에 더해 1989년에는 속초지역의 예술인들을 규합해 예총 속초지부를 탄생시키고, 초대 지부장을 역임했다. 현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한국 소설가 협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장편 <역풍은 불어도 강물은 흐른다>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 제15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



한기학 속초예총 회장이 지난 11월 12일 오후 6시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제15회 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연예예술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한국예총 회장상인 특별상을 수상했다. 1989~1995년 한국예총 이사를 역임한 한 회장은 2003년부터 속초예총을 이끌어 오고 있으며, 현재 예총 강원도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1994년에는 제6회 속초시문화상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가 후원한 이날 시상식에는 한 회장을 비롯해 모두 8명이 연예예술발전 특별상을 받았으며, 설운도씨는 성인가요 가수로는 처음으로 화관문화훈장이 주어지는 대

상을 차지했다. 이외 연예예술발전공로상, 해외 인기상, 희극인상, 신인가수상, TV진행상, 라디오진행자상 등 총 22개 부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 제34회 신사임당상 수상 안정희(安貞姪, 62세) 여사



속초출신 안정희 여사가 지난 5월 23일 오후 2시 강릉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제34회 신사임당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안 여사는 대한민국 비림서예대전 입선, 강원미술대전 입선, 율곡휘호대회 차상 등 각종 대회 입상하는 등 뛰어난 재능을 발휘, 여성의 잠재능력 계발에 앞장섰으며, 동양화와 서예부문 등의 후진양성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가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한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웃과 후덕한 정을 나누는 칭송받는 한국의 어머니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여사는 속초도서관 주부교실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참사랑회 부회장, 속초

시 노인복지회관과 속초시 여성대학 동양화 강사로 있다.

이번 신사임당상 수상자 선정은 3개 시·군 및 1개 출향도민회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현지실사 및 서면심사를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

###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회 ‘봉사장 은상’ 최돈일 속초시번영회장



최돈일 속초시번영회장이 11월 12일 개최된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회의 연차대회에서 적십자봉사원의 최고영예인 ‘봉사장 은상’을 수상했다. 최돈일 번영회장은 적십자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남북이산가족 상봉 주관 등 인도주의 정신을 앞장서 실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도내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 정신을 몸으로 실천해 온 유공자들에게 적십자 포상 223명, 총재 표창장 446명, 장관 및 강원도지사 표창장 27명, 지사회장 표창장 565명 등 모두 1천261명에게 상을 수여했다.

최돈일 회장은 현재 대한적십자봉사회 중앙협의회 상임고문, 속초시번영회장,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 희망을 나누는 속초 연탄은행 / 쌀은행

마음으로 채우고 희망으로 나누는 은행이 있다.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특별한 사람들의 은행. 속초 연탄은행과 속초 쌀은행이다. 먹고 자는 문제만이라도 해결해보자고 팔을 걷어붙인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루어진 후원금으로 설립된 속초 연탄/쌀은행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따뜻한 풍경을 만든다.



속초연탄은행은 지난 2005년 2월 5일 원주밥상공동체 연탄은행으로부터 속초연탄은행 설립승인을 받아 그 해 2월 22일 연탄은행 전국협의회 11호점으로 개원식을 하여 3월 2일 사업운영을 시작했다.

시작 당시에는 52가정에 연탄 100장씩 지원하고 쌀, 라면, 밀가루 등의 식료품을 간간히 나누던 것이 차츰 대상자 수도 늘고 연탄 지원수량도 늘어 현재는 약 100여가구에 약 150장씩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 2월 개점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2주년 때는 1424가정에 10만장의 연탄을 나누어 2주년 기념식 및 연탄 10만장 나눔선포식을 3월 2일

개최하였다. 더불어 꾸준한 관심 덕분에 2006년 하반기에서 2007년 상반기 연탄무료나눔 사업에도 벌써 5만장 이상의 연탄을 나누었다. 이같은 사업에 함께 참여해 주신 봉사자 수만해도 1454명이다.

속초연탄은행은 2월 5일 본점을 개점한 이후에도 2005년 12월 1일 속초연탄은행 영랑동에 북부점 개점을 시작으로 2006년 2월 24일, 금호동에 중부점, 2006년 3월 30일에는 청호동에 남부점을 개점하여 연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연탄 3장씩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개방하였다.

2006년 5월 17일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인가를 마치고 그해 8월 속초연탄직판장 연탄대평창고 협력체결까지 맺었다. 그러한 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9월에 열린 제2차 연탄은행전국협의회 워크샵에서 모범활동상을 수상하여 연탄 1만장을 상금으로 받기도 하였다.

한편 연탄을 지원받는 대상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생활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연탄배달시 자주 보아 온 속초연탄은행에서는 2007년 5월 17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쌀은행을 설립한다. 속초 쌀은행은 저소득층 가정과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불우이웃들에게 쌀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속초시 노학동에 세워지는 쌀은행은 본점 이외 1~6호점을 두고 있으며, 쌀통과 쌀 저장 창고 등도 마련해 놓았다. 점장은 지역 사정에 밝고 봉사정신이 있는 통장들 가운데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일부 시·군에서 마을 단위로 쌀 항아리 등을 마련해 놓고 필요한 만큼 페가도록 한 경우는 있으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돼 지속적으로 불우이웃에 쌀을 지원하기는 속초 쌀은행이 처음이다.



제20회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

2개 부문

체육부문 / 조길현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부문 /최무일

# 수상자 공적사항

## [속초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조 길 현	
본 적	충북 온천군 읍 수복리	
주 소	속초시 조양동 부영 A 301-401	
소 속	속초고등학교	
직위(직급)	교사	
추천사유 (공적내용)	<p>1. 오랜 전통을 가진 배구 명문교로 부상하는데 크게 공헌하였음. 속초고등학교 배구부는 1953년 창단한 이래 속초중학교 배구부와의 연계를 통하여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강원 배구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속초중학교가 1990년 축구부를 창단하고 배구부를 폐지하면서 겨우 명맥만 유지한 상태로 1990년대를 맞게 되었다. 상기 교사는 1992년 배구부를 맡으면서 산적한 문제들과 열악한 주위환경을 이겨내고 옛 명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 가운데, 부임 7년 만인 1998년 '제32회 전국 대통령배 배구대회' 우승을 시작으로 배구 명문의 전통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07년 5월과 6월에 전국 대회 연속 2관왕을 달성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 최고의 배구 명문교로 부상하는데 공헌한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p> <p>2. 육성종목인 배구부의 자립화에 솔선수범함.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교직원 배구부 후원회' 결성 및 '지역사회 배구부 동호인회' 구성 등 배구 발전에 근간이 될 모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고, 동문과 지역사회로부터 외면되어 있던 배구부에 대한 후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혼신적으로 노력하였다.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배구부원을 돋는 일과 '배구부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등 배구부 자리봐에 기여하였다.</p> <p>3. 체육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학생 전인교육에 앞장 서 노력함. 학력 제고에 모든 힘을 쓴고 있는 인문계 고교에서도 체육교육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학생들의 체력관리에 힘을 쓴았고, 본교 육성 종목인 배구부에 대한 교사의 열정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에게 영향을 주어 팬클럽까지 생길 정도로 배구부를 활성화시켰다.</p> <p>4. 지역사회에서도 인정하는 교사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큼. 평소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비롯하여 학생 생활지도면에서도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여 학교의 명예는 물론 속초시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다.</p>	

# 수상자 공적사항

## [속초시 문화상]

수상후보자	최 무 일	
본 적	속초시 동명동 450-118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부영@308-702	
소 속	속초시 사회복지협의회	
직위(직급)	회장	
추천사 유 (공적내용)	<p>1991. 5. 20 (사) 속초지역 개발 연구소 초대 소장 취임 · 속초시민 의식 조사 실시(2회) · 미시령터널화 중앙정부 건의 · 모노레일 설치 추진을 위한 향토기업 창업 동참</p> <p>1991. 5. 20 1992. 3 속초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취임 · 국립공원의 관리를 지자체에 이양해야 함을 주장</p> <p>1992. 5 바르게살기 운동 속초시 협의회 회장 취임 · 효자효부 발굴시상(6회) 78가족, 경노효친 사상을 일깨워줌 · 도덕성 회복을 위한 손인수 박사 초청 시민 강연회 개최</p> <p>1996. 5 속초시 번영회장 · 속초시 방위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에 위촉되어 활동함 · 속초항 준설 및 확장에 관한 언론사 기고 및 건의 · 속초항 북방교역의 필요성 제시 및 주도해야 함을 언론사에 기고 및 강의</p> <p>1999. 3 속초시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합공동대표 · 항공기 감편운항에 따른 대규모 항의 운동 전개, 157개 단체명의 성명서 채택 · 속초 157개 시민단체 시민대회 개최(2회)</p> <p>1999. 5 설악 환경보전 운동본부 총립, 본부장 취임 · 지구환경을 살리는 생명운동 전개 · 녹색휴가 보내기 운동전개(9회) · 설악권 관광대책 토론회 개최(1회)</p> <p>2004. 5 (사)새강원포럼 속초지역 협의회 회장 · 설악 · 금강 연계개발 세미나 개최(근로자 복지회관) · 요양시설에 정수기 및 생필품 기증(500만원 상당)</p> <p>2007. 2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장 취임 · 가족복지아카데미실시(3회) · 복지인을 위한 워크샵(2회) · 독거노인 및 시설 기관위문활동(26회)</p>	

# 2008 속초문화원 임원 명단

직위	성명	주 소	비 고
원 장	노 광 복	속초 중앙동 468-142	
부원장	오 윤 근	교동 656-5 13/2-	청운독서실대표
	최 현 식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1201호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이 사	고 석 철	노학동 삼환APT 107-602-	동해용역(주)전무이사
	고 재 양	교동 780-60 15/3-	교사(전)
	곽 철 신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한일건업
	김 계 양	대포동 470-3	대포하우스대표
	김 동 익	중앙동 476-12	속초리복대리점
	김 병 학	중앙동 503-44	속초요리학원원장
	김 상 복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금강케이블넷 대표
	박 무 웅	도문동 200	돌감자 장학회장
	박 상 열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풍원기업사 대표
	박 영 남	동명동 산 60-1	주)사공수산대표
	박 정 은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동제약국
	어 재 석	중앙동 468-67	속초시의회과장(전)
	엄 시 용	노학동 1011-25	성우산업대표
	윤 광 훈	조양동 1292-15 0정종합광고	0정종합광고대표
	윤 숙 자	교동 627-42 19/5	설악유치원원장(전)
	이 병 선	교동 동부APT 107-1906	강원도의회 의원
	이 춘 실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전)속초시기획감사실장
	전 복 식	금호동 대림이편한 106동 1502호	대우파크(설악산)회장
감 사	탁 동 식	교동 로약골든APT 303호	거진종합고 교감
	함 봉 식	교동 럭키설약타운 1-1108	(주)세림
	허 춘 권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속초간호학원원장
사무국	박 정 기	조양동 230 연희동- 자택636-7025	설청로타리를럽 대표
	양 재 호	교동 627-32 21/6-	교육행정공무원(전)
	한 정 규	교동 대우아파트 104동 1501호	
	김 인 섭	조양동 부영아파트 311동 506호	
	김 은 중	동명동 44번지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 명	우편번호	주 소
강금옥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석미아파트 103동 1403호
강대선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227
강응길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E-편한APT 103-304
고무순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1통 5반 476-12 (속초리복대리점)
고석철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삼환APT 107-602
고재양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80-60 15/3
곽철신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럭키2차APT 103-1205
권순옥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450-73
권영석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37-1414호
권종식	219-833	강원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95-8
권춘산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628-1
권혁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37-1414
김경선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398-6
김경숙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주공3차 105동 701호
김계남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금강산고속관광
김계양	217-100	강원 속초시 대포동 470-3
김귀선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APT 104동 805호
김기순	219-832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166-5
김남범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570-5
김동연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김동익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476-12
김동하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대명4차APT 804호
김령자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타워맨션 905호
김병학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503-44
김봉선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부영아파트 201동 504호
김상복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삼성쉐르빌 104동 901호
김성하	217-090	강원 속초시 청호동 1352-7
김영환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664-193 채플린종합약기사
김옥연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2동4반 72번지
김은경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516번지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우편번호	주소
김정환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우령3길 5호
김철수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500-1 삼성화재 설악영업소
김철한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301-1002
김춘형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수복탑 앞길 59
김칠복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3동 404호
김태희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남정이	217-110	강원 속초시 도문동 200
노조자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799-109번지 43통2반
문광철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292-1 동명아파트 나동 205호
박경순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아남프라자 1305호
박난영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중앙빌딩 7층
박명기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서울대명2차 2동 509호
박명선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양우APT A동 504호
박무웅	217-110	강원 속초시 도문동 200
박봉근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17통1반 400-11
박상열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동진오피스텔 1329호
박영남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산 60-1
박인숙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99-96
박정기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230번지 '연화동'
박정숙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성호APT 104동 207호
박정은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484-7 동제약국
박찬웅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박치영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박현숙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570-25 문화로 76
손병섭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명지 미래힐APT 106동 1004호
신우근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신종우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3-304
안필순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남성연립 나동 102호
양언석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7-202
양재호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627-32 21/6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우편번호	주소
어재석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468-67
엄경선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6호 305호
엄시용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1011-25
오영자	217-110	강원 속초시 도문동 665번지
오윤근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656-5 13/2
오정선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567-26 14/2
유영순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속초대명1차 1405호
유인혜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904동 406호
윤광훈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292-15 이정종합광고
윤숙자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627-4219/5
이경우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200번지 동현APT 102동 904호
이병선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동부APT 107-1906
이복례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980-33
이승호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114-5번지
이영자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306-1
이옥복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서울대명 1차 301호
이재선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삼환APT 105-1204
이정옥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0-803
이정옥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럭키2차 설악타운 103동 905호
이춘실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설악럭키1차APT 2-606
이태숙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부영APT 101-404
이형찬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대명드림빌 1207호
이혜정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 -103
임희영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570-2 갯마당
장계석	425-88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번지 호수마을APT 115-603호
장성구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500-1 삼성화재설악사업소
장옥	217-130	강원 속초시 장사동 우림연립 마동 101호
장용근	217-020	강원 속초시 동명동 577-36
장재환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산수빌APT 1405
장종길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904-5 나하나 2차 301호

## 속초문화원 회원 명단 (가나다 순)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복식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대림이편한 106동 1502호
전성호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전추자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무궁화 APT 203호
정병옥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대우APT 101동 401호
정연숙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동명APT 다동 304호
정재승	219-833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23번지
정정자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31통4반
정종천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정진무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대림e편한 107-1501
정효남	217-100	강원 속초시 대포동 350번지
조광여	217-040	강원 속초시 금호동 23/5
조동대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1034-49 청초프라자 117호
조두영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81-1 동부APT 103-2006호
주동진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지응준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1027 명지미래힐 102-604
최동춘	217-030	강원 속초시 중앙동 1통 6반
최상규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05-901
최원근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767-224 럭키 1차 3-808
최종현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주공4차 111-1002
최현식	217-080	강원 속초시 조양동 코아루APT 102동 1201호
탁동식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로약골든APT 303호
한경태	217-070	강원 속초시 노학동 신흥길 16 속초시립박물관
한남호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대양연립 나 -103
한초자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설악현대APT 102동 1503호
한태우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삼환APT 107동 301호
함봉식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럭키설약타운 1-1108
허용자	217-010	강원 속초시 영랑동 209-6
허우린	217-060	강원 속초시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터

문화의 온기가 전해지는

## 속초문화원

문화를 통해 세상과 만납니다.



### 2009년 속초문화원 주요사업

#### ♣ 향토문화 연구 및 활동 기능 강화

- 향토문화의 체계적 관리 및 전승
- 향토사연구소 활발한 활동 및 기능 확대

#### ♣ 사회 교육사업

- 실질적인 문화학교 운영으로 문화교육 기회 마련
-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속초의 뿌리 교육정착

#### ♣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 문화DB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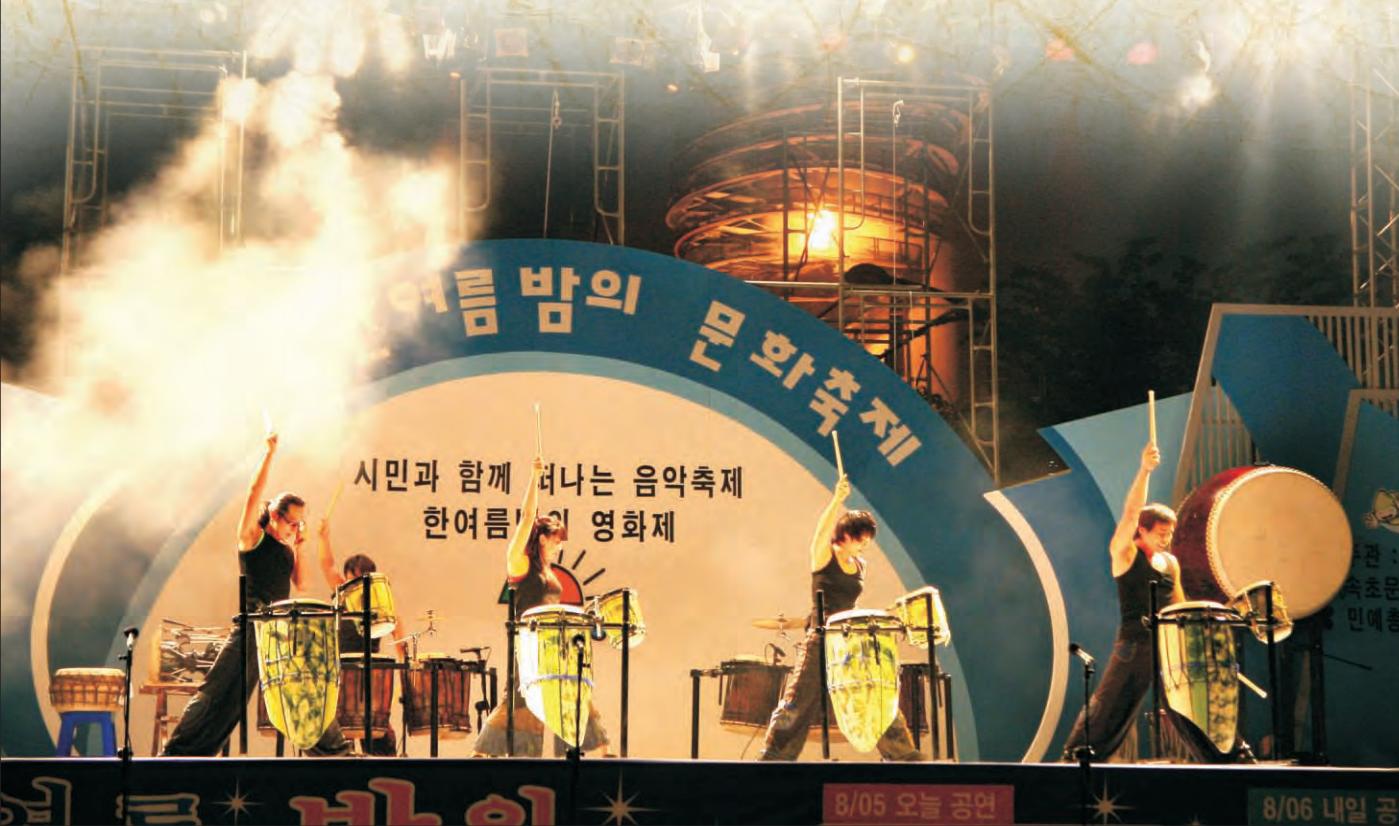
- 인터넷 홈페이지의 디지털화 변환
- 관련기관 홈페이지와 DB 연계 구축

#### ♣ 속초시의 종합 문화예술기관으로 위상 정립

- 속초시 각종 행사에 속초 전통문화 공연 계획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를 통한 실버문화종합기관 구축

#### ♣ 속초의 문화 재조명

- 속초시사 홈페이지 체계적 관리
- 속초사자놀음 전승 및 보존
- 속초도문농요 문화재 지정에 따른 체계적 전승
- 실향민 문화콘텐츠 개발과 보존 및 전승



시민과 함께 떠나는 음악축제  
한여름 밤의 영화제

8/05 오늘 공연

8/06 내일 공연



2008년 속초문화원의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결성된 실버예술단 ‘아바이, 아마이’ 가 2008년 한해동안 29회의 공연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아바이마을 실버문화해설사를 양성하여 노인문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실버문화가 문화 인프라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를 통한 일자리는 문화원이 실버문화센터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 속초문화원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451(영랑동 570-5)  
전화 (033)632-1231, 639-2439 전송 632-1241  
홈페이지 : [sokcho-culture.com](http://sokcho-culture.com)

속초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을 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속초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 사무국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